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2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27일 수요일(주간) 제 324 호

금주 법구

성불이 언제나고 나에게 묻지 마오.
지옥이란 두 글자 영원히 없어지고
가없는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하면
그 때를 기다려서 승은 뜻 말하리라.
-대예참예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수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현직 주지 '문중 파문'

동산대종사 입적(1965년)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법랍 40년 이상인 직계제자 지유, 능가, 지혜, 대정, 지원, 양익, 백운, 일미, 정관, 계전 스님 등 21명의 원로스님들이 22일 범어사에서 모임을 가졌다. 3시간에 걸쳐 의견교환에 들어간 원로스님들은 "은사스님이신 동산스님의 뜻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범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의 책임이며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범어사 운영위원회, 산중총회, 종무협의회의 기능을 임시 정지시키고 현 주지 성오스님의 문중 파문을 결의했다.

또 원로스님들은 대본산인 범어사의 살림살이를 부명하고 참신하게 공론을 모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사태해결의 결정권을 갖는 '동산대종사 상좌회(대표 능가)'를 구성하고, 범어사 후임 주지로 대성스님(은하사 주지) 추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원로스님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범어사 종무협의회 의장인 홍교스님은 어른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종헌·종법상 산중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 주지 성오스님과 집행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로스님들은 "이날 모임은 어차피 초법적인 것이다. 종법과 관계없이 범어문중의 고승이었던 동산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현 범어사 문제는 문중의 위계질서와 수행정신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동산대종사 상좌회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동산대종사 1대 제자들인 원로스님들이 모여 이 같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최근 문화재보수비 횡령 문제로 재무국장 석호스님이 구속되는 등 범어사가 도덕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소임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70~80세의 노스님들이 직접 나서 '범어사의 수행가풍 되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천미희(부산 주재기자)



◇범어사 원로스님들이 22일 모임을 갖고 수행가풍 되살리기에 나섰다.

장 군 죽 비

◇도난 문화재 은닉 및 보관 행위 '발견' 때부터 공소시효 적용. 모두를 위한 보듬이 개인의 치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2면)

◇3년째 명동서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거리 모금하는 정토청년회. 사바를 정토로 가꾸는 아름다운 청년들. (6면)

◇여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해운대도 경포대도 싫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山寺로 간다. (7면)

◇중국서 북한 난민 지원하던 종은벗들 활동가 4명 간첩혐의로 기획행위 당한 뒤 추방. 이웃 사랑도 간첩행위가 되는 기막힌 세상. (23면)

이제는 복지 불사

㊤ 교구 본사 앞장선다
㊦ 지역복지 성공사례
㊦ '1교구 1법인' 만들자

신흥사 8개 복지시설 운영 '모범'

노인·장애인·아동·부랑인에 관심
불교사회복지법 제정 우선 과제

불교가 이제 받는 종교에서 베푸는 종교로 변하고 있다. 그간 대형 불사 등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 온 지역의 중심 사찰들이 6·8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복지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계사가 서울노인종합복지센터를, 제16교구 고운사와 영주봉화사암련이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11교구 불국사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등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97년 IMF관리체제 이후 활발한 사회복지사업에 나서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중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본사는 모두 18개. 이중 통도사(통도사자비원) 신흥사(신흥사복지원) 동화사(불교사회복지회) 금산사(금산사복지원) 관음사(불교자비원) 마곡사(사회복지법인 백상) 송광사(늘기쁜 마을) 범어사(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등 8개 본사는 부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부랑인 분야등 다양한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7년 '신흥사 복지원'을 설립한 신흥사는 속초·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제천장애인복지관, 전주 스포피아, 반야노인요양원, 2개의 어린이집 등 무려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1년 통도사자비원을 설립한 통도사 역시 공창·중리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남도 학생기숙사, 부산 보현의집, 3개의 어린이집 등 7개의 시설을 운영중이다.

또한 고운사와 쌍계사는 사암연합회와 본말사연합회 차원에서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하동청소년수련원을 각각 위탁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자연학습원을 위탁운영중인 월정사는 각 말사에 '1사찰 1유치원'을 구호로 교구내에 10개의 사찰 부설 유치원을 설립, 새싹 포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회종환 부장은 "최근 4~5년간 교구본사의 활발한 복지불사는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재단의 전문적인 지도에 힘입은 것으로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교사회복지사업은 '1교구 1법인, 1사찰 1시설'이란 구호아래 교구본사와 지역 사찰에 의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원' 설립을 포함한 '불교사회복지법'(가칭) 제정과 함께 단위 사찰의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gkm@buddhapa.com

조계종 교구본사 운영 주요 복지시설

본 사	운영시설 (어린이집 제외)
조계사	서울노인종합복지센터
신흥사	속초·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반야노인요양원, 전주 스포피아,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월정사	강원도 자연학습원, 월정사부설 유치원 등
마곡사	양지마을
직지사	금오·오천 종합사회복지관, 상주 남평사회복지관
동화사	보리수마을 김천(미륵오 사설),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자비·관음의집
은해사	경산 백천사회복지관
불국사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불국유치원
쌍계사	하동청소년수련원
범어사	선혜마을
통도사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공창·중리 종합사회복지관
고운사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금산사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일거리 사업소, 경로식당
화엄사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송광사	무송·송광 종합사회복지관
대흥사	해남 유스호스텔
관음사	제주 일로회·오임원
봉선사	구리 인창경로당

"해인사 대불 '토론의 장' 열자"

교계 14개 단체 제안 "화합승가 구현"

해인사 대불 조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21일 교계 18개 단체와 중앙신도회 산하 26개 광역 교구신도회가 대불조성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 14개 단체들은 청동대불을 비롯한 대형불사문화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수립할 '사부대중 토론회' 개최를 조계종단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 논란을계기로 대형불사에 대한 환경·생태적 불사문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계단체들은 또 18일 해인사 선방 수좌들이 안거기간에 산문을 벗어나 실상사의 수경스님 처소를 표손한 행태는 출가수행자의 위의와 화합승가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참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실상사도 해인사 선방 수좌 스님들의 소동과 관련해 20일 해인사를 방문 △방장스님 유감표명 △선원장 사과 △주동자스님 3년간 해인사 산문출입 금지 △가담자 28명 명단 공개 및 실상사 방문참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는 "산중의 의견을 모아 26일경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인사 대불조성에 대해 일반언론과 네티즌들이 해인사 대불조성과 관련해 비판적인 여론을 견지하고, 일반 시민·환경 단체와 국민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다. 특히 해인사가 대불조성을 강행할 경우 골프장건설 백지화 운동과 가야산 관통도로 노선변경 운동을 벌여온 한국의 대표적 환경권수호 모범사찰이라는 점에서 일반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26일까지 해인사의 공식입장을 기다린 뒤 대불조성이 강행될 경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관련기사 8·9면

"불사 예정대로 추진"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청동대불 조성과 관련해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사진)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민스님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인사 불사는 대불이 아니라 수련원을 짓는 것이 주목적이며 신도중심의 포교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불 조성도 그 일환일 뿐 불사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불 조성은 자운·성철 큰스님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수좌 스님들의 실상사 소동과 관련해서는 "해인사와 실상사는 이웃사촌이다. 싸울 일이 없다"며 "도법스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금명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며, 수좌들도 안거 중에 선방을 나간 이유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원택스님과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이 황조롱이를 삼각산에 풀어주고 있다.

"다시 자연 품으로"
조계종-환경부 방생법회
황조롱이 등 조류 풀어줘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부는 20일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자연과 생명 살리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 등 야생조류를 방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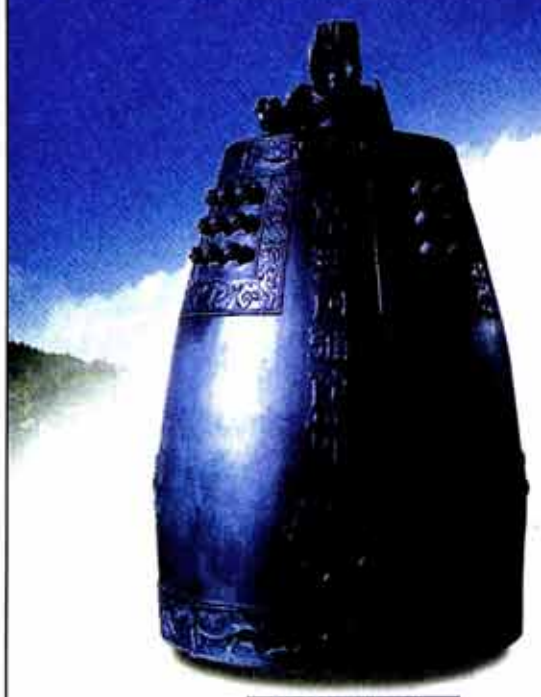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사회부장 양산스님, 문화부장 혜자스님,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세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어와 김명자 장관의 축사, 방생, 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택스님과 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황조롱이 17마리,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등 모두 21마리의 야생조류를 삼각산에 풀어주었다. 이날 풀어준 황조롱이 등은 부상을 입은 채 생포한 새들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치료를 받아 야생방사해도 생존이 가능하다.

조계종은 환경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방생지침서를 7월중 전국 사찰에 배포하고, 지침대로 방생법회를 봉행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7월 지역불교 문화기행 (社告) 18면

해인사 선각 스님 반론문 8면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 설

'갈등' 아닌 생산적 '진통'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안이라도 관점에 따라 상반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한 예로, 긴 가뭄 끝의 비는 당연히 생명수로 받아들여지지만, 장마 때의 비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인사 청동 좌불 조성 문제도, 관점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뒤바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로 불거진 불교계의 의견 개진 방법을 두고, 불교계 내분 또는 해인사 대 실상사의 갈등 양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단세포적이기조차 하다. 결코 이 문제는 불교계의 내분이나 해인사와 실상사의 갈등으로 볼 일이 아니다. 수경 스님과 일부 해인사 스님들의 대립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드러난 모습으로만 본다면 갈등 국면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사안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있는 게 아니다. 좀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불교계의 생산적 진통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 진통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볼썽사나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지엽말단이 본질을 가리는 양상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차분하게, 불제자답게, 과연 어떤 행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 행위인지를 생각할 시점이다.

불가 고유의 전통에는, 지극히 이상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뜻을 묻는 제도가 있다. 어떤 일이든 재가의 남녀 신도인 우바새·우바이, 출가 대중인 비구·비구니 등 이른 바 사부대중의 공의를 묻고, 포살(布薩)이라는 이름으로 보름마다 스님들이 모여서 지난 반달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공개 참회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불가의 자랑스런 전통대로 여법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선가(禪家)의 말대로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태산 같은 의심덩어리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대승의 정신으로 좌불 조성을 둘러싼 문제를 여법하게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건강한 수행 풍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달라이라마 방한 끝내 무산

"하얀 꽃 피면 하얀 감자 캐보나 마나 하얀 감자/자주 꽃 피면 자주 감자 캐보나 마나 자주 감자." 꽃의 색깔과 모양만 보아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 들어 있는 감자의 색깔을 알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과 진리를 간명하게 읊은 노랫말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불교의 덕높은 스님이며 망명정부의 수반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세계 시민들이 그를 초청하고, 초청이 있는 한 흔쾌히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어 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워지기를 희망하는 나라에서, 그를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슬픔만큼 아픔으로 다가온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국민만이 달라이라마를 만날 수 없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로는 중국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남북의 분단 상황을 타개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정부의 외교정책이 달라이 라마의 평화 메신저로서의 상징성을 부정하고 정치지도자만으로 바라보는 중국정부의 반응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정부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이웃나라인 한국의 이익과 정서를 왜곡시키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셋째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주체에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작용했다고 본다.

방한추진위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는 방한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위에 지적한 세 가지 문제는 불교계와 우리 정부의 짐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언젠가는 달라이 라마가 한국 땅을 밟을 것이니까. 위의 원인을 검토하고 관련 당사자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 유일 분단국의 슬픔같은 아픔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난문화재 은닉도 처벌"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공소시효 '발견시점' 연장 적용도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존대책으로 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불법취득 문화재의 유통방지를 위해 도난문화재의 은닉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문화재청은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22회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도난 시점'부터 적용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공소시효(3년에서 7년) 조항을 '발견시점'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하여 두었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 문화재를 판매하는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조차 어려운 법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절취 행위와 은닉 행위를 분리해 공소시효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즉 '은닉행위는 그 이전의 손상·절취 취득 행위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행위로 처벌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그 동안 형법상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별개의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발견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자는 것.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은닉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발견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난을 사유로 문화재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 동산문화재) 사범의 처벌규정도 7월 1일부터 '징역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김정숙 휴양소에서 열린 환송식. 남북의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남북 다각교류 활성화 하라"

· 6·15 한 돌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성황

불교 등 7개 종교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연대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15일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호텔 앞에서 토론회를 열고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등을 다짐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또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동포 대표단 700여명의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또 △6.15 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공동 강령이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 연합을 적극 실현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 △6.15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과 북 해외동포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보수우익들의 허황한 망상을 부셔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남쪽에서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과 강만길 상지대 총장 등 25명, 북쪽에선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과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223명, 해외 동포단체 대표 20여명이 참가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회장 법타스님,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장적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도각스님,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스님, 진각종 복지재단 사회복지국장 지현정사 등 26명이 참가했다. 조선불교도연맹에서는 박태화 위원장과 황병준 부위원장, 심상진 서기장 등 6명이 대표로 나왔다.

금강산=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2003년 재추진

준비위 올해 초청 무산

달라이라마 방한이 2003년 다시 추진된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7월 16일로 예정됐던 달라이 라마 방한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2003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정웅기 국장은 "다람살라와 정부가 협의하여 달라이 라마 방한일정을 잡았음에도 비자발급이 3번이나 불허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국정부의 몰지각한 행위이다"며 "김대중 정권에서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3일 전화통지를 통해 "올해 겨울(11~2월) 방한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달라이라마 방한시기에 이한동 총리의 방중 일정이 잡혀있고, 중국정부에 방한문제를 외교적으로 통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티베트 망명정부에 전달하고 2003년 재추진키로 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위는 40명규모의 대표단을 구성,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티베트 라닥과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하여 장기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태고종 법계고시 27~28일 시행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의 위계질서와 승가상 확립 차원에서 제8차 법계고시를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치르기로 했다.

법계고시는 5급 대선부터 4급 중덕, 3급 대덕, 2급 종덕, 1급 종사에 이르기까지 5개 법계로 나누어 치른다. 시험 방법은 대선과 중덕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대덕과 종덕은 논문과 면접으로, 종사는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추대하게 된다.

각 법계별 응시자격은, 대선은 연령 25세 이상 법랍 5세 이상으로 종단 입적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덕은 연령 30세 이상 법랍 10세 이상으로 대선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대덕은 연령 35세 이상 법랍 15세 이상으로 중덕 품수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종덕은 연령 40세 이상 법랍 20세 이상으로 대덕품수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그리고 종사는 연령 50세 이상 법랍 30세 이상으로 종덕품수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서장' 한글교재 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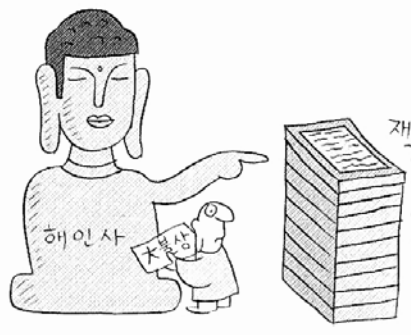
조계종 사용후 사집확대

조계종 교육원은 20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3차 검인정 교재 편찬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집교재 중 〈서장〉에 한해 한글 교재를 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인정 교재 편찬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한문 교육만으로는 수업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서장〉 한글 교재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다른 사집교재에도 적용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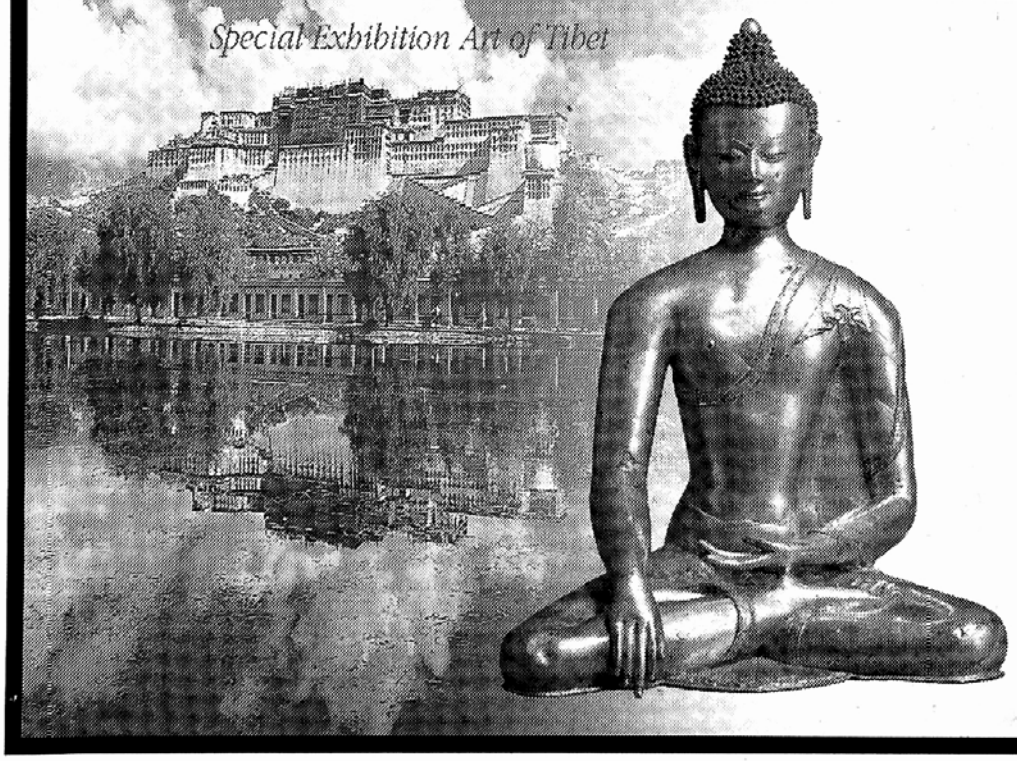
현대만평 박 구 원



잘 수렴해서…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특별전 개최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순박한 삶과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티베트미술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막일시 : 2001년 6월 25일(음 5. 5) 월요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 2001년 6월 25일~9월 17일(3개월간)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전화 : 055) 382-1001, 384-0010

특별행사로 티베트스님들의 만다라 modelling 시연이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시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하는 사찰단체에 한하여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http://www.tongdomuseum.or.kr

■ 6월 25일(음 5. 5) 오전 9시 30분에는 박물관 삼층석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법회가 있습니다.

목어

생명 패러다임과 21세기



종전의 분야별로 좁게 세분화된 사회역사 사상 등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물질의 입자를 비분할 단위로 생각한 근대과학의 요소 환원주의도 극복되어 고립적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불교철학이 현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카오스와 불교사상은 한결같이 모든 대상을 변화(諸行無常)의 기반에서 상호작용(연기) 되먹임(업), 프랙탈(一卽多 多卽一)의 입장으로 현실적인 관찰(如實知見)한다. 철학, 과학적인 진리가 절대가 아닌,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가설로 인식됨으로써 "독화살을 맞고 신음하는 중생에 주목하는 '구사론(俱舍論)'의 지혜가 요청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1950년 20세기 최고의 지성 B.러셀은 20세기 말까지의 인류의 앞날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1)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전멸, (2)지구 인구가 격감하고 야만의 상태에 되돌아감, (3)모든 전쟁무기를 독점하는 단일정부에 의한 세계통일 등 3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망이 제기된 무렵은 미·소 두 나라 사이가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제조 경쟁이 한창인 때였고, (1)과 (2)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핵전쟁이 발생한 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3)의 내용은 인류가 성공적으로 핵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정부의 등장을 예상한 내용이다.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미국이 세계 정부를 주도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UN인권위원회와 UN마약억제위원회 회원국에서 탈락되었다. 미국은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국제적으로 채택한 교토선언을 무시해 세계를 실망시켰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과 특히 급속한 정보, 그리고 경제의 국제화는 승자인 '가진 나라'와 패자인 '가난한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약자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시기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 1994년 10월15일 창간 |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삽 | 대표전화 02-737-8881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지구의 벗' 나바로 의장 — 환경 대담 —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

"모든 것이 생명, 지구는 생명체 입니다"



◇도법 스님의 '한 몸 한 생명론'은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나바로 의장의 '가이아 이론'과 다름이 없었다.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인류는 수만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도 아직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지식과 과학, 문명과 물질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도 전쟁과 굶주림은 계속되고 지구는 썩어가고 있다. 우리를 이끌었던 세계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종말이 멀지 않은 듯한 이 시대에 자연과 인간을 두루두루 잘 살게 할 수 있는 세계관은 없을까.

남원의 천년고찰 실상사에서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을 세계 3대 국제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Ricardo Nabaro, 53)가 17일 만났다. 엘살바도르 생태협회(CESTA) 의장이자 세계 68개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지구의 벗 대표인 나바로 의장은 1995년 골드만 상을 탄 환경운동가로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정부예산감시 활동으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두 환경 실천가의 대담은 지구환경 보호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식 고양과 역할 증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나바로 의장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한국의 스님 말없는 환경운동가"

나바로 의장=모든 환경운동가들이 그렇듯이 평소에 동양사상, 특히 불교의 생명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1,300여년이나 된 한국의 고찰 실상사로 바로 달려와보니,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스님들의 모습이 '말없는 환경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도법 스님=사람들은 흔히 평화와 자유, 공존과 융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패거리' 논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국가는 국가끼리, 민족은 민족끼리 대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나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바로 의장= 인간이냐, 자연이냐?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까요? 성경에, 하느님이 인간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한 뒤, 생명이 어우러진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인간이 생명체를 죽이고 평화를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도법스님=사람 중심의 사고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뿌리 곧 정체성은 너에게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와 그리움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체성은 자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의지처인 자연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원효의 무애자재(無碍自在)는 존재의 질서를 인정한 실천형태의 하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생명체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자신감과 여유를 가진 삶의 방식입니다.

나바로 의장=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Everything is Life). 지하에서 석유를 뽑아 쓸 때 대기가 오염되듯이 환경문제는 모든 것이 자연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사과 껍질처럼 얇은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킨다면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도법스님= 그런 가치관은 동양에서는 '달관(達觀)'의 정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생명이 어우러진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인간이 생명체를 죽이고 평화를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도법 스님

"우리는 한몸 한생명 깨달음 진리 상으면 삶의 변화 가져와"

나바로 의장= 삶에 대한 체험과 포기가 아닌 있는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재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이 세계관을 뒤틀리게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 환경문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나바로 의장= 자기 스스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연과의 공존도 불가능하겠지요. 모순과 투쟁은 자기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정의한 가이아 이론(Gaia theory, 1978년 영국의 과학자 J. 러브록이 주창)에 따르면 지구는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도법스님= 가이아이론은 '만물에 불성이 있다'는 불교의 생명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사상을 예로 들더라도, 내 몸이 아프면 지구 전체가 아픕니다.

나바로 의장= 가이아 이론이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자기 조절 능력을 강조하듯이 인간을 포함하는 지구 생물권이 바로 지구 환경을 조절하는 통제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도법스님= 생명 본연의 자리엔 탐욕을 부리고 집착하며 나아가 증오하고 원한심을 가져야 할 그 무엇도 본래부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생명임을 깨달으면 개개인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와 우주가 나눔과 균형의 조화를 찾게 됩니다. 그 깨달은 바를 진리로 삼아야 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금강산 통일토론회 참가기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통일 염원 金剛松처럼 자라나길"



법기보살의 주석처인 천하의 명산 금강산. 금강산에 깃든 신령한 정기 때문일까, 흩어진 남북 겨레가 다시 금강산에서 모여 화해의 한마당을 이루니 '타는 목마름'의 대지에 단비가 뿌리기 시작한다. 이렇듯 겨레가 화합하면 하늘도 감로(甘露)를 내려 화답하는 것을…. 몽매의 겨레가 억지를 부려 기약없는 분열고의 나날을 지속하는 것이리라.

6·15 공동선언 1돌을 맞아 어렵게 성사된 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는 발길은 무거웠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국토는 척박해지고, 풀리지 않는 남북 대화와 노조들의 파업으로 민심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 시간의 실랑이 끝에 통일연대 식구들 6명이 승선하지 못한 채 쾌속선 설봉호는 14일 오후 늦게서야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다.

분단 이후 가장 많은 7백여명의 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미사여구뿐인 통일대론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는 남북 모두가 그래도 6·15 공동선언을 실천 이행할 의지가 있고, 통일을 열망하는 염원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6월 15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된 '금강산 려관' 앞마당은 멀리 집선봉과 장군봉, 비로봉이 병풍처럼 늘어서서 묵묵히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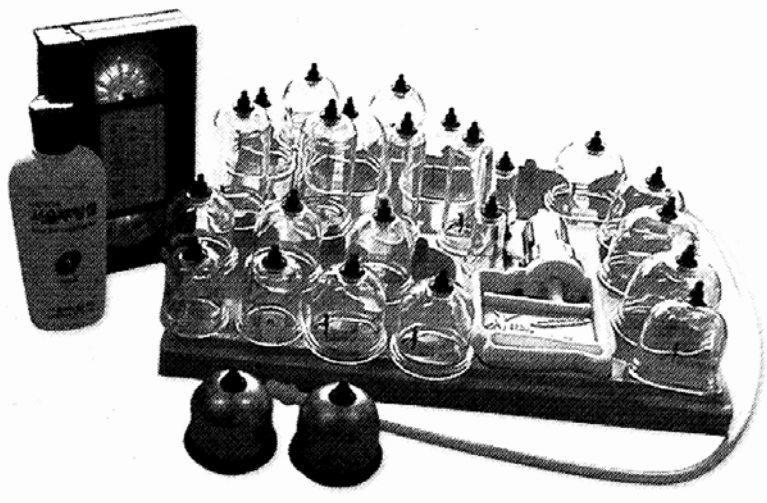
아리랑을 배경 음악으로 한 한반도의 형태가 선명한 단일기를 게양할 때, 여러 번 북녘 땅을 오고간 경험임에도 콧날이 시큰하였다. 문제는 행사 내내 자꾸 눈길이 가는 남쪽 허공의 짓다만 10여 층 짜리의 건축물이었다. 일본인 사업가가 10년 전에 짓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버리고 간 것이라는데, 저 흉물스런 건물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 겨레들이 소리높여 외치는 '외세'의 상징물이 아닌가.

토론회와 연회, 그리고 공연보다도 이틀날 참가자 모두가 함께 한 구룡연 산행은 실로 그 어떤 식순보다도 효과가 높은 민족 친화의 프로그램이었다.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서로 손잡아 주고 목란각 계곡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풍경은 왜 우리가 분단되어 살아야 하는지 근본된 의문을 되새기게 하는 풍경이었다. 함께 먹는 김치도 같고, 그 맛은 분단된 적이 없었거늘, 우리는 이제 다시 무엇을 통일해야 하고,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 달려온 먼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가.

이번 6·15 남북 공동행사는 북한이 48년도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연속성을 가진 두 번째 행사로 보는데 반해, 남측에서는 그저 6·15 첫돌 기념행사로 보는 등 그 시각 편차가 큰 가운데 진행되었다. 관광이 목적인지 행사 참여가 목적인지 본말이 전도된 남측 대표단들. 식탁에 끼어드는 쉬파리들도 대표단 소속이냐는 비아냥거림이 아니라도 행사의 의미에 비해 공허감이 큰 2박3일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것이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통일의 노정을 거듭하여 쾌속선을 타고 달려가야 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뿌려진 통일의 염원은 모진 풍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허리 붉은 금강산 적송(赤松)들처럼 꿋꿋하게 자라날 것을.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일주문



무의탁노인돕기 ARS 개통

성운 인덕원 이사장은 무의탁노인돕기 ARS 모금전화를 개통했다. 한 통화에 2,000원. 전화번호는 (02)700-0747.



영암 스님 14주기 추모재

원혜 봉은사 주지는 27일 오전 11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영암스님 열반 14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6월 다보법회서 법문

진월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는 27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6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불교자원봉사단 발족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23일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제13회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중동중·고 총동문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서울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중동중,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시설 확충방안 강연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6일 영암도기문화센터에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별 주역원전 강좌

김석진 동방문화진흥회장은 7월 3일부터 흥사단 3층 강당 및 동방문화진흥회 강의실에서 고별 주역원전강좌를 개강한다.



'불교와 자연보호' 강연

이양길 직지사연수원장은 15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동회 임원 3백 명에게 '불교와 자연보호'를 주제로 강연했다.



심리상담연구소 개원

방기연 불교상담개발원장은 30일 종로구 사간동 126-6번지에 '그래! 심리상담연구소'를 개원한다. (02)722-2757

청곡사 성진 스님 원적

포운당(包雲堂) 성진(性眞) 대화상이 6월 17일 오후 10시 10분 진주 청곡사에서 세수 59, 법랍 43세로 원적에 들었다. (054)335-3318



교불련 정대스님 초청 조찬회

연기영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정대 큰스님 초청 조찬법회'를 봉행했다. 교불련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조찬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새천년민주당 김기재 최고위원,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를 비롯 22명 교수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대스님은 법문을 통해 "심오한 불교적 진리를 생활 속으로 이끌어내어 종교적 가치를 발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조계종 3교구 본사 신흥사는 19일 산중총회에서 마근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마근스님은 76년 부산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하고 지난 92년 낙산사 주지, 95년 백담사 주지를 지냈으며, 지난 1월부터 신흥사 부주지 소임을 맡아 왔다.

축구 국가대표 안효연 동국대에 2천만원 기탁



안효연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는 8일 동국대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송석구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안 선수는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항상 다짐했다"며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선수는 올 2월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후 일본의 교토퍼플상가팀에 입단,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점술 넘어 변화의 철학 제시"

EBS '주역과 21세기' 강의 성태용 교수



"〈주역〉을 단지 점치는 책으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EBS 고전특강 프로그램인 '주역과 21세기'의 강사로 초빙된 성태용 교수(건국대, 본지 논설위원). 성 교수는 "〈주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주역〉을 점책으로 폄하는 세태를 바로 잡는 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7월 2일부터 3개월간 진행할 〈주역〉의 강좌의 방향을 설명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주역〉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정신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고전이자 대중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온 책이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 보니, 〈주역〉의 독자 대부분이 '변화를 읽어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길흉화복만을 점치기 위해 괘(卦)를 푸는 데에만 집착했다. EBS 역시 〈주역〉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철학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전특강 시리즈에 〈주역〉을 올리지 못했다.

성 교수는 "3개월간의 강의로 〈주역〉의 모든 것을 펴낼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에게 그 본질을 보는 계기를 만든다면 성공적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의 '주역과 21세기'는 7월 2일 오후 10시 40분부터 EBS에서 첫방송된다.

오종욱 기자

"도시인에 정법 전달"

미타불교대 설립 대명 스님



"도시인의 일상에 찾아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교양대학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13일 서울 방학동에 미타불교대학을 설립한 대명스님(동두천 불면암 주지)은 "미타불교대학은 도시민에게 불교의 정법을 가르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서울 방학동에 30여 평 규모로 문을 연 미타불교대학에는 현재 기초교리, 불교입문 등을 배우는 '기초반'과 〈금강경〉, 〈반야심경〉, 〈아함경〉, 〈법화경〉 등을 강독하는 '고급반'이 개설돼 60여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고 있다. 대명스님은 "현재 수강생이나, 개설 과목 수는 부족하지만,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시작으로 강북지역 포교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교양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행〉의 저자 현각스님 등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강좌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02)955-6411 오종욱 기자



日 이시카리 라이온스클럽 기탁성금

본사 故 이수현 씨 부친에 전달

"국내외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동경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故 이수현군의 아버지 이성대 씨(부산 이현길세무회계사무소 실장·사진 오른쪽)는 22일 본사를 방문, 일본의 이시카리 라이온스클럽이 본사에 기탁한 이수현돕기 성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수현이를 일찍 보낸 슬픔이 크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위로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수현이의 죽음이 계기가 돼 한일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명관 스님 다비식을 마치고…

5월 30일 세수 50, 법랍 31세로 명관스님이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하늘 아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없는 그 이름. 생전시에는 종단 발전에도 앞장서고 정의를 걸며 문도회 발전에도 힘을 아끼지 않은 스님이 오랜 투병 끝에 마침내 세연을 마쳤는데 짧디짧은 그 생애가 못내 아쉽습니다. 입적하기 전날 문장 종산스님이 병문안 차 들르자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하며 병상에 누워있던 것을 못내 죄송해 하던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평소 문도 어른 스님들을 존경하였고 후학들을 잘 건사하고 병들어 세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도회 걱정에 여념이 없었던 명관스님, 스님의 열반을 당하자 한 스승 아래 사형사제는 몇 겁 천생 인연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월 1일 문장 종산스님과 문도회 스님들, 화엄사 주지스님과 소임자스님들과 화엄승가대학 학인 등 3백여명이 모여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잘 치렀습니다. 스님과 가까웠던 도반들과 상좌 성각스님이 습골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남기신 유지가 항상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화엄사 도량에 재가 된 스님의 육신을 뿌렸습니다.

명관스님, 허전한 마음 어찌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태어나 성불에의 원력을 펴고 남김없이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엄문도회장 종국 합장



상월원각 대조사 27주기 열반대재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 27주기 열반대재가 18일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은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추도사를 통해 상생의 길을 강조했다.



진각종 제1회 울릉 문화축제

진각종은 20일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 스승과 정규화 군의회 의장 등 주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울릉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실내악단 오느름의 국악공연으로 화려하게 개막된 축제는 국악인 최진숙씨와 송포 사물놀이패, LMB싱어즈가 찬불가와 국악 등을 연주·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주 불회사 대양루 낙성법회

나주 불회사(주지 정연)는 16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루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서옹스님은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중흥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불회사 대양루는 80평의 2층 목조건물로, 종무소와 불자들의 교육 및 수행공간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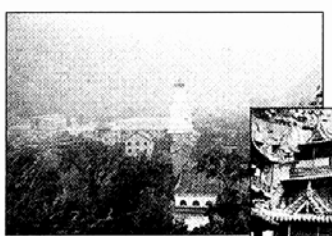
대구지역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

대구광역시신도회는 16~17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9교구 사찰신도회 및 대구지역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후원을 받아 중앙신도회 및 동화사신도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지역 사찰, 신도회, 신행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성산항공여행사 개업16주년기념

중국 오대산. 화엄사. 운강석굴 성지순례 5일

■순례 경비 : 69만원
■순례 기간 : 2001. 7월 30일 ~ 2001. 8월 3일(5일간)
■신청 기간 : 2001. 7월 15일까지


▶ 오대산 전경


현공사 ▶

문수보살께서 현신 하신 청량산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화엄사,현공사까지 직항편으로 알차게 모십니다.


운강석굴 ▲

삼보 귀의하옵고.
10여 년 전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감동이 아직도 가슴 벅차게 남아있습니다.
첫 성지순례를 모셨던 그 정신으로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덕 높으신 스님과 신심 있는 불자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이규술 합장 -

■성지 순례 일정

1일 (7/30)	인천 / 태원(1박)
2일 (7/31)	태원 / 진사, 쌍탑사 - 오대산(1박) / 불광사, 남선사
3일 (8/1)	현공사, 대동(1박) / 운강석굴, 상,하 화엄사, 구룡벽
4일 (8/2)	오대산(1박), 남산사, 현통사, 탑원사, 라후사, 보살정(대문수사), 남대
5일 (8/3)	오대산 / 용천사, 금각사 태원 / 산서성박물관 - 인천(21:00) - 전 일정 호텔투숙 -

포함사항 항공, 호텔, 입장료, 식사, 중국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 불 포 함 : 인천 공항세
· 구 비 서 류 : 여권/자택주소/전화번호
· 여권없는분 :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본 1매, 여권인지대 45,000

협 찬 : 중국 산서성여유국
후 원 : 오대산 상원사,무주안국사,해남 대둔사 영추사,본원정사,심곡사,관음정사,영산법화사

문의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 02) 720-0111
담당 : 이규술 팀장 011-274-0355
김승현 과장 011-440-2580
E-mail : tour Love@kornet.net

"티베트 현지의 학생불자들이 모시면 가장 싸고 편하게 다녀오십니다"

티베트성지 순례

라싸, 시가체, 장체, 티베트불교 15대성지 순례

포탈라궁, 순례의 길, 죠캉, 노부링카, 세라사, 쩌방사, 간덴사, 타쉬룬포사, 천장터, 바이취사, 설산, 얌드록쵸, 팔각가, 신산, 장즈산성 등





참가비용 : 스님 165만원, 일반신도 175만원
• 출국세, 비자비 외 일체 경비 포함

출발날짜 : 7월 25일 수요일(7박 8일)

티베트 15대 불교 유적+네팔 불교 4대 유적
2개국 성지 순례(10박11일)

• 출발날짜 : 7월 14일(토), 8월 11일(토), 8월 25일(토)
• 참가비 : 195만원
고산병 예방을 위해 전원 4인승 산악용 지프 탑승

문의 : 02-722-8121

주최: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대학 한국학생불자회



◇17일 수원 용주사에서 열린 '제1회 경기지역불자회 합동수계법회' 모습.

3백여 불자 '연비 재발심'

경기불자회 첫 합동수계

"온 허공 법계에 계신 부처님을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17일 오전 10시 조계종 제 2교구 본사 용주사 효행교육관에서 수계를 청하는 불자들의 '청성(請聖)'이 울렸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

"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게 아쉬웠다"는 경기도청 불자회가 두 달여 동안 각 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제 1회 경기지역 불자회 합동 수계법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회에는 심한 가뭄으로 동참가 수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경기도청 공무원 불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화성, 의정부, 고양시를 비롯한 6개 시청 불자회, 세 기법우회, 경기도 경찰청 불자회, 경기도 약사 불자회 등 16개 기관 및 단체 소속 300여 불자들이 동참해 신심을 다잡았다.

이날 계사로 참석한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계를 받는 여러분들은 작은 실천이 가져다주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에서의 5계 실천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수계의식에서 300여 불자들은 참회진언과 연비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경기도청 불자회 이근홍 회장은 "경기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처음으로 모인 점이 뿌듯하다"며 "이번 합동 수계법회를 계기로 올해 안에 가칭 '경기도 불자 연합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종욱 기자

'불자회 창립' 전국이 뜨겁다

전남경찰청 등 13개 경불회 탄생
대구 경전읽기모임 '수트라' 활동
부산 사진동호인 '서운암 들꽃회'
철도역마다 법우회 발족 서둘러

경주지역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의 요람이 될 경주시청불자회가 최근 창립〈본지 323호 5면 참조〉된 데 이어 광주, 부산, 서울,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직장, 직능 불자회들이 속속 창립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전남지방경찰청과 산하 12개 경찰서에서 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가 일시에 창립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서운암 들꽃 사진동우회', 대구에서는 경전 읽기 모임인 '수트라' 등이 발족했다. 또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도 경북 영주차량, 대전차량 서울 영등포관리역에서 불교 포교의 첨병이 될 법우회(가칭)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 13개 경불회가 창립된 광주의 경우, 불교 포교의 사각지대라 일컬어지는 곳에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들 경불회가 전남 지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행 활동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불교회 창립법회'가 열린 전남도청 회의실에는 경승단장 상운스님, 경승실장 천운스님 등을 비롯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주동부서, 광주서부서, 광주남부서, 광주북부서, 광산서, 광양서, 해남서, 보성서, 강진서, 담양서, 곡성서 및 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500여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13개 경불회는 전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고아원,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계 연합수련법회나 고승초청법회 등을 통해 불자 경찰의 신심을 다져나갈 것을 서원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초대 회장에 추대된 천승범 총경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남지방청 및 산하 관서의 경불회 창립을 유도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불자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3일 발족한 '서운암 들꽃 사진동우회'는 사진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모여 만든 불자회다. "통도사 서운암 스님들이 조성해 놓은 야생화 단지에 매월 한차례 모여 법회로 신심도 다지고 서운암의 아름다움을 앵글에 담아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했다"는 김석태 초대 회장은 "영, 호남 불자 40여 명으로 시작하지만,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행단체로 키우겠다"는 서원을 세워놓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불자들도 최근 경전읽기 모임인 '수트라'를 창립했다. 한글대장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자원봉사와 같은 신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현장에서 실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수트라는 현재 관음사 2층 도서관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불협는 경북 영주차량, 대전차량, 서울 영등포관리역 등 불자회가 없는 역사에 법우회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철불협은 23~24일 송광사에서 철불협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연내 창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조직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조직을 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철불협에 따르면 현재 경북 영주차량과 대전차량의 법우회는 창립 단계에 이르렀고, 영등포관리역에서의 법우회 창립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전남지방경찰청 및 산하 12개 경찰서 불교회는 16일 전남 도청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전남지역 포교의 돛을 올렸다. 사진=주용직 광주지사장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혈소판 환자에 후원품

광주생명나눔, 전남대병원 방문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지도위원 석장)가 혈액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돕기에 나섰다. 광주지역본부는 13일 전남대학병원을 방문해 마스크 등 1천500여 점의 후원품을 전달했다(사진). 환우의 치료비 및 혈소판 헌혈을 지원하는 광주지역본부의 '희망나눔'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된 후원품은 지난 5월 광주지역 5개 사찰에서 '자비의 힘으로 새 생명을' 이라는 주제로 전개된 캠페인에서 모금된 100여 만 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후원품 전달식에서 석장스님은 "'희망나눔'의 회원들은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를 돕는 자비행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교불련 직지사 하계수련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27일부터 4일간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불련 하계수련대회는 아침예불, 발우공양, 도량청소, 좌선, 108참회 및 철야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20-6618

게시판

알림

▲청소년 영화 상영회=양정청소년수련관은 30일 오후 3시 수련관 강단에서 '청소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영되는 영화는 '번지점프를 하다'이며, 이 프로그램은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051)868-0750

▲강화 갯벌 가족체험여행=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2일 생태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갯벌체험 가족여행'을 마련한다. 강화도 갯벌과 숲을 둘러보며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이번 답사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0,000원. (02)817-8052

▲사찰생태문화기행=맑고향기릅게는 7~8일 사찰생태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오후 2시 양재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기행은 전남 화순 운주사를 방문,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찰을 보자는 의도로 마련됐다. (02)3672-5945

강좌

▲한식, 일식조리사 교육=낙동복지관은 한식조리사 실기반 및 일식조리사 특강반 교실을 개설했다. 한식조리사 실기반은 7월 23일부터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 2시에, 일식조리사 특강반은 7월 26일부터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개강된다. (02)335-7683

모집

▲경전연구반 수강생=능인불교대학은 경전연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낮반은 7월 4일, 저녁반은 7월 5일 시작해 12월까지 계속될 경전 연구반의 개설 과목은 〈유마경〉, 〈금강경〉, 〈화엄경〉이다. 수강료는 4만원. (02)577-5800

▲탁아방 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가정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탁아방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은 24개월~만 6세 유아 및 아동들의 놀이지도 및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으로 주1회 실시된다. (02)577-5800

▲교양 프로그램 도우미=자양사회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될 아동 및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 도우미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결실아동의 여름나기 프로그램인 푸른교실를 비롯해 여름캠프, EQ향상, 중 고교생 자원봉사 등이 마련됐다. (02)458-1664

▲노약자 단기보호=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단기간 동안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보호 기간은 년간 90일 이내. (031)455-0551

▲아동독서동아리 책동이 회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독서동아리 '책동이' 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3년 아동으로, 매주 수, 토요일 두 차례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 독서지도를 받는다. 30일까지 선착순 모집. (02)852-0525

▲장애인 자원봉사자=승가원은 장애인들에게 찬볼가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3)762-9870

이전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사무실 이전=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금강선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445-8484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우리 모임에선



유불동 인환스님 초청법회

유니텔 불교동우회 서울경기지역법우회는 20일 경복궁 옆 법련사 3층에서 인환스님(동국대 교수)을 초빙해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인환스님은 법문을 통해 연합수계법회를 앞둔 회원들에게 계율과 수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전반야회 청계산 순례

한전 본사 반야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청계사에서 6월 정기순례법회를 를 개최했다. 저녁예불로 시작된 이번 법회에서 반야회 회원들은 철야정진, 도량석 등을 하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토론의 장을 마련해 반야회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단불교련 옷·책 기증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수원시 장안구 '행복한 집'을 방문해 50여 만 원 상당의 옷과 책 등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4월 21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금융단불교연합회 합동법회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구매했다.

철불협 23~24일 대표회의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송광사에서 철불협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9월 철도 불자 연합법회 봉행에 관한 건', '자비의 말씀 게시관 전국 주요 역사에 설치에 관한 건', '단체등록 준비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서울-경기 나우누리 바자

나우누리 서울경기지역 법우회는 23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바지회 및 6월 정기법회를 실시했다. 이날 서울, 경기지역 나우누리 회원들은 108배, 참회 정진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올해 초부터 모아 온 생활용품, 학용품 등을 전시 판매했다.

풍경소리 제52호 펴내

좋은 벗 풍경소리는 〈풍경소리〉 제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찬불동요 모음집 CD 출시', '불교음악 이야기',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등의 글과 여름을 주제로 한 '이달의 찬불가' 등이 개제됐다. (02)717-6985

현오 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 체험과 위빠사나 명상수련 안내

〈미안마 72일〉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의 저자 현오스님이 다년간의 수행과 실습 끝에 개발한 수련 프로그램을 알립니다.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돌이켜 보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일깨워 각자가 처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참하셔서 많은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 도 : 현오스님 / 차차석(철학박사, 불교학 전공) / 임승택(철학박사, 위빠사나 전공)
일 시 : 2001년 7월6일~8일 (2박3일)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피라밋 명상원(033-732-4381)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회 비 : 10만원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근)
접수처 : 02)419-1253, 02)571-5413 (6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함)

주최: 大智전생연구회

첫째날 세부일정
오후 2:00 - 집합, 인원 점검
2:00 - 일정소개 및 인사(현오스님)
3:00 - 요가
4:00 - 휴식 및 간담
4:30 - 불교 심리학①(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자유시간
8:00 - 위빠사나 강의(임승택)
9:00 - 최면 소개와 자기최면(현오스님)
10:00 - 취침

둘째날 세부일정
오전 5:00 - 요가 및 자비관
6:00 - 아침식사
8:00 - 위빠사나(임승택)
10:00 - 위빠사나 점검 및 간담
오후12:00 - 점심
2:00 - 위빠싸나(임승택)
4:00 - 불교 심리학②(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전생 최면 실습(현오스님)
9:00 - 전생 최면 점검 및 간담
10:00 - 전생 최면 각자 실습

수련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 승용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문막 IC에서 간현유원지 방향→
간현유원지로 들어가지 말고→
좌측 다리를 건너 양평 · 안창 방면으로
■ 대중교통
기차편 : 청량리역에서 중앙선(무궁화)
→ 양동역 하차→ 택시(대당 7천원)
(통일호는 판대역 하차, 도보 10분)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에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敎)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참조되고,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종교의 경험 안에서 '나' 또한 용해된다는 것을, 에고 또한 무(無)로 용해된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었는가?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의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참조된다는 것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이것이 인간이 그토록 성을 갈망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그 갈망은, 한 여자의 몸을 향한 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향한,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두 권의 책과 함께 CD가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부록 :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Tantra: A Partnership in Meditation) CD



지시문대로 따라 하는 이 명상법은, 성(性) 그리고 관계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이며, 연인들을 교감(交感)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고대의 시람의 과학(tantra)'에 근거해서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샤, 의학 박사 디얀 요기, 와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고, 한국어로 더빙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고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여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무르익은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해 준다(65분).

■ 세트 가격 18,000원

新 탄트라
성에서 초의식까지
오쇼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www.goldenflower.co.kr /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도서출판 황금꽃

'북한 어린이 돕기' 3년째 거리모금

신행현장

정토청년회의 토요일 오후

"먹을 것과 고통, 사랑을 나눌 때, 희망과 생명이 살아납니다. 북녘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16일 오후 3시 서울의 대표적 상가 밀집지역인 명동거리.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벌이는 정토청년회(회장 박남규) 불자들이 모금 통을 들고 분주히 움직인다.

가로수에 걸려 있는 걸개 그림 아래서 문화운동가인 한나눔씨가 피리를 불고, 청년회원인 정상오씨가 마이크를 들고 북한어린이 돕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박남규 회장을 비롯하여 박혜연, 박용운 회원과 지원나온 청소년 불자학생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북한 어린이 돕기 팸플릿을 나눠주며 북한의 현황을 이해시키기 바쁘다.

"힘들지요. 행인들과 같이 걸으면서 1분의 시간 안에 말을 해야 해요. 찰거머리처럼 하지 않으면 요즘같이 북한 돕기 운동이 시들한 분위기에서는 모금을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모금통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정상오 회원(시종건축 직원)은 "처음에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북녘동포는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의 핏줄이다. 통일된 땅에서 우리 민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정토청년회가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에 나선 것은 98년 6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다. 당시에는 식량부족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대량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급한 마음에 모금통을 만들어 명동에 나온 청년 불자들은 6개월간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시작한 모금활동이 6개월마다 연장되면서 16일로 3년을 맞은 것이다.

'민족아픔 나누자' 명동거리서 호소

북한실상 팸플릿 40만여장 배포



◇정토청년회원들이 1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체 회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정토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 3~5명이 번갈아가며 모금운동을 진행한다.

정토청년회원들이 3년간 모금한 금액은 현재까지 총 6천3백60만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교계 국제구호단체인 한국JTS를 통해 북한의 라진 선봉지역 탁아소 어린이들의 영양식을 제공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또 일부는 (사)좋은 벗들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온 식량난민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청년회원들은 또 모금이 끝나면 서초동 정토법당으로 가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일을 기원하며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정토청년회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팸플릿 내용도 15회나 새로 고쳐졌다.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배포된 북한 실상을 알리는 팸플릿만도 40만장에 이른다.

정토청년회 회장인 박남규씨는 "3년간 모금활동을 하며 저절로 북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을 돕는 것 자체가 민족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며 "사회적 실천을 통한 진보를 이뤄나갈 때 불교발전은 저절로 된다"고 밝혔다.

정토청년회는 앞으로 인사동과 강남터미널, 조계사 앞등 7~8개 지역에서 통일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부 청소년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살생'이 취미라고?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살생할 일이 없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 같이 생각한다면 도둑질할 일이 없다.

생명은 다 같다. 물고기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똑같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재미삼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신상카드의 취미란에 '살생'(낚시, 사냥은 살생이다)이라고 적는 이도 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한다. 차원의 높낮이만 다를 뿐 생명이 겪는 아픔은 사람과 축생 · 미물이 다를 바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의 생명을 둘로 보지말라고 가르치셨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남 · 이웃은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생명있는 모든 것, 나아가서는 무정물까지 나와 상대되는 만유(萬有) 일체를 말한다. 그러기에 대자대비인 것이다.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은연중에라도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자기식의 관념 · 집착 ·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조건 붙은 사랑이다. 남녀의 사랑은 대체로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랑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비운 사랑, '나'를 비운 자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자비의 길이 '자기비움'에 있다고 하신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비움'을 실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무척 어렵다고 한다. 수억겁 쌓이고 쌓인 관념의 때가 그만큼 두껍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비움'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바로 생명사랑, 이웃사랑이다. 살생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천은 시작된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 보라.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따짐은 관념이다) 이웃에 대한 헌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 보라.

▩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흔들림없는 불자 많을때 칠흑같은 세상 밝아져요"



도영스님

김제 금산사 주지

'착하지 않은 법을 멀리 여의고 으뜸가는 이치에 바로 머물면 세상에서 으뜸가는 존경을 받나니 이것을 집착 없음이라 말한다. 하늘과 사람을 요익하게 하고 지혜의 눈을 뜨고 다툼 없애 두루 알아 현재에서 다 사무쳐볼 수 있으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이 말씀은 〈아함경〉 불보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게송입니다. 착하지 않은 법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가 하면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일이 곧 착하지 않은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좌정하여 고뇌하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기적인 사고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탐욕 · 집착 버리면 허공처럼 텅빈마음

는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착한 법이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으뜸가는 이치에 바로 머문다 함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보시와 자비복덕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허공처럼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청정하고 안락한 삶을 누림과 동시에 세상에서 으뜸가는 존경을 받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슴 깊이 고뇌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올곧은 마음의 결론을 얻을 때까지 명상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회향할 줄 알아야 하며 무소유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일깨워주고 계셨습니다. 수행자가 지닌 능력과 소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늘과 사람들을 널리 이익 되게 하고 눈 밝고 귀 맑은 사람으로 지혜의 눈을 얻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모두 소멸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진리를 사무쳐 알게 되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인이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바른 깨달음의 다짐과 성취입니다.

중생들은 업장에 가리어 칠흑같은 어둠의 세계를 목적도 없이 막연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세계를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께서는 미혹의 세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을 연민하시어 성불하시고도 중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마치 중생들처럼 생로병사의 근본적 고통을 겪으시며 출가하셨으며 6년간의 피나는 설산수행으로 무명을 떨치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함과 의심 등 근본번뇌가 깃든 중생놀음의 즐거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바로 부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중생들은 어김없이 육도 윤회의 길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유혹이 천길 지옥의 나락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다는 사실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주관이 뚜렷한 불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6월 28일 (목)

■창작무 카르마 공연=우바이무용단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창작무용 '카르마'를 공연한다. 카르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2001 우수레퍼토리로 선정된 작품이다. (051)816-2241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전=통도사성보박물관은 9월 17일까지 '하늘에 맞닿는 불교왕국 티베트'를 주제로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 (055)382-1001

6월 29일 (금)

■초안스님 열반 3주기 법회=오봉산 석굴암은 오전 10시 증창주 초안당 유성스님을 추모하는 초안스님 열반 3주기 법회를 봉행한다. (031)826-3573

■불학연구소 세미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오후 1시 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2-4921

■장례문화학회 학술발표회=장례문화학회는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묘시설 설치와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주제로 춘계학술발표회를 갖는다. (02)765-8111

6월 30일 (토)

■방송언론인 연수회=조계종 포교원은 7월 1일까지 법주사에서 언론인 불자를 대상으로 제2회 방송, 언론인 연수회를 개최한다. (02)737-7588

7월 1일 (일)

■석불선양회 순례법회=석불선양회는 제15차 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오전 7시 3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순례법회는 춘천 서상리 삼층석탑 참배와 육군 제7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위문으로 진행된다. (02)996-7945

■선무도 하계수련회=선무도 대금강문은 9월까지 골굴사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무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기간은 1주, 2주, 1개월 등으로 구분되며,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4)745-0246

■불교문화기행=불교신행연구원은 내소사와 개암사를 둘러보는 불교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이번 기행은 오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출발해 당일 오후 7시까지 계속된다. (02)582-6613

7월 3일 (화)

■해인사 수련법회=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는 7일까지 2001년도 2차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55)931-139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우리춤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1년 8월 4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동산미술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교과목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탑, 불상, 회화, 돈황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벳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행하고자 하는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화엄경 변상도

동산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춤학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 지도교수 및 내용

지도교수	이애주 교수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내 용	❶ 우리춤 기본 (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❷ 승무 기본 (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❸ 작법 기본 (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❹ 북과 장단기본 (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 (토) 오후 5시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02)732-1206



박태원 교수의 41

불교로 보는 인생

행복하게 하는 인연

행복하게도 나는 내 길을 진정 즐기며 걷고 있다. 비록 학문 역량이나 노력은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좋아서 걷고 나아갈수록 유익하니 실로 과분한 복이다. 인생의 초점, 삶의 지도리, 내 모든 노력이 허망하지 않게 생산적으로 수렴되는 삶의 테마를 나는 선명하게 지니고 있는 셈이다. 내 삶의 테마를 형성시켜준 모든 인연들이 그래서 너무도 고맙다.

철학의 길, 그것도 불교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길에 서리라는 생각은 대학 입학 때까지의 내 인생 계획에 흔적도 없었다. 어릴 적 중국으로 건너가 기연(奇緣) 끝에 황실의(皇室醫)로부터 한의학을 사사받고 젊은 나이에 중국 황실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친척 어른(외할머니의 오라버니)의 머리 속에 담긴 내용들이 고교시절 나에게는 신비 그 자체였다. 참선에 뜻을 두셨을 때에는 다리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몰두하셨던 분, 한 번도 한의학 서적이나 불경을 펴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면 모든 이론들을 술술 풀어내시던 그 천재성에 홀딱 반하여, 나를 살려준 그 분의 신비를 풀어보려 마음먹어 본 적이 있었다.

법조인을 꿈꾸기도 했다. 물론 화려해 보이는 법복의 권위와 사회적 대우가 이끌림의 더 큰 원천이었지만. 어떤 때는 소아과 의사가 제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의대 진학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법대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그런 대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대학 2학년, 내 삶의 테마는 실로 엉뚱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불문(佛門)의 인연은 그 때까지의 그럴듯한 인생 청사진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그 인연의 핵심 고리가 되어 주었던 어느 수좌와의 하룻밤 대화. 심오한 도리라는 인식 정도로 내 삶의 주변을 겉돌던 불교 언어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파닥거리며 삶의 근저로 파고들었다. 웬만해서는 잠을 거르는 적이 없던 내가 이틀인가 사흘인가를 날밤을 새웠다. 흥분이랄까 긴장이랄까, 그 어떤 고조된 분위기가 잠마저 쫓아버렸다. 그 때 뚜렷한 근거는 없었지만 선명한 직감이 나를 휘감았다. '아, 이제 진정한 나의 길을 만나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부터는 확 바뀌겠구나!'

그 직감은 맞았다. 안정된 경제 능력과 직결되지 않는 직업 형태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내가, 경제 행위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길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안정 지향적이던 평소의 내 태도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행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그 낯선 길로 성큼 성큼 내딛었다. 하면 할수록 재미나고 신나게 몰두할 수 있는 길, 내 자질이나 성향, 노력이 최고의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길, 마치 블랙홀마냥 나를 흡인해 가는 이 새로운 삶의 테마에 솔직하고도 과감하게 몸을 맡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했을 뿐인데, 예상외로 먹고사는 일이며 사회 관계가 그 길 위에서 풀려나갔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정 좋아서 몰두하며 즐길 수 있는 삶의 테마와 조우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필요한 것은 그 때 망설이지 않고 내면의 요구에 과감하게 응하는 일. 시대 유행이나 상식, 관행의 무게에 짓눌려 주춤거리다 보면, 행운은 스쳐 지나간다.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의 진정한 테마는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라. 그리고는 이모저모 재지 말고 용기 있게 그 길 위에 서라. 그러면 존재가 풍요로워지고 일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풀린다.

몰두하고 즐길수 있는 삶의 테마와 조우 누구에게나 기회온다

순수학문과 기초학문의 토대가 붕괴되는 굉음이 들리고 있다. 시장의 이름으로 근시안적 상품 가치만을 외쳐대는 시대 정신, 그 상품 진열대에 전시된 몇몇 인기 품목 주위에만 몰려드는 젊은 인재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빈천한 자화상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묵언-시간엄수-소임충실 미리 다짐

참불자의 길 여름 수련회 앞두고

여름 수련회가 휴가의 새로운 풍속도로 정착되면서 수적 증가는 물론 동참하는 계층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수련회 프로그램도 전통적인 수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련회에 참석했던 경험자들은 대부분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라고 말한다. 반면 준비나 이해 부족으로 수련회에서 일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세상 시름을 잊으려고 찾아온 초심자들의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 많다는 것이 사찰 측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수련회는 보통 3박4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발심과 깨달음의 장이다. 불교 이해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리의 씨앗을 심는 수행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수련회를 위해 마음가짐과 규칙, 주요 프로그램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측은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마다의 특성이나 일정을 살 살펴서 자신의 수행력이나 발원에 맞는 수련회에 참여해야 하고, 수련생들에게 산문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릴 줄 아는 마음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도의 길에서는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독선과 이기심 그리고 편견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지식 등은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다. 또한 일상의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다.

수련회는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예불과 참선 정진하는 만큼 지켜야할 청규가 있다. 그 대표적인 규칙이 묵언, 시간엄수, 소임 충실이다. 청정한 규칙은 절제와 자율의 힘을 길러 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수련회에 참석하면 이러한 규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일러주지만 미리 알아두면 짧은 기간동안 보다 충실한 수행을 할 수 있다.

대원사 현장 스님은 "현대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수련회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묵언과 차수하는 마음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기별 프로그램 선택 대중생활 예절 지키자

수련회에서는 대부분 발우공양을 하는데 이 때 밥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절제와 소욕지족을 배우고 이 공양이 내게 오기까지의 공덕에 감사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행할 때의 예절도 빼놓을 수 없다. 대중생활에 다소 예의가 어긋난 사람이 있어도 이를 나무라지 말고 그 나쁜 것을 감추어 주고 좋은 점을 나타내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중과 이야기할 때에 속세의 이야기보다는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 사람의 머리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부터 수련생활 규칙 및 시간계획, 프로그램, 강의 내용 등 수련회 운영에 관한 교재와 불교 상식, 사찰 소개, 사찰 예절 등 의식에 필요한 부분을 담은 수련교재를 제작 배포한다고 한다. 이런 교재를 읽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보다 뜻 깊은 수련회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수련법회 정보센터(02-7300-108)나 해당 사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철저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수련회에 참석한다면 여름 한철의 추억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에 지친 삶을 되돌아 보고 재충전하여 더 나은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수련회의 철저한 준비는 보람된 수행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사진은 송광사 여름수련회 모습.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⑲ 허사리에 대한 답서(1)

실상 알고보면 분별상이 바로 법

"이 일에는 인정(人情)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일어나 사용하는 곳은 모자람 없이 원만하여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첨저히 보지 못하고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소리와 색의 경계 속으로 도망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므로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법(法:진리)은 '무엇'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라는 조건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름과 한정은 모두 사람의 정식(情識:감각이나 감정이나 의식 등 소위 오온·십팔계의 경험세계)이 만드는 것이다. 법은 정식의 바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식을 넘어서 있다. 정식은 분별상(分別相)을 갖추고 있으나 법에는 분별상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부처와 중생도 없고, 돈오와 점수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나와 남도 없고, 진리와 거짓도 없고, 깨달음과 미혹도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람의 정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혜능 스님은 "법에는 돈점(頓漸)이 없으나 사람에게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법에는 어떤 분별상도 없으나, 한편 모든 분별상의 실상(實相)은 분별상이 아닌 법이다. 즉 법은 무상(無常)하게 생멸하는 분별상의 진실한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잘 살펴보면, 정식(情識) 위에 나타나는 분별상은 늘 생멸(生滅)의 연속적 과정에 있을 뿐, '무엇'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이 없다. 다만 명칭과 이미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으로서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상을 알고 보면 분별상이 바로 법이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그러므로 실상을 알고 보면, 정식의 분별상으로도 법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상을 모르고 분별상에만 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을 전하여도 분별상으로 받아들이니, 법은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와 틀린 견해, 바른 가르침과 그른 가르침을 파악해내는 안목이 없다. 모두가 동일한 분별상으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성인의 말씀도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한다.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별상의 실상을 깨달은 뒤에라야 비로소 분별상의 참된 재미를 알게 된다. 그 재미는 바로 법의 맛이다.

요컨대 공부는 모든 분별상 속에서 어떤 분별상도 없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나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분별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공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오묘하고 잘 들어맞는 논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어떤 포근한 안락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리 훅독한 고행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앉아서 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식(情識) 위에서의 분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런 것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오직 한 순간에 문득 실상을 깨닫는 것만이 공부에 진전을 가져온다. 모든 분별상의 실상을 깨닫고 보면 분별상 그대로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생활하면서 매 순간 순간 문득 문득 분별심을 떠나고 정식을 떠나서 세계를 바라보라. 세계는 한 순간의 머무름도 없이 허무하게 흘러가지만, 흐름 그 자체는 한결같이 살아 있음을 볼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삼라만상으로 물결치며 변해가는 세계의 변함 없는 바탕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것'은 어떤 '무엇'도 아니며 '누구'도 아니다. '그것'은 그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으나, 그 무엇보다도 명명백백한 것이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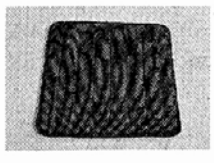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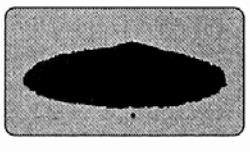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비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2001년 대원불교대학 하계수련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기 위한 대원불교대학 2001년도 하계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일 시 : 2001년 7월 6일(금) 16:00 - 8 (일) 15:00 (2박 3일)
2. 장 소 : 대원불교대학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문 의 : 02-773-9171
4. 참석대상 : 일반 재가 불자님
5. 교수진 : 혜거스님(본대학 학장),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6. 동참금 : 40,000원 (교재비 및 면티 포함)
7.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간편한 복장 및 침구, 목탁, 요령

2001년 하계 수련회 시간표

일자 \ 시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일(금)												등록 및 입실준비	입교식	저녁 공양		영화감상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토론의 시간 "장휘옥 교수"	만남의 시간	
7일(토)	기상·세면	아침 예불·108 참회	신행	아침 공양	특강 혜거스님 (120분)		특강 인도불교사 최봉수 교수 (120분)		점심 공양	의식실수 (삼보통청) 김범준 법사			특강 유식학 김사업 교수	저녁 공양		특강 불교문화 김범준 법사		불교의식실수 (시식) 일운 스님		취침	
8일(일)	기상·세면	아침 예불·108 참회	신행	아침 공양	특강 불교경전의 개설 허경구 교수		일요정기 법회		점심 공양	평가 및 회향	귀향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이렇게 들었다

자원활동가 구금

"누구든 인권 보호권리"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온갖 중생도 다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온갖 사물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진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마경>

최근 북한 공안요원들이 중국 내 조선족 교회를 습격,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탈북자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공안요원들은 북한 실상을 증언하고 있던 어린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중국 당국도 북한 공안요원들의 탈북자 체포에 적극 협조하면서 직접 체포한 탈북자를 북한에 넘겨주는 등 탈북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은 북한난민을 돕는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법륜스님은 지난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좋은 벗들 소속 자원활동가 4명 등 한국인 6명이 중국 지린성 국가안전청에 체포돼 50여 일간 불법 구금당한 채 '간첩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처님 시대에도 불평등은 존재했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당시의 신분계급 제도는 분명히 반인권적인 제도였다. 부처님은 신분적 억압에 신음하는 인도인들에게 평등을 선언하고 몸소 실천했다. 출신에 관계없이 교단에서는 누구나 평등했고, 인권을 보호받았다.

탈북 난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한 핏줄이다. 같은 동포라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은 무시(無始) 이래 생사 속에 있으면서 윤회를 계속해 온 터이므로, 일찍이 부모·형제·부부·권속·친구 등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던 중생이란 존재치 않는다"고 하셨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한명우 기자

"악성비구는 침묵으로 대처하라"

반론문

선각 스님
해인사 선원 열중

지난호(323호) 9면에 게재된 수경스님의 기고문 '자운·성철스님의 죽음을 곡한다'에 대해 해인사 선원 열중소임을 맡고 있는 선각스님이 22일 반론문을 보내왔다. 선각스님은 83년 해인사로 출가하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하였으며,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회상에서 참선공부를 하였다. <편집자>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말세에 악한 성품을 가진 비구가 나타나거든 침묵으로서 상대하지 말라"고 후학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래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종가(宗家)답게 묵빈대처해 왔다(실상사 방문건은 차후에 해명하겠다). 하지만 '자운·성철스님의 죽음을 곡한다'는 수경스님의 글은 그 불사의 '불가(不可)함'을 논하면서 상당한 오해와 함께 논리비약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자운스님 유지따라
해인불교 문화단지
마스터플랜 추진

첫째, 사자는 토끼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자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토끼새끼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사자가 낳은 사자새끼 가운데에는 사자다운 용맹한 기상을 가진 새끼가 있는가 하면 토끼같이 겁많은 성격을 가진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많이 낳다가 보면 흙덩이를 좇아가는 개같이 어리석은 우둔한 사자새끼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성향의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용맹한 어미사자를 토끼나 개라고 이야기한다면 되겠는가? 후학이 못나면 그 모든 것이 스승의 허물인가? 그런 식이라면 그 허물의 마지막은 부처님까지 올라가야 한다. 자운·성철 (영암스님 포함) 스님은 오늘 해인총림이 있게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해인사 대중에게 그분들은 조사(祖師)이다. 그런 큰 스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가? 허물이 있다면 현재 대중의 경책에 그칠 일이지 큰스님의 허물로 돌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덕숭문중인 수경스님은 수덕사 현재 대중의 허물로 경허·만공 스님을 이렇게 내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둘째, 자운스님은 이 불사를 발원하신 스님이다. 모시던 상좌에 의하면 70세 무렵까지도 "내가 십년만 젊어도 이 불사를 시작할텐데"라고 하는 바람을 버리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한 뜻을 받들어 1944년에 허덕사터에 지어진 초등학교를 89년에 옮기도록 하였으며 96년에는 '해인불교문화단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1차적으로 박물관을 짓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총림 임회 대중의 논의를 거쳤다. 회의 내용 기록과 자필 서명이 현재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부처님을 모시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왕 모시는 김에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크고 훌륭한 불상을 모시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를 꼭 속물주의, 물량주의로 볼 수 밖에 없는가? 또 그런 소리를 같은 종단의 승려로부터 이렇게까지 매도되어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

셋째, 장사경잠(長沙景岑 ?~868)스님은 '정법(正法)대로 한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치나 자랄 것'이라고 했다. 원칙대로만 한다면 사찰에 대중이 없어 풀조차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것이다.

자운 성철 스님, 그리고 산중의 어른스님들이 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대중의 근기를 헤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편과 정법을 혼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눈 어두운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안목이라면 그런 안목을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넣어야지 방편을 쓴 큰스님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일은 아니다. 살불살조(殺佛殺祖)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눈과 귀부터 죽여야 할 것이다.

해인사이기 때문에
俗物이 聖物로
변화가능 왜 모르나

넷째, 이 절집안의 법도가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수좌 30년의 이력을 가진 신망받는 중진 수경스님께서 이 정도로 무례하리만치 간절한 글을 쓰려고 한다면 먼저 대불조성의 배경과 취지, 불사추진의 연혁과 큰스님의 유훈에 대한 확인 등 글을 전개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정말 해인사를 아낀다면 먼저 찾아와서 어른들께 불사의 부당함을 건의하고 그래도 여의치 못하다면 언론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 절집의 질서와 법도를 너무 무시했다. 후배들이 보고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리고 매번 절집안 문제를 세속 언론에 끌고 나가서 그들의 흥미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챙겨온 습관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 버렸다. 지금도 그런 작태는 계속 진행중이다. 절집안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탐하는 것이 과연 같은 사상을 가진 종도인 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충분히 국민(우상숭배 반대자 포함)을 동원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발상이 가능한 것이다. 저변의 사상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해종(害宗)행위가 달리 해종이겠는가? 이보다 더한 해종행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설사 백번 양보해서 자기 자리가 더럽다고 해서 밑자리까지 파버리면 자기도 허공에 떠 있을 수 밖에 없다. 수경스님의 사회적 영향력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조계종 승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섯째, 불상은 아무 허물이 없다. 불상 그 자체는 성물(聖物)도 속물(俗物)도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물도 될 수 있고 속물도 될 수 있다. 육근(六根)은 도적인 동시에 보배인 것과 같이 화려하고 큰 불상이 속물주의의 상징일 수도 있고 신심을 일으키는 성상(聖像)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인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해인사이기 때문에 속물(俗物)이라는 저변의 인식을 성물(聖物)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전환은 왜 할 수 없는가? 육근이 보배가 되느냐, 도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렸듯이 속물이냐 성물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관점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상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각각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집이요, 독선인 것이며 또 다른 한 형태의 업(業)일 뿐이다. 해인사 참배객들의 의지처요, 기도처가 될 대불조성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성물이 되기 위한 신앙적 방향과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도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입이 금구(金口)요, 입을 통해 천냥 빚을 갚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구시화문(口是禍門)인 입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또다른 변견(邊見:극단론)이다. 해인사가 대불(大佛)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행·문화센터로 재가불자의 신행요람을 위한 공간확보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없는가?

여섯째, 대불을 반대하면 선(善)이요, 침묵하면 무사안일이라는 흑백논리는 '환경종(環境宗)'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조계종까지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대불을 반대하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찬성하면 무책임한, 혹은 죽은 의식을 가진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 출현을 반대하는 것은 마왕파순이나 하는 소리지 어찌 조계종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살불살조(殺佛殺祖)는 그 경지에 이른 깨친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중생범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어린애한테 칼을 쥐어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면 善이요
침묵하면 무사안일
마왕파순의 소리

이런 허물을 자인하고 수경스님은 해인사 대중과 자운·성철 스님께 해명과 아울러 참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과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 입이라고 마음대로 나불거리는 진짜 토끼새끼인 방계(傍系) 파파라치의 글에 정통적 불교주류(主流)는 현혹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고 근심이 되어 악성비구에게 끝까지 침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를 부처님께 참회해야겠다. 못난 제자들 때문에 스승에게 누를 끼친 허물도 함께. 정말 수경스님의 글을 곡(哭)하노라.

※이 난의 내용은 현대불교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해인사 대불 말, 말, 말

○…세속인들이 장대한 불사를 원한다해도 만류하고 삼가하여 청정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여야 하지, 누군가가 70억원을 시주하였다 하여 거대불상으로 세계불교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은 세계적 보물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겨레=동양최대>

○…지금 우리 불교계에 절이 모자랍니까? 범종이 모자랍니까? 대불이 모자랍니까? 지금 이 땅에는 부처님을 따르는 청소년들이 씨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화급하게 전법 불사에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 불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계종=화들짝>

○…세계최대 불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듯이, 그것 때문에 불상조성자체가 반대여론에 밀려 조성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세계최대가 비판이 된다면 조금 작게라도 조성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홈페이지=무명초>

○…시주님. 시주를 잘못하시었소. 그돈으로 장애아나 지체장애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으면 후세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텐데… <중앙일보=바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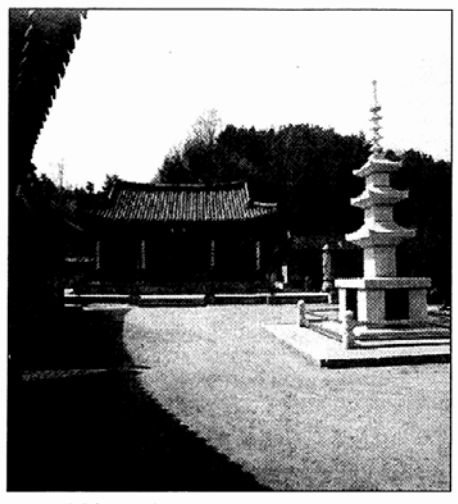
○…어떻게 선방수좌들이 결제철에 산문을 박차고 나설 수가 있단 말인가? 조계종이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불교정보센터=삼천리>

○…화두선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하고, 이번 문제를 일으킨 수좌들이 화두를 제대로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제대로 지도하고 안내하여 한국 간화선의 진면목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불교정보센터=뱀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말로써 해결하는 것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코흘리개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참선을 오래 하셔서 몸이 꽤나 찌뿌둥하셔서 몸 풀 데라도 찾으셨습니까? <해인사=홍진성>

○…인재불사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불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법포교야말로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붙자들에게 명하시는 가장 급한 불사입니다. <조계종=일행>

○…과연 이 땅에 참된 불자님들은 살아 계신가 봅니다. '공양거부운동'에 지금 많은 불자님들의 공감을 얻고, 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공양거부운동을 통해 진정한 경종을 울려야 하겠습니다. <불교정보센터=합장주>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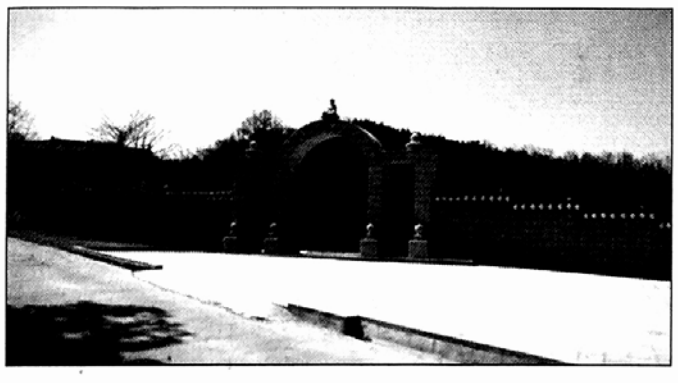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 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



조성된 영탑 ▼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해인사 대불 조성

일 · 파 · 만 · 파

"대불 강행" – "대형 불사 그만" 접점은 없나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제중이던 해인사 수좌 스님 28여명이 실상사에서 소동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가연대 포교사단 경불련 등 14개 교계 단체들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26개 광역 · 교구신도회는 21일 기자회견 및 성명을 통해 대형불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조계종단에 공청회를 요청하는 한편, 해인사 수좌 스님들의 참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일을 계기로 대형불사와 수행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해인사는 대불 조성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수좌 스님들의 소동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대불조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총무원이 사태가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경우 조기수습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4개 교계단체는 21일 해인사 대불조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상사 소동

해인사 수좌 28명 실상사서 집기 훼손

해인사 선방 수좌 스님들이 선방을 나선 것은 일요일인 17일. 본지에 실린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비판한 수경스님의 기고문을 본 후 수경스님을 직접 만나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대중공사를 거쳐 서울로 상경, 하루를 조계사 인근 모텔에서 머문 수좌 스님들은 수경스님을 만나지 못하자 다음날인 18일 총무원을 방문해 수경스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곧바로 지리산 실상사로 내려갔다. 그러나 실상사에서도 수경스님을 만나지 못하자 이곳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경스님 처소의 문짝을 뜯어내고 집기를 훼손하는 소동을 벌였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과 화엄학림 학장 연관스님 등 실상사 스님들은 20일 해인사를 방문,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과 선원 열중 선각스님 등 해인사 사중 스님들과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준비해 온 유인물에 담은 내용대로 해인사 측에 ▲방장스님의 유감표명 ▲주지 및 선원 책임자인 유나의 공개사과 ▲주도한 스님의 3년간 해인사 출입금지 ▲가담자들의 공개 참회를 요구했다.

한편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21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날 도법스님과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수좌들이 실상사에 간 것은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그쪽 스님이기 때문이며, 그 스님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해인사 입장

성역화 계획안 배포 문화 · 수행공간 추진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21일 "예정대로 대불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지금 못하면 다음 주지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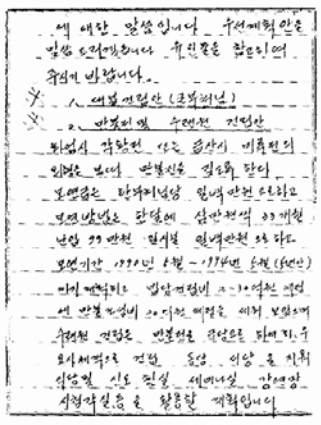
이에 앞서 해인사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사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해인사 박물관장 향적스님은 18일 조계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교계기자들을 만나 '해인성지 (중 · 단기) 성역화 불사 계획안'을 배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큰 절 내에는 선원 재건립, 율원 재건립(용성스님 유물전시관 포함), 요사채 신축, 화장원을 개 · 보수해 승가본연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큰 절에서 1.5km 떨어진 구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대불을 봉안하고 상설 수련원, 영상포교실, 회의장,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소 등 재가불자를 위한 문화 · 수행 공간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간신문 일제 보도

本紙 '기고문' 인용 칼럼 · 기사 크게 보도

해인사 대불 조성계획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을 전해오던 대부분의 국내 일간지들은 18일 해인사 선원 수좌들이 실상사에서 소동을 일으키자 본지(제323호)에 게재됐던 수경스님의 '해인사 대불 조성 반대'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세간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례적으로 19일자에서 문화면을 할애해 '커져가는 해인사 청동대불 논란'이라는 제하로 자세한 내용을 전했고,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부처님도 돌아앉을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불 조성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매일은 "대형불사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장병욱 참여불교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위원장의 기고문을 실었으며, 세계일보도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대형불사와 스님들의 소동을 꼬집었다. 조선 · 동아 · 중앙일보도 해인사 대불 조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히 전했다.


◇89년 5월 해인사 임회회의록

●임회회의록 내용

89년 회의 내용공개 '만불전 짓도록' 기록

해인사는 이날 청동대불 건립이 큰스님의 뜻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89년 5월 18일 임회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임회에는 당시 회장 혜암스님과 주지 법전스님, 선원 대표, 종무소 소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해인초등학교 부지 사용건에 대해 1.대불 건립안(큰부처님), 2.만불전 및 수련원 건립안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불 건립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 다만, 2항에 대해 "화엄사 각황전 또는 금산사 미륵전의 외형을 본따 만불전을 짓도록 한다…. 수련원 건립은 만불전을 금당으로 하여 좌우 요사채 격으로 건립, 동당 서당을 지어 식당 및 신도 침실, 세미나실, 강연장, 시청각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총무원 움직임

예민한 사안 인식 양측 원만수습 기대

총무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대법회(26일 조계사)를 앞두고 대불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해인사–실상사 사이의 관계가 수습되길 바라고 있다.

해인사 대불 조성에 대해 총무원은 예민한 사안임을 인식,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인사와 실상사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조기에 수습되길 바란다"며 "해인사에서 일주일을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총무원도 기다려보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면 두 사찰의 책임자를 불러 수습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 단체 성명

한국불교 구습 정면지적 해결촉구

경불련 조계종포교사단 대불청 등 14개 단체가 연명으로 낸 성명서에서는 우선 "참답함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해인사 선방 수좌스님들의 폭력사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대형불사와 한국 불교계의 해이해진 수행 풍토의 전면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의 성명서에는 그동안 관행으로 받아들이던 대형불사 등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불교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정성운 · 한명우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부·대·중

휴전선 농가에서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산에 있을 때야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을 귀한 줄 모르고 지내다가 포교한다고 시내에 내려와서 살다보니 그 산이 그렇게 값진 걸 이제야 알았다. 하기야 모든 사물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모르는 법이다.

수행자가 산을 떠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손에 쥐고 있거나 늘 주위에 마음먹을 때 볼 수 있으면 그 사물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백설에 덮힌 산과 그 위에 떨어진 동백꽃, 동백꽃 사이로 달 그림자와 소쩍새가 봄을 만들어내는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자연 속에 살다가 삭막한 도시에 살다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많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피하고자 들판이 있는 파주 농가에, 일이 없는 날이면 몇 권의 책을 챙겨가지고 가서 쉬었다 오곤 한다. 앞뒤로 조그만 야산이 있다. 그곳에는 밤나무와 진달래, 아카시가 계절에 맞추어 꽃을 피운다. 밤이 되면 개구리가 울어대고 소쩍새가 철조망을 넘어와 슬피 울고 아침이 되면 철조망 넘어 북쪽 산으로 간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임진각이나 휴전선 이야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낯선 곳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요즘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육안으로도 훤히 보이는 땅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서로 믿음을 주는 것 같다. 오천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끈끈하게 살아왔다. 물난리를 두 번이나 겪고 태풍이 몇 차례 쓸고 간 파주 땅이지만, 문학포교원 시멘트 사이에 자라는 구기자나무를 이곳에 버리는 듯 심어놓았는데도 죽지 않고 두 해 지난 지금은 붉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구기자나무에서 많은 것을 느낀다. 다른 풀과 나무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더 많이 번식하는 생명력이 있다. 우리 민족이 구기자나무처럼 강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6월, 조용한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목탁소리

결제 중인데…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본지에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비판하는 수경스님의 글이 나간 후 해인사 선원 수좌 28명은 18일 서울에 상경해 총무원에 수경스님의 사과문을 받아내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실상사를 찾아가 수경스님 처소의 문을 뜯어내고 집기를 훼손시키는 등 소동을 벌였다.

안거 중인 수좌 스님들의 이같은 행동이 알려지자 불교단체는 물론 일반 불자들의 비난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실상사도 해인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소동도 소동이지만 안거 중인 수좌 스님들이 선방을 박차고 나온 것부터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안거는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중인 사문들이 비가 내리는 우기에 90일간 한 곳에 모여 수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무더위 끝에 우기로 접어들면 작은 생명들이 기어 나오고, 이때 돌아다니다가는 미물을 밟아 죽일 염려가 있기에 생명을 보호하자는 의미도 안거에 내포돼 있다. 오늘날에도 안거는 출가자의 본분사인 해탈의 길로 가는 거룩한 전통으로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인사 선원 수좌들은 안거의 참뜻과는 반대되는 폭력적이고 반불교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수행기풍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금명간 안거 중에 선방을 나선 이유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대중을 이해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

선방은 서릿발같은 선의 정신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안거 중에는 수행하다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 선원의 전통이 일거에 무너진 일은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될 것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쭝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송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보(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뇌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였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⑭

다음은 제22,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이다. 여기서는 공덕림(功德林)보살이 이 단계에서 더 훌륭하게 나아가는 덕을 보이는데 '열 가지 한없는 수행하는 양상'을 말하였다.

"무엇이 열 가지 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信藏), 한없는 계행(戒藏), 한없이 부끄러워함(慙藏), 한없는 조심(愧藏), 한없는 공부(聞藏), 한없는 보시(施藏), 한없는 지혜(慧藏), 한없이 명심함(念藏), 한없이 간직함(持藏), 한없는 변재(辯藏)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令諸菩薩 究竟成就無上菩提).

이렇게 무진장(無盡藏)하니 흔히 화엄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화엄에서 열거하는 보살의 이름에 바다나 산, 숲 그리고 창고 등을 비유로 말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공덕림(功德林)이니 금강장(金剛藏)이니 묘염해(妙焰海), 공덕산(功德山) 등이 그런 사례이리라. 이것으로 제4회의 법문을 마친다.

부처님이 보리를 얻음은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어서 제5회 설법장소인 도솔천궁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 보자. 수많은 보개(寶蓋)와 화장(華幢), 의복, 방울 등의 장엄이 늘어선 보배궁전에서 게송이 설해진다. 승도솔천궁품(昇兜率天宮品) 제23의 장항에 이르기를, "그 때 세존께서는 다시 신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서 도솔타천으로 가시어 일체의 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시었다. 그 때 도솔타천왕은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심을 보고, 궁전에 마니로 장엄된 사자좌를 놓았다. 그 사자좌는 천상의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과거에 닦은 선근으로 얻은 것이며… (爾時 世尊 復以神力 不離於此菩提樹下 及須彌頂 夜摩天宮 而往詣於兜率陀天一切妙寶所莊嚴殿…)."

이어서 서론격인 도솔궁중게찬품(兜率宮中偈讚品) 제24의 게송을 살펴보자.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님의 참된 경계 알지 못하니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야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 마치 비옥한 밭에 뿌린 씨 잘 자라듯이 깨끗한 마음 밭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법 생장하나니. 마치 아가타(阿伽陀)약이 모든 독을 소멸하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나니 / 중생들은 말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성도하셨다 하나 부처님이 보리를 얻음은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위의 게송 중 그 마지막 게송에 유의해보자. 이것은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서 말하는 정신 곧 '오랜 세월 전에 성불하신 부처님(久遠實性의 本佛)'의 사상이 깃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같이 오래이고 멀지마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고 하였다. 게송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말하였다.

"내 스스로 성불하여 지나온 그 겁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가 되느니라 / 중생제도 위하여 열반을 말하지만 그 실은 멸도 않고 항상 이 법 설하나니."

이러한 구원실성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은 대승불교사상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법화경과 화엄경의 사상은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처에서 올리던 기우제(祈雨祭) 덕분인지 답답하던 가뭄도 물러가고, 시름 많던 농부의 얼굴에도 웃음이 넘치게 되었다.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서는 마나사(摩那斯) 용왕은 하늘에서 '중생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중생들의 정성과 고통을 감안해서 단비를 내려준다'고 하였다. 다만 가뭄이 물난리로 연결되지 않기를 부처님 앞에 기원 드려본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무진장한 法 닦아 보리 이루리

"용왕은 중생 정성 · 고통 살펴 단비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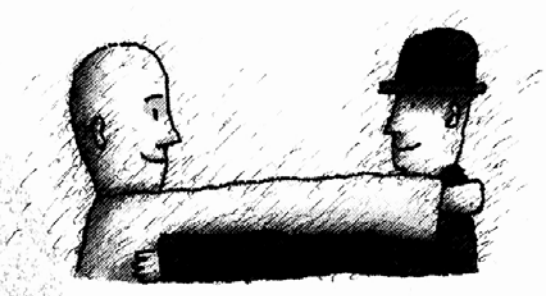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교, 배척보다 공존 지향

불교와 과학 〈33〉

이 연재는 '불교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의 주제들이 불교의 우주관이나 석존의 살아 있는 음성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왔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호흡을 늦추고 불교와 과학을 비교하거나 그 상관성을 찾으려는 까닭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쩌면 불교와 과학은 처음부터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범주일지도 모른다. 불교는 근원적으로 우주에 대한 언어에 제한될 없는 존재인식과 삶에 대한 행위인식의 범주이지만 과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언어영역 내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같은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둘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자색역학에서 입자들 사이의 비결정론적인 인과율이나 카오스 현상의 피드백적인 인과율을 연기론과 직접 비교하는 일은 그것들 사이의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성급한 비교작업이거나 불교의 포괄적 위대성을 과대 포장하여 보여주려는 억지춘향일 수 있다. 불교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지식의 범주에서 포괄하려는 것이기보다는, 과학적 세계관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과학문명의 병리적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광대한 관용의 눈을 갖고 과학을 대할 수 있다.

불교-과학의 상관성

과 학 체계적인 분석 지식 지향

불 교 광대한 눈으로 과학 포용

서구에서 중세 이후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배척적인 관계였다가 근대 중반 이후에야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처럼 과학과 기독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구 정신사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사상적 기둥이 되어 왔다. 배척에서 화해로 가는 서구 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시민 사회로 전환하는 서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사이의 화해를 성립시키는 반면에 제국주의의 발길을 신대륙에 돌려놓아 서구와 비서구라는 인종적 배척의 관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런 배척의 역사는 엄밀히 말해서 과학보다는 권력화된 중세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불교는 처음부터 관용의 역사를 지닌다. 그래서 배척보다는 화해를, 또한 배제보다는 공존을 그 깨침의 방법론으로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기독교와 비교해서 종교적 특성이 약하고 철학에 가깝다고 한다. 밖에 존재하는 유일신이 아니라서, 혹은 종말이라는 시점이 없어서 신앙과 포교의 특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잣대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 자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불교는 외재하는 유일신과 종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종교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비와 관용이라는 불교의 우주론적 미소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김용옥의 노자와 논어 방송강의를 예로 들어본다. 개인적으로 김용옥의 강의 내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마침 불교 신자 한 분이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라는 제목으로 김용옥의 강의를 반박하는 비판서를 출판하여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보고 나는 더 큰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에서 교회 이단자를 마녀사냥 했듯이, 김용옥을 불교와 화해할 수 없는 배불주의자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들어오기까지 노자와 공자, 하다 못해 샤머니즘과도 관용과 화해를 나누어 왔다는 사실을 그 책의 저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용옥을 불교의 가면을 쓴 유교 전파자로만 단정지었다. 더더욱 문제는 불교방송에서 아무런 학문적인 여과 장치 없이 그 저자만의 이야기를 방영했다는 점이다. 책의 저자가 말한 배척의 근거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배척은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 김용옥의 불교 이해는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훼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김용옥의 비교연구가 지나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훼불로 간주한다면, '종교와 철학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금륜(金輪)〉 제9호에 실린 서양철학과 불교의 연대성을 강조하신 청화큰스님의 법문 내용도 훼불이 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결국 김용옥의 강의를 훼불로 단정짓고 만다면, 불교는 너무 자기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비관용의 종교가 될 수 있다.

관용은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폐쇄를 거부하며 다양성을 지향한다. 불교가 과학을 포용하는 이유는 과학적 성과물의 지식이 불교적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불교와 과학이 상식적 앎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과학은 상식적 앎에서 체계적 앎으로 외형만 바뀔 뿐이지만, 불교는 앎의 관용을 통하여 상식적 앎에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우주적 앎을 보고 있는 것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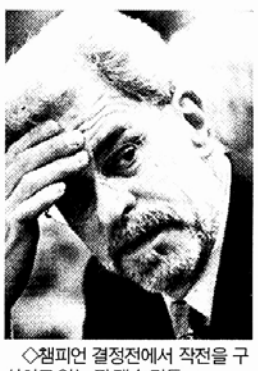
禪 응용 잠재력 개발 NBA 최다 우승 비결

지구촌 불교 / 필잭슨 명상법

LA 레이커스가 미 프로농구(NBA) 1999~2000시즌에 이어 2001시즌 최종 챔피언결정전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누르고 2연패를 달성하면서 필 잭슨 감독의 명상 훈련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NBA 사상 통산 여덟 차례 우승을 이끌며 '최다 우승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 비결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필 잭슨 감독은 시카고 불스에서 6번, 그리고 LA 레이커스에서 2번 NBA 우승을 따냈다. 마이클 조던, 스콧 피펜(이상 시카고),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이상 LA)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거느린 덕에 행운을 누린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 필 잭슨 감독이 명장 중의 명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미 스포츠평론가들은 "선(禪)에 심취한 필 잭슨 감독이 명상 훈련을 통해 순리와 중용, 그리고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가 스타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조직력과 수비력을 갖춘 팀으로 다듬은 게 우승의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필 잭슨 감독.

2연패의 영예를 안은 LA 레이커스의 경우, 96년 오닐을 영입하고 나서도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던 팀이었다. 그런데 필 잭슨이 99년 6월 지휘봉을 잡은 후 '팀 워크'를 살리자 1999~2000 시즌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올 시즌도 패권을 잡았다.

참선 통해 선수기량 조직력 강화

빼어난 팀워크로 여덟차례 우승

이번 최종 챔피언결정전에서 보여준 LA 레이커스의 경기 내용은 명상 훈련법의 효과를 입증해 주기에 충분했다. LA 레이커스는 스타 플레이어인 오닐과 브라이언트 외에 폭스, 호리, 그랜트 등이 고른 활약을 펼쳤고 동료를 도와주는 협력 디펜스로 필라델피아를 괴롭혔다. 공격 일변도이며, 자신의 마크맨 외에는 수비에 신경쓰지 않았던 지난날의 LA 레이커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올 시즌 초반 오닐과 브라이언트가 삿대질까지 해대는 심각한 불화로 팀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을 설득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설한 필 잭슨 감독이었다.

미 스포츠평론가들은 필 잭슨 감독의 명상 훈련법은 팀의 조직력뿐만 아니라 선수의 집중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데에도 적잖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선수에게 필요한 것으로 체력과 기술을 꼽지만 '잠재력'이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심리학자 마이클 노박 박사는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에 몰입한 순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육체, 힘, 기술 등이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적인 신경작용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신작용이 필요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때 선수들은 새로운 자신을 보고 잠재력을 일깨워 승리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필 잭슨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적인 장애 요인을 없애고 정신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명상 훈련'을 계속 강조하는 한, LA 레이커스가 5번이나 정상에 오른 80년대의 황금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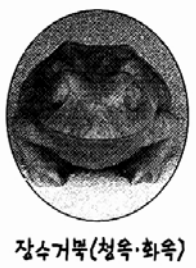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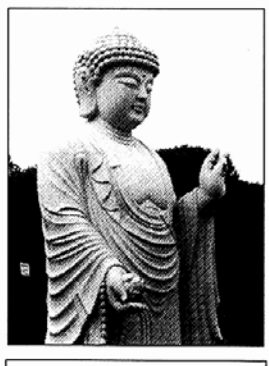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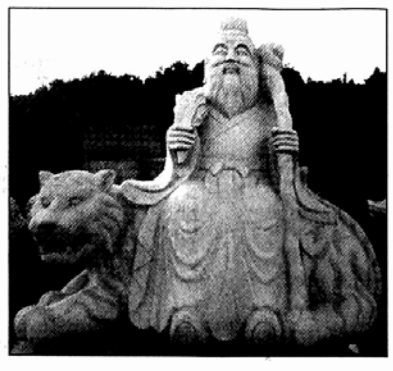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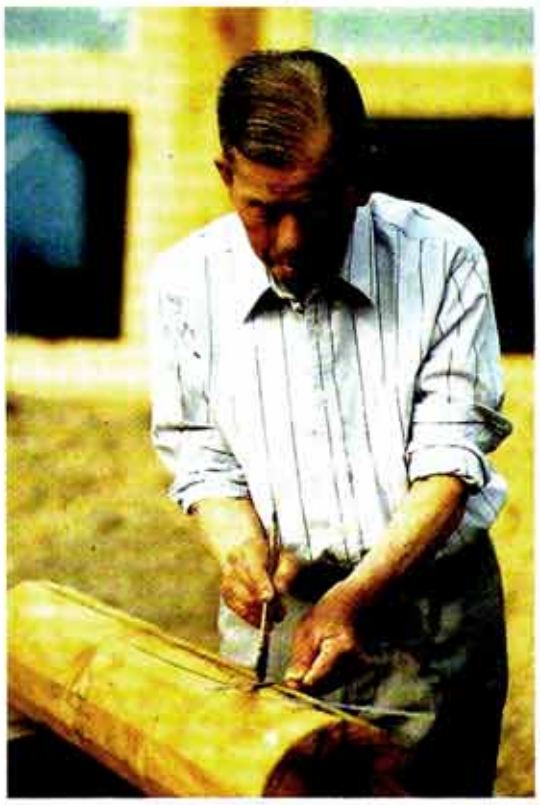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전주 완산 차문화원 신축 현장에서 목재에 먹을 치고 있는 고택영 대목장.

"대패로 다듬고 끌로 구멍을 뚫어서 목재를 짜 맞출 때 기분은 말로 다 못해. 특히 기둥이 제 구멍에 쏙쏙 들어맞을 때는 절로 신명이 흘러넘쳐."

7월 13일로 미수(米壽, 88세)를 맞는 고택영 옹. 199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으로 지정된 그는, 60여 년을 문화재급 고건축 공사 현장을 지키며 목수로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인이다.

"전북 부안군 실상사 신축 현장을 갔더니,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녀를 딩고 선 고 대목을 보았다"거나, "경복궁 경회루 보수공사에서 고 대목의 이름 석자가 기록된 부재가 나왔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전언만 보아도, 그의 면면을 짐작할 수 있다.



◇전주 정혜사 사천왕문에서 바라본 대웅전. 고택영 대목장이 제자 김명성씨와 함께 89년에 지은 대웅전은 유연한 처마곡선으로 유명하다.

"깎고 다듬다 보니 이젠 '나무와 귀엣말'"

米壽 맞는 **고택영** 대목장

손길 닿은 고건축 150여채
문하생 20명 '수리 기능자'
"60여년 외길 후회없어요"

고택영 대목장의 손길닿은 고건축물

1964년	서울 조계사 대웅전 보수
1966년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 해체보수
1968년	경기 고양 북한산성 대서문 복원
1960년	전남 영암 도갑사 해탈문 해체보수
1962년	서울 경복궁 자경전, 성화당 보수
1963년	서울 남대문 해체보수
1965년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고 보수
1970년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명부전, 천왕문, 일주문, 금강문 해체보수
1972년	전남 승주 송광사 국사전 해체보수
1974년	서울 경복궁 경회루 보수
1975년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 해체보수
1985년	충남 논산 흥국사 대웅전 신축
1988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복원
1989년	전북 전주 정혜사 대웅전 신축
1992년	전북 정읍 내장사 선원 신축
1993년	전북 정읍 내장사 도덕암 대웅전 신축
1993년	충남 연기군 보림사 선원 신축
1995년	전북 부안 성황사 대웅전 신축
1996년	전남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 신축
1998년	전남 화순 용암사 대웅전 신축
현재	전북 부안 실상사 전각 복원 중

〈통감절요〉를 줄줄 외우며 도장을 과고 장기판을 만들던 학동(學童), 간혹 "크면 목수가 되려나"하는 주변의 '우려 섞인 칭찬'을 듣는 아이였던 고 옹이 목수 일에 뛰어 든 것은 스물 일곱 먹던 해인 1941년이었다.

"부안의 큰 목수 심태점 선생이 동네에서 골 구멍을 뚫는 사람을 찾기에, 내가 나섰지. 그런데 일 하는 걸 보더니 10년 한 사람보다 잘한다며 함께 일할 생각 없냐 하는 거야." 심 씨는 그의 연장 다루는 손끝에서 싹수를 본 것이다.

그 후 고 옹은 전북 지역에서 심태점, 심사일 씨 등을 따르며 한옥 짓는 일을 배웠고, 1954년 서울로 와서 목수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궁중목수의 전통을 계승한 조원재 선생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상경 후 지금의 오장동에서 한옥을 보수하는 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누군가 나타나 서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구작정 서쪽으로 갔더니 조계사 보수 현장이야. 그 곳에서 조원재 선생을 만났지."

당시 조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를 맡고 있었던 조 씨는 1982년 작고한 대목장 이광규 씨와 함께 경복궁 중건의 중책을 도맡았던 구한말의 대목장 회원식 선생의 맥을 이은 궁중목수였다. 연장만 다루던 고 옹이 조 씨를 만나 설계도면 작성법, 나무깎는 법, 서까래 거는 법 등 고건축 이론과 실기를 배우며 비로소 대목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고 옹이 말하는 대목으로서의 매력은 먹을 치는 일과 처마 곡선을 잡는 일이다. 먹을 치는 것은 목재를 깎고 다듬는데 기본이 되는 선을 긋는 것인데, 대목이 목재의 형태에 따라 먹을 쳐 놓으면, 목수는 먹 선을 따라 기둥, 보, 공포 등을 만든다. 대목은 나무와 귀엣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그 쓰임새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뜻하는 말이다.

처마곡선은 건물의 생명이다. 이런 곡선은 설계도면이나 이론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직 대목의 경험과 기능에서 이루어진다. 고 옹은 "마음 속으로 도면을 짜고, 자연에 순응하면 저절로 곡선이 된다"고, 그 비결을 설명했다. 이는 집을 짓거나 보수할 때 지세(地勢)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전주 원각사 극락전과 그 곳 출입문에 조각된 꽃무늬 문살.

지금까지 고 옹의 손길이 닿은 고건축은 100여 건 150여 채에 이른다. 사찰로는 영암 도갑사 해탈문, 합천 해인사 장경판고, 강화 전등사 원통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전주 정혜사 보광전, 승주 송광사 국사전,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 등이 있고, 일반 고건축으로 서울 남대문과 경복궁, 전주 측서루, 파주 자운서원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현장을 누비며 전각을 세우고 고쳤지만, 정작 전북 부안에 있는 그의 집은 시골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농가(農家)였다.

"나무깎아 돈 벌 생각해본 적도 없어. 돈에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천해지고 제 일도 제대로 못해. 목수는 제대로 지은 집의 상량문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야지."

이런 생각 탓일까, 고 옹은 자신에게 전각의 보수나 신축을 부탁한 사람들과 매번 돈보다는 '적심'의 많고 적음으로 다투었다. 적심이란 서까래를 누르기 위해 그 위에 올렸던 장작 등을 말하는데, '한옥은 지붕을 잘 놀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마무리 부재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값비싼 목재보다는 흙을 선호한다.

적심을 놓고 다루는 과정에서 고 옹의 공임을 깎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고 옹은 집을 잘 짓겠다는 생각으로 매번 양보했다. 그래서 '국가지정 대목장'이라는, 그것도 국내 4명의 목수에게만 주어진 이 타이틀이 있는 그이지만, 그의 살림살이나 옷매무새는 산골 촌부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평생 목수 일을 하며 얻은 것도 있다. 바로 그를 따르는 문하생들이다. 이중 김인선, 전명복, 장춘종, 김영성, 이의찬 등 20명의 문하생들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문하생이 많은 것은 조용하고 원만한 성품 탓도 있지만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망설이지 않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제자들의 창의력까지 수용하는 교육 철학 때문이다.

고 옹은 늘 제자들에게 "스승이 가르쳐준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멋스럽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자와 함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상의하고, 의견을 존중하려 애쓴다.

고 옹의 문하생 20여 명이 '해강회(海崗會)'를 조직하고, 스승의 살가운 가르침에 보답하자며 7월 13일 '미수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고 옹의 따뜻한 품성의 당연한 결과이다.

"선생님은 나무의 쓰임새를 정하고 깎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목수나 전통가옥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분"이라는 해강회 총무 김영성(문화재 수리기능자) 씨는, 선생님의 작품을 모으고, 여기에 지인들의 평가를 담은 책과 선생님의 모든 작품에 대한 실측도면과 학술적인 평가를 수록한 책, 두 권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목이 되려면 기예도 출중해야 하지만, 수십여 명의 목수를 원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인격 수양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고택영 대목장은 오늘도 부안군 실상사 신축 공사 현장을 이끌며 전각을 세우고 후배를 가르치며 목수의 길을 회향하고 있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오색죽

"네 년이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소녀는 이미 이수학(李秀鶴)과 백년가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정조 타령이란 말이냐. 나 신광수(申光秀)가 손바닥만한 영월 고을의 기생 하나를 마음대로 못한대서야 될 말이더냐. 내 경춘이 너를 죽여서라도 수청을 들게 하고야 말겠다."

이 이야기는 춘향전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남원의 춘향은 소설 속의 가공인물을 그럴듯하게 그려낸 것이지만, 강원도 영월의 경춘(瓊春)은 실제 인물이었다. 소설 〈춘향전〉의 실제 모델이 바로 경춘이었던 셈인데, 경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다.

경춘의 원래 이름은 노옥(魯玉). 그녀의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다. 봉소 노산군(단종)을 흠모해 딸 이름까지 노옥이라 이름 지은 그녀의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옆 마을의 추월(秋月)이라는 기생집에서 길러졌다. 재색을 겸비한 기생으로 성장한 노옥은 효심이 대단했다. 그러던 중 영월부사로 부임한 이만희 아들 이수학과 깊은 정이 들었다. 그러나 이만희가 다시 한양으로 영전하자, 그녀는 이수학과 잠시 이별하게 되었다.

그런 노옥이 신광수의 협박과 폭행에 견디다 못해, 부모의 산소를 찾아 하직인사를 고하고, 이수학이 있는 한양 땅을 바라보며 금강정 낙화암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녀의 나이 16세때 일이다. 그 해 승정원의 일기를 보면, 이 일로 인해 경춘을 기리기 위해 1795(정조 19년 순찰사 손암(孫嵓)이 공이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도 금강정 낙화암에는 '越牧瓊春殉節之處'라는 글씨가 남아있다. 그 후 영월은 봄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갈 때면, 다섯 가지 오색죽을 준비하여 강가에 뿌리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춘의 넋을 위로했다고 한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당뇨 · 간장 질환에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쌀 1컵씩, 부재료(비트즙, 단호박 으깬 것, 쑥즙, 검은깨 간 것, 대추 간 것, 산마가루) 각 식1/2컵, 물 6~7컵씩

요리법 ① 쌀은 2시간 이상 불려서 물기를 뺀다. ② 바닥이 두터운 냄비에 쌀과 물을 붓고 따뜻해지면 부재료를 넣고 저어가며 끓인다. ③ 한 소금 끓으면 불을 줄여 서서히 끓인 뒤 죽염이나 볶은 소금을 곁들인다.

효능 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간장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좋다. ② 일상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평상식으로도 아주 좋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일선선사 '一念廻光'

일선 선사는 출가 당시 입었던 누더기 한 벌로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 선사의 법명은 일선(一禪), 법자는 경성(敬聖), 법호는 휴옹(休翁), 선화자(禪和子).

선사는 성종 19년(1488) 12월 13일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11세에 부모님 두 분을 여의었다. 그 후 3년 동안 돌봐 주는 사람 없이 이 곳 저 곳을 떠돌아 다니다 경주 단석산에 주석하던 해산(海山) 선사의 눈에 들어 출가를 하게 되었다. 이 때 선사는 생(生)에 대하여 무상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으로 전한다.

세상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지라. 또한 오늘의 현실과 같은 혼란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전국의 승가는 구이지학(口耳之學)으로 세상에 뽐내며 자랑하는 부류승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구이지학이란 수행승들의 말과 행동이 틀리고, 운수 납자인 양 이곳저곳 산수따라 찾아 다니고, 경론(經論)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일생을 졸면서 보내고, 굴 속에 들어 앉았어도 입으로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사는 진리의 바다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묘향산 문수암에 무문관(無門關)을 만들어 주먹크기의 구멍하나를 만들고는 사면 벽을 막고 이일일식(二日一食)과 소대변도 받아내는 활구선 수행을 시작하였다. 깨닫지 못하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서원한 것이다. 이러한 정진 3년 만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대오(大悟)하였다. 그 깨달음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일념회광(一念廻光)

趙州老露刀劍
조주노로도검
唱夢中說夢漏
창몽중설몽루

조주란 늙은이의 칼날이 드러나니
어허, 꿈속에서 꿈을 말함이라

선사의 오도송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사께서 추구하신 깨달음의 참구는 활구선이다.

界有成住壞空
계유성주괴공
念有生住異滅
념유생주이멸
身有生老病死
신유생노병사
無常之體無常
무상지체무상

유 · 무형 세계에는 이뤄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현상이 있고,
생각에는 생겨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현상이 있으며,
몸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이 있다.
무릇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사께서 참구하였던 활구선의 일념회광(一念廻光)이다. 마음의 본바탕이 일념으로 닦으면 밖으로 반조(反照)하는 것이다. 즉 일념성각(一念成覺 : 일념사이에 깨달음을 얻어 성불(成佛)이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선사의 깨침은, 염오무지(染汚無知)로서 마음의 진성(眞性)이 티끌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중생세계에 기용살활(機用殺活)로서 식업양성(息業養性)의 성태(聖胎 : 맑고 깨끗하고 성 스러운 씨앗)인 능관심(能觀心) 즉 누진의(漏盡意)인 번뇌의 더러움이 멸진(滅盡)되어 지혜(智慧)가 일념성각(一念成覺)되는 깨침을 전해주고 있다.

선사께서는 일념으로 활구선을 닦으면 미물까지도 마음의 본바탕이 회광(廻光)되고 반조(反照)되어 깨칠 수 있다고 하셨다. 물질만능에 오염되어 지옥의 바다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현세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선사의 활구선의 가르침으로 본다. 이렇게 지옥중생까지도 건질 수 있는 깨침을 제시해 놓으시고는 선사께서는 선조1년(1568) 2월 30일 좌탈했다.

묘향산 무문관 활구선 수행3년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보고 大悟

가까이서 뵌 큰스님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주지

"은혜 갚고 살면 본래성품 회복"

"똑 똑 똑…"

정오, 점심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들리자 석남사 스님들이 공양간으로 모였다. 조그만 후원(부엌) 겸 식당에는 두개의 상이 펼쳐져 있다. 주지스님은 따로 공양하시겠지 했는데 뜻밖에도 주지 정무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앞장서신다. 스님은 잡곡밥과 소찬을 식판에 살풋 담아 상에 첫번째로 앉으셨다. 상좌스님 2명과 행자 2명, 그리고 사무장과 노보살 등이 식판을 들고 그 곁에 차례로 앉아 공양을 시작했다. 70이 넘은 노스님인데다 주지라면 따로 독상을 받고 공양을 할 만 한데도 스님은 '특별대우'를 마다하신다. 가끔 신도들이 귀한 꿀 같은 것을 가져와 "스님만 드십시오" 할 때도 스님은 "대중공양" 하고 손을 내저으신다.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상좌들과 함께 채소밭 울력에 몰두하고 있는 정무스님(맨왼쪽).

스님은 지난해 10월 석남사로 오셨을 때 각 방마다 있던 개인 화장실을 다 없애버렸다. 이천 영월암 주지로 가셨을 때도 주지 방에 만들어놓은 수세식 화장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없애버렸다. "일반 해우소를 같이쓰면 되지 수세식 화장실은 따로 필요없어요. 또 그거 하천 오염됩니다. 그게 깨끗한 것 같아도 저 이천 시민들이 쓰는 저수지로 가요. 요즘 산골에 있는 암자에도 가보면 주지 혼자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같이 쓰면 되는데…"

수행자의 생활이 편하면 편할 수록 오히려 수행에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 정무스님의 지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대중은 무엇이든 차별없이 해야 한다는 평등의식 때문이다

스님의 평등의식은 부처님 오신날에도 발휘된다. 대부분의 절에서 연등 크기나 모양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매기는데 반해 정무스님이 계시는 절에서는 '봉축시주함'이라 하여 시주할 사람은 성의껏 내도록 하고 연등은 그냥 하나씩 나누어 준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은 시주를 안해도 연등을 받을 수 있다. 연등 크기 따라, 다는 장소 따라 가격을 매기는 행위를 "불교 망치는 짓"이라고 정무스님은 질색을 한다.

49재도 마찬가지다. 그냥 형편따라 내면 된다. 익숙하지 않은 신도들은 더 어려워하며 "그래도 가격을 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내가 집의 형편을 어떻게 압니까? 가난한 이가 많이 해도 욕먹고 부자가 조금 해도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 형편껏 하세요." 스님의 진정을 알게 된 신도는 편한 마음으로 49재를 지낼 수 있다. 스님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사찰 재정이 거덜 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님은 "난 한푼 없어도 다 먹고 살 보물을 지니고 있다"며 개의치 않는다. 자급자족하고 절약해 살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스님은 격의가 없고 권위의식이 없으며 매우 검소한 생활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지키고 있다.

"수행자의 생활 편하면 편할수록 오히려 수행장애"

모든일 대중과 함께 어디가나 '효' 법문

맏상좌인 심경스님(반야사 주지)은 "은사스님의, 원칙을 지키는 칠저함과 검소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혀를 내두른다"면서 다음과 같은 옛 일화를 들려주었다.

심경스님이 70년대 중반 용주사 재무로 있을 때 중앙교육원에 마침 교육이 있어 서울에 25일동안 머물게 되었다. 당시 용주사 주지를 맡고 있는 정무스님은 마침 승복을 만들 옷감을 사러 상좌 심경스님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다. 스님은 물어 물어 돌아다니며 가장 싼 옷감을 골라 샀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훨씬 지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연거퍼 났지만 정무스님은 그 흔한 자장면 한그릇 사줄 생각을 안하시는 듯 했다.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 구간으로 네 정류장을 걸어가 수원가는 버스를 타고 절에 도착해서야 스승과 제자는 국수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다. 심경스님은 "출가 수행자가 밖에서 외식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심과 동시에 외식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러셨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금이야 어느 절에서나 보편화가 되었지만 60년대나 70년대 신도들을 대상으로 절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수련회'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1968년 영주 포교당에서 여름수련회를 교계 최초로 개최했다. 이 일은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에 옮긴 것으로 이후 다른 사찰의 모범이 되었다.

"재가신도는 기복적 신앙모습에서 탈피, 수행을 해야 하고 승가는 스스로의 수행정진과 함께 재가의 수행을 도와야 한다"는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찰은 스님의 수행공간만이 아니라 신도들의 수련공간으로도 자리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또 교육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강조한다.

"근대 들어 불교정화 등 혼란의 와중에 스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못했기에 요즘의 승단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신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느냐고…' 물론 우스개소리겠지만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스님들의 잘못된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자'라고 정말로 불리우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사람,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에만 오면 다 불자인 줄 알고 집에 가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1년도

설악산 백담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설악산 백담사〉



△등정탑-염불만일회 동참하신 서른한분 소납의 옵산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작년에 전남 대원사 순례하였고 2001년도는 아래와 같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날은 건봉사 등공대 참배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2001년 8월 6일 ~ 8일 (2박 3일)
◇장 소 : 강원사 설악산 백담사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및 건봉사 등공대 성지순례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참 가 비 : 35,000원(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교 통 편 : 개인별 설악산 백담사 오후 2시 도착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1년 8월 6일(월) 오전 7시
○ 교통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 · 교통비 포함 6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6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무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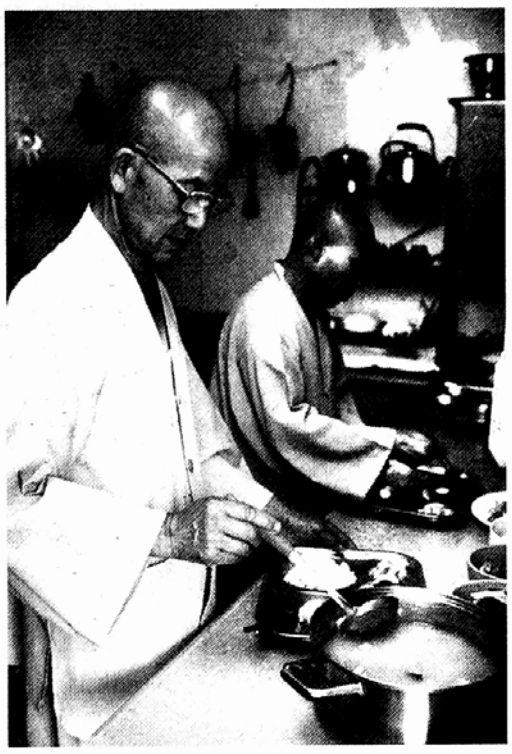
늘 맨발…백장청규 실천

사찰수련회 처음 실시



1931년 전북 임피에서 태어난 정무(正無)스님은 58년 전북대학교 농과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58년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을 법사로 대교과를 수료하고 6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전강선사를 조실로 5하안거를 성만했으며 71~83년 수원 용주사 주지, 84년 신흥사 주지, 영월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안성 석남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은 늘 맨발 차림이며 하루에도 30번 이상 손을 씻을 정도로 흙속에 묻혀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고 있다.

스님은 수련회 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1968년, 주석하고 있던 영주 포교당에서 신도수련회를 처음 열었고 청년불자들인 대학생 불교회 수련회도 처음 시작하는 등 수련회 개최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찰에 주석하고 계시든지 신도들을 위한 수련회를 직접 마련해 신도들을 교육하고, 수련회를 열겠다고 하는 단체에는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개방하고 있다.



◇수행자의 생활이 편할수록 구도의 길은 멀어진다고 말하는 스님은 공양도 직접 식판에 담아 대중들과 한 상에서 하신다.

"서는 제 마음대로 살아요. 업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업을 자기가 조장해 가며 삽니다. 그러나 절에만 온다고, 유명한 큰 스님들 좇아다닌다고 진정한 불자가 아니예요. 요즘은 스님들이나 신도들이나 힘들게 수행을 하지 않으려 해요. 어떻게 하면 업도 쉽게 소멸할까 궁리나 피우고, 부처되는 길도 지름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불교는 자기가 닦은 만큼 업을 소멸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의 일상은 단조로우면서도 빈틈이 없다. 새벽 4시 예불을 봉행하고 5시에서 1시간동안 참선삼매에 든다. 6시에는 대중 모두가 도량을 청소하며 자신의 마음에 끼어있는 때를 씻는다. 7시에는 아침공양, 12시 점심공양 때까지 사중의 일을 보거나 공부에 몰두한다. 점심공양이 끝나면 또 청소를 하고 5시까지 가람 정비와 채소를 가꾸는 울력에 몰두한다. 6시 저녁공양 7시 저녁예불, 이후는 현재 석남사에 와 있는 행자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 스님은 행자를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행자나 상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초발심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지속시키고 하심과 인욕을 평생 간직해야 한다는 것. 또 수행을 겉으로 하지 말라고 늘 주의를 준다. 모든 일을 배울 때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발심출가 한다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지요. 발심했다 하면 어디서든지도 닦을 수 있어요. 발심이라는 말 자체가 도 닦으려는 마음을 100% 냈다는 것이지요. 발심했을 때의 마음을 지속한다면 어떠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환경을 탓해서는 안되지요. 요즘 보면 출가자나 재가자나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노후 걱정을 하질 않나, 무슨 걱정거리가 그리도 많은지…"

'양다리 걸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단언하신다. 초발심 때는 구도심이 견고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엉터리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 철저한 초발심
> 자연스럽게 불퇴전
> '백척간두 서있다'
> 항상 명심하며 공부

발심이 안되어 있다는 거지, 철저하게 발심이 되어있는 사람은 자연히 불퇴전(不退轉)이 된다.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간절함으로 해야 하며, 발심이 약해지면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라고 하신다.

상좌인 세영스님(여주 신륵사 주지)은 "은사 스님은 수행자 본분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면서 "상좌들에게도 포교를 늘 강조하시고 포교야 말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본분사이니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신다"는 것.

정무스님은 현재 석남사 정화(가람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다)에 몰두하고 계신다. 스레트 조립식 건물 8동중 해우소 등 두 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했다. 서운산에 둘러싸인 가람, 석남사 자체가 아담한 산사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스레트 조립식 건물은 절에 오는 신도들에게 전혀 환희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사람의 다음을 편하고 즐겁게 '환희심이 나는 사찰'을 만들어가는 불사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은 그렇다고 그 불사에 돈을 많이 들이고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일을 상좌와 함께 직접 한다. 그것을 스님은 '직영(直營)'이라고 표현하신다. 불사비를 신도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기에 급한 마음도 없고 화려하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다. 매일 매일 정성을 다해 할 뿐이다.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정말 큰 일이예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전도되어 이기주의와 갈등, 방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국민 전체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나 일시적인 미봉책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기 때문이예요. 가정의 파괴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왜 생기고 존재하는 가에 대한 근원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겠다는 풍조가 널리 퍼졌을 때 가능합니다."

스님은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일체 중생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효"라고 말한다. 그 은혜의 대상을 부모로 한정하기 보다는 일체 중생을 부모로 보고 효순공양하는 것이라며 다섯가지 은혜를 알고 보은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즉 국가, 스승, 부모, 동포, 그리고 자연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

"부모님은혜는 열가지가 있어요. 〈부모은중경〉에 자세히 나오지요. 국가의 은혜는 역사와 문화라고 보면 되지요. 한 민족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서로서로 주고받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또 인류는 한시라도 자연의 혜택을 떠나서 살수가 없지요. 이 다섯가지는 각기 떨어져 있지 않고 연관이 있는 하나의 고리인데 하나만 빠져도 사람은 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다섯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즐겁고 봉사와 자비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어느 법석에서나 이렇게 '효' 설법을 하시는 스님은 요즘 조그만 호신카드 1만장을 인쇄해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고 계신다. 부석사 아미타부처님이 앞면에, 뒷면에는 정명의 길이라 하여 팔정도의 하나인 올바른 생활방법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깨끗한 공기, 일광, 생수 밑에서 산다. 둘째, 본성을 해롭게 하는 직업은 버린다. 셋째, 시간과 돈은 일의 가치 순으로 쓴다. 넷째, 음식은 합리적인 자연식으로 한다. 다섯째, 매일 적합한 노동이나 운동을 한다. 여섯째, 은혜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

정무 스님은 누구나 다섯가지 은혜를 알고 감사해 하며 갚고자 노력하고 여섯가지 정명(正命)의 길을 지키며 살기를 희망하셨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조스님

혜조스님은 성이 구씨이다. 그래서 우스개 말로 '119스님'이라고 한다. '구해조'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이다. 혜조스님은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뜨거운 피와 절절한 가슴으로 사는 스님일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80년대 불교권 내에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 투쟁을 가장 극렬하게 한 곳이다. 당시 혜조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재학하면서 민주화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12·12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5공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해 10월에는 불순세력과 부패세력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불교계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교계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삼청교육대에 보냈다. 감히 기성 승단이 숨도 크게 못 쉴 때 중앙승가대의 학인과 동문들은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 그들과 맞서 온몸으로 투쟁했다. 최루탄을 소낙비 퍼붓듯 쏘아도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 2만명 고대생들이 하는 데모보다 2백명 중앙승가대 스님들이 하는 데모가 더 위협적이라고 하던 당시 성북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보더라도 그 때의 데모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혜조스님이 그렇다고 맨날 데모만 하고 다녔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인식하는 사회와 그가 인식하는 역사와 문화가 그로 하여금 산속에 은거하며 안빈낙도를 즐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느 해인가 강화도 전등사에서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다. 그가 하는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다. 피를 토하듯 절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한을 느끼게 했다. 그것이 그가 업명이처럼 안고 있는 애민중생(愛愍衆生)하는 모습이었다. 한번은 혜조스님네 절에 갔더니 보리 꺼스레기 같이 앙상한 눈먼 고양이 새끼와 한쪽 다리가 없는 비루먹은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이런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중생들을 입양해 왔느냐고 물었더니 길을 가다가 보니 누가 버렸는지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이 하도 안스러워서 주워왔노라고 했다. 잘 생기고 보기 좋은 애들은 아무라도 탐을 내지만 이 애들은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지금 이들을 거두어주지 않으면 구더기 밥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면서 오늘 내가 이들을 만난 것을 보아 전생에 이들에게 진 빚이 많은가 보다며 밝게 웃었다. 이 천애의 장애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민의 마음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민중들의 애환과 절규를 얼마나 통렬한 마음으로 함께 고뇌하는지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평소 그는 작은 일일지라도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매우 진지하다. 그 사안이 생존권과 관계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검증하며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보다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94년 개혁종단의 출범과 더불어 중앙승가대학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김포로 학사이전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한 방법 모색을 위하여 당시 학교 기획실장이던 금정스님과 함께 며칠 밤낮동안 격론을 한 적이 많았다. 혜조스님이 그때 보여주었던 진지함과 논리성에 대하여는 다들 두 손을 들고는 했다.

80년대 후반, 스님과 함께 2년여간 경제사상사와 정치사, 문화사 등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논리적이고 거침없는 표현의 지는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을 매번 놀라게 했다.

종교가 중생들의 귀의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중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부끄럼없이 하는 것은 오탁악세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과 같다, 현실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얼마



나 고달픈 삶을 사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쉬운 말로 자기가 지은 업이니까 자기가 받는다는 식의 단순사고는 종교인으로서뿐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마저도 없다고 항상 혜조스님은 역설한다.

민주화 투쟁과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운동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민주화는 연기적 공생관계를 말한다며 베푸는 사회와 나누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사회라고 스님은 말하곤 한다.

한편 스님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자기사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당 살풀이춤의 인간문화재였던 故 김숙자 선생의 전수생이다. 김선생이 생전에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도 혜조스님이 예인으로서의 끼와 좋은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스님이기 때문에 전념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살풀이춤을 절절한 심정으로 출 수 있는 것도 중생들의 고뇌와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애민중생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이 바라는 사회, 염원하는 세계는 바로 불국정토의 세계이다. ▩ 정취암 한주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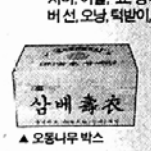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품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청구 세트증정
수직 特品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청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청구 세트증정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떡받이, 면포 (총 3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천실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떡받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몰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단지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집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알아 버린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따부러지게 알아 맞혀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客人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한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점하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布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리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실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리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자자인 蔵卜子 晩果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

한기늠 조각전 30일~7월 9일 예술의 전당

조각으로 만나는 '불교와 나'



◇한기늠 씨는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지난 10년간 '구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여성작가 특유의 섬세함에 동양적 감수성과 이탈리아 등지서 배우고 느낀 서양적 시각, 거기에 스스로의 구도적 체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어오고 있는 조각가 한기늠 씨가 30일~7월 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2002년 부산 비엔날레'를 앞두고 부산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기획한 '해외활동 부산작가 초대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구도(求道)'의 염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조각 60여점, 회화 30여점, 설치 3점 등 1백여점에 달하는 작품이 선보인다.

지난 10년간 한기늠 작품세계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리석과 청동을 소재로 한 조각작품에서부터 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눈길 끄는 작품

'두건 쓴 구도상'
'몸통 비운 조각상'
'고뇌하는 연꽃'
⋮

특히 부처의 모습보다는 승려나 재가 불자 등 인간의 모습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아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구도의 열정과 갈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부좌를 튼 채 광배를 연상시키는 두건을 쓴 구도상이나, 몸통을 공(空)처럼 비워놓은 조각상, 합장한 납자, 성철스님의 청동 좌상도, 달라이라마를 떠올리게 하는 두상, 고뇌와 어우러진 연꽃 등의 작품들은 한기늠 고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미술 평론가 강선학씨는 "종교적 주제의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불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뿐 아니라 1999년~2001년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바닷가에서 그린 유화작품들도 선보이는데, 오랜 구도 여행 끝에 눈뜬 심안으로 바라본 우주적 장엄을 유화의 붓터치로 새롭게 펼쳐보인다. '지중해' '선' '토스카나의 자연' 등으로 명명된 이들 유화는 그의 조각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명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580-1300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몸통을 비워놓은 이 조각상 역시 '구도'를 주제로 삼았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16일 우리사상연구소 주최로 서강대에서 열린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말 철학사전〉에 수록될 주요개념 중 '시간'이란 주제에 대한 발표회로, 서울대 물리학과의 장회익 교수가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현대철학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듣는 것 같았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과학과 기술을 도외시하면 시대의 흐름에 금방 뒤쳐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과학자였다가 나중에 철학에 헌신하여 '유기체철학'을 확립한 화이트헤드로부터, 노장과 주역과 불교 등 동양의 현학(玄學)과 최신의 양자역학이 교차하는 소위 신과학운동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철학의 만남은 시대적 대세를 이루면서 우주를 해석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시대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언어로 거듭 해석되어온 불교도 최신과학이 이룩한 학문적 성취를 수용하고 신세대의 언어감각에 맞게 새롭게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물리학이 새롭게 밝혀낸 미시세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서구의 언어체계로는 적당하지 않아 불교학의 용어와 개념을 원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플라톤 이후 2500년 동안 서구철학을 주도해온 폐쇄적인 가치체계를 반성하며, 보다 성숙된 시선으로 세계를 보는 '깨달음의 철학'을 주창한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수용하는 데 있어 노장과 불교의 사유체계를 동원하는 학계의 움직임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신문화원의 김형효 교수는 〈존재와 시간〉으로 대표되는 하이데거 전기사상을 이해하려면 불교 유식학(唯識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란 점을 밝혔으며(〈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刊), 후기사상 또한 화엄학과 선학(禪學)적인 접근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영원한 주제 '시간' (4)

서구 철학자들 '시간' 실체찾기 끊임없는 탐구

서양에서 시간을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사람으로 먼저 '그리스의 장자(莊子)'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헤라클레이토스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만물유전(萬物流轉) 사상을 펼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든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적실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서양철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은 시간의 문제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 중의 하나인 '영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데아(idea)론에 따라 먼저 영원한 존재를 상정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는 타 존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영원한 절대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상대세계에 사는 타 존재들은 하나씩 차례로 보여지는 사물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 속에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불렀다. (계속)

▮문학평론가



◇독특한 형태의 티베트 불상.



◇곽동해 作 '송하선정'.

문화단신

불교왕국 티베트展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2돌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 불허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이 티베트의 생활, 문화,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베트'를 연다.

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을 맞아 25일부터 9월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티베트의 불상과 탕카, 민속품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막라해 보여준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접하기 힘든 티베트 만다라 제작과정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티베트스님을 초청 박물관 중앙홀에서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티베트의 불교사상과 현황을 알려주는 초청강연도 준비된다. ☎055)382-1001

동문展 '동방의 빛'

동국대 미술학부 30주년 기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동방의 빛'전을 28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30년간 15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동국대 미술학부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계 학계 등에서 활동중인 100여 동문들의 작품 150여점이 동양화, 서양화, 불교미술, 조각 등 분야별로 전시된다. ☎02580-1234



◇'카르마'는 반야심경을 배경으로 한 무대장치와 토우 분장으로 자아완성을 위한 몸짓에 힘을 더한다.

선무도와 무드라 '몸짓 접목'

우바이무용단 '카르마'

28일 서울 국악원 공연

대본 심산 스님-안무 이명미 씨

"가장 한국적인 몸짓으로 인간의 업을 소멸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 '카르마'입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특히 선무도와 무드라(수인)를 접목시켜 한층 더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 될 것입니다."

창단 6년째를 맞는 한나래문화재단 우바이무용단이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카르마'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01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 레파토리로 결정돼 무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선무도의 접목과 반야심경을 배경으로 한 무대장치, 토우로 분장한 무용수들의 자아완성을 향한 몸짓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선무도를 한국무용에 접목시켜 낸 춤사위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하루 3시간의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안무가 이명미 씨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힘들지만, 머리와 마음은 오히려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며 25명의 무용수들과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다.

우바이무용단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심산스님의 역할도 컸다. '카르마'의 대본을 쓴 장본인이기도 한 심산스님은 "인간의 감각적인 욕망을 정화하고 관념을 부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인 빛의 고향, 즉 공의 세계에 가 닿으면 마음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형상화했다"라고 작품의도를 설명했다. '카르마'는 종교적 선입견을 깨고 보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혼을 담아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ncheon@buddhapia.com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 이 함께 하겠습니다

봉 금강경 독송100일 기도 대법회 행
입재 : 불기2543년 (음) 3월8일 회향 : (음) 7월21일
장소 : 삼각산 본원정사 TEL. 902-7337

봉 생전예수재 행
기간 : 6월6일부터 9월13일 (음) 4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봉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날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선하차, 후승차」 축
서울특별시자하철공사 법우회, 청룡업 742-8120

여름불교학교
기간 : 20001.7.30~8.10 수락산 도선사

봉 선망부모 일체 영혼등의 천도를 위한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7.7제 행
수락산 도안사

대학입시 백일기도
입재 : 월 일 회향 :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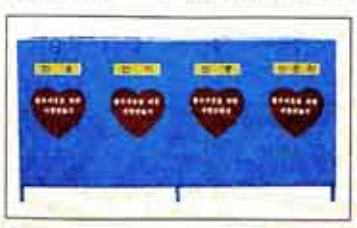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안락 및 부식판



♣ 바리케이트



♣ 분리수거함

♣ 각종 현수막

서울전지역 설치가능 (※ 설치비 별도), 지방은 우편 발송 태영산업 공장직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취급 품목 : 리본, 어깨띠, 세계불교기, 법륜기, 감사패 등

※ 태영산업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함으로 높은 품질과 신속한 납품이 보장됩니다

농협 계좌번호 : 053-02-124814 예금주 : 이태영



♣ 아외용 촛대꽂이



♣ 게시판



♣ 각종 특간판

태영산업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2-6번지
TEL : 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e-mail : lty64@korea.com 이 태 영 합장

"팔만대장경속에 삶의 진리 있어요"

전국교법사단은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청소년들의 불심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경전 말씀 모음'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최근 출간된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 온다〉(시공사)는 지난해 율전을 소재로 한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시공사)에 이은 두 번째 권. 〈아함경〉에서 가려 뽑은 97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은, 마음 길들이는 방법과 '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아의 문제 등을 살핀 '나를 알기 위하여'를 비롯해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경전말씀 모음'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전국교법사단장 김영동(46 · 동대부고) 교법사를 만났다.

-경전 말씀 모음 시리즈를 펴내게 된 취지는.

"우리들은 팔만대장경을 민족문화, 세계문화유산으로만 연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진리로 말미암아 단 한명이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교적 가치관을 형성케 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삶의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구성 방식과 수록되는 내용은.

"이 시리즈는 크게 율전 · 아함부 · 본연부 · 대승경전 · 부처님 말씀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눠 모두 5권을 해마다 펴낼 계획이다. 전국교법사단 문서출판위원회가 주축으로 펴내는 이 시리즈에 수록되는 내용은 불 · 법 · 승에 대한 것(信),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것(解), 삶의 태도에 대한 것(行)으로 한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 본문은 경전 내용 소개와 그에 대해 청소년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현상이나 일상생활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청소년들의 의문을 품는 교리의 문제점들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한다는 것이 편집의 기본 원칙이다."

-집필자는 어떻게 구성돼나.

"지금까지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포교의 경험과 집필 역량을 갖춘 몇몇 교법사들을 주축으로 했다. 3권부터는 각 부문별로 나눠 28명의 모든 교법사들이 집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책을 펴내기 위한 과정 또한 법사들이 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반응은 어떤가.

"본래의 기획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주요 독자층은 청소년들이지만 의외로 일반불자들의 관심이 높다. 첫 권의 경우 3천부 이상이 판매됐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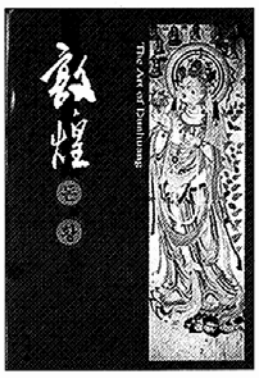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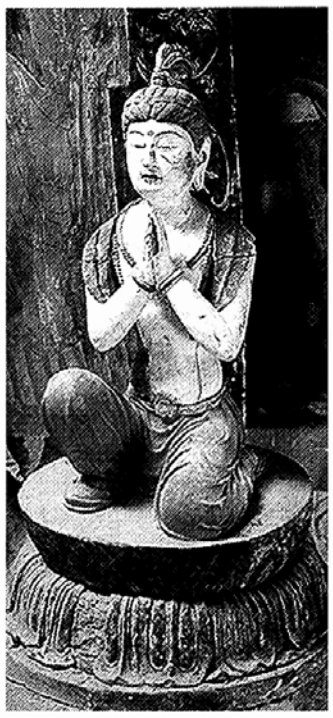
책과 삶

'경전말씀 모음' 펴내는
김 영 동 교법사단장

주요 내용 가려 뽑아
청소년 가치관 함양

2백93장 사진 속 '막고굴 불교'





◇공양보살상(384굴).

'돈황' 최혜원 · 이유진 공역



중국 불교예술의 보고인 돈황 막고굴. 그 굴에 봉안된 벽화, 불상, 경전 필사본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293개의 유물사진을 담은 컬러 도록 〈돈황〉(최혜원 · 이유진 공역, 범우사)이 나왔다.

이 도록은 중국의 풍속, 신화, 역사 그리고 불교사 등 중세 돈황 문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돈황석굴 전시'라 할 만하다. 또한 이 책에는 돈황 석굴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각 석굴과 벽화의 특성 및 아름다움 등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 4편과 도판 설명이

동-서 불교교역사 '한눈'
도판 · 논문도 실어

수록돼 있어 단순한 감상을 넘어 돈황 석굴의 내밀한 세계로 이끈다.

1천6백 여 년 전 낙준 스님에 의해 시작돼 서위-북주-수-당-5대-송-원대에 이르기까지 1천 여 년에 걸쳐 조성된 돈황 막고굴은 거대한 불교미술관이다. 1,600여 미터에 걸쳐 여러 층으로 뚫린 이 석굴군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492개. 벽화의 총면적은 4,500평방미터로 이를 1m 폭으로 이으면 무려 45km에 달한다. 방대한 규모의 돈황 막고굴은 천불동(千佛洞)으로 불릴 만큼 석굴군 안에는 수많은 불상과 벽화 등이 봉안돼 있었다. 하지만 불상과 회화 필사본 등 45만여건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현재까지 남은 돈황 유물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 중 정수만을 가려 뽑아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돈황은 실크로드의 요충지자 동서 문화의 교착지로 각 굴의 작품들 속에는 1천여년간 이 지역을 지배한 한족, 서역인, 티베트인 등의 종교와 문화 사상이 녹아 있다. 돈황이 불교도시로 번창한 것은 당나라 때다. 이 시기에 323개의 굴이 조성됐으며 45굴의 칠존상과 보살상은 불교미술의 백미로 꼽힌다. 또 321굴 천장에 그려진 '아미타래영도'는 신라 에밀레종에 새겨진 비천상의 원형을 보는 듯하다. 세계미술사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는 돈황 막고굴의 작품들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 책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도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돈황은 신라의 혜초 스님이 장기간 머물면서 여행기를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 신부 펠리오가 17굴에 보존돼 있던 1만 여권의 고사본(古寫本) 더미에서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도록은 출판인 윤형두 씨가 〈한국 전적 인쇄사〉 〈한국의 고지도〉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등에 이어 펴낸 기념비적 출판물 가운데 하나다. 중국 돈황연구원과 돈황현 박물관이 합작해 만든 이 책을 범우사가 중국 장쑤미술출판사와 독점 계약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 값 13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라마승이 밝힌 람림 명상법

'깨달음의 길' 진우기 · 신진욱 옮김

티베트에서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고승들이 크고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읽어준다. 이 때 책을 읽어주는 스승은 그 책을 쓴 지은이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원전을 먼저 읽은 다음, 책에 대한 평과 일화 그리고 읽는 이의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공부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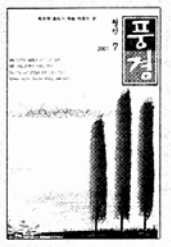
신간 〈깨달음의 길〉(진우기 · 신진욱 옮김, 부디스트웹 닷컴)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된 책읽기를 엮은 것으로, 지난 76년 다람살라에서 4대 달라이 라마가 수천명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3대 달라이 라마가 쓴 〈람림 명상법〉을 읽어주고 해설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티베트에는 람림에 관해 쓴 책들이 수백권에 이른다. 이 가운데 티베트 고승들이 뽑은 8대 람림이 있다. 그 처음 세권이 쫑카파가 쓴 주석서이고, 그 다음이 3대 달라이 라마가 쓴 '람림 명상법'이다.



이책은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수행법인 람림 명상의 역사와 배경에서부터 스승과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적고 있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작은 불교 교양잡지 '풍경' 창간



쉽고 재미있는 불교잡지가 없는 가운데 불교적인 정서와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작은 교양잡지 〈풍경〉(발행인 이경한) 창간호가 나왔다.

월마다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는 이 잡지는, 주제마다 여는 글을 〈법구경〉, 〈아함경〉 등에서 뽑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창간호 테마는 처음-만남-동행-기쁨이다. 본문은 '생각 나무와 마음 나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생각 나무 편에서는 상식, 발명, 역사 등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관련 전문가들의 글을 싣고, 마음 나무 편에서는 독자들의 글을 비롯해 감동적이면서도 사색을 즐기게 하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주말에 읽는 꼭지에는 육아와 직장이야기를 담은 만화를 싣는다.

스님들의 행자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행자일기', 불교와 관련된 뜻있는 글과 그림이 있는 이야기 '생각의 쉼터', 속담으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속담 알기 과학알기', 음식으로 풀어보는 영화 이야기 '부엌에서 보는 영화' 등 모두 7편의 연재글도 있다.

현재 시중에서 〈좋은 생각〉 등 작은 교양잡지 10여 권이 있는데 불교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다가가는 잡지는 이번에 창간된 〈풍경〉이 유일하다. 값 2천원.

김중근 기자

윤회의 주체 아뢰야식의 비밀



'불교에서 본 마음과…'
현오 스님 지음

전생과 윤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흥미위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생과 윤회를 빼고 불교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 불교의 궁극 목표이기 때문이다. 신간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논장)은 마음을 불교의 교리로 설명하면서 윤회와 전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전생 체험은 아뢰야식에 있는 기억종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다. 즉 아뢰야식은 윤회의 주체로서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매일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 주는 마음이란 것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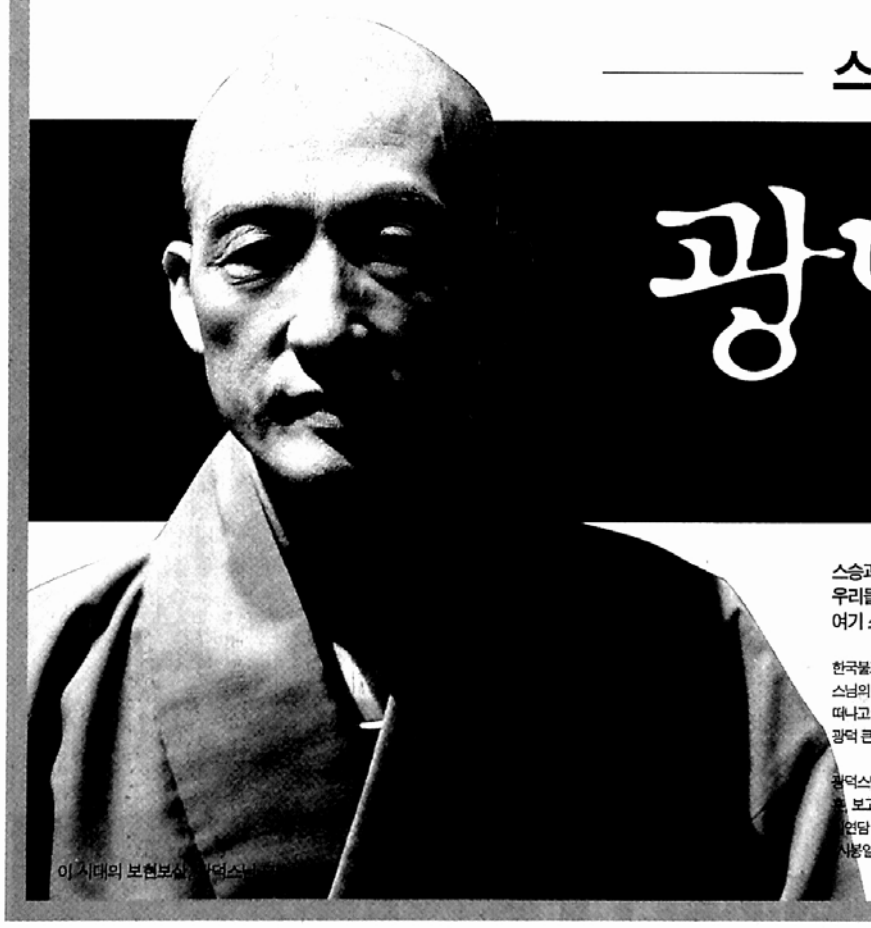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합미디어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 관	우 리
3	선방일기	지 허	디자인하우스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여시아문
5	도올에게 던진는 사자후	서 병 후	화 두
6	참회 참회 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트웹 닷컴
8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9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10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 심	현 암 사

도서 안내:(02)737-0695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불가의 전통적인 사제관계를 재조명!



광덕스님 시봉일기

1. 내일이면 늦으리 | 2. 징검다리

글 · 송암지원 / 신국판 양장제본 / 1권(387쪽) 10,000원 · 2권(622쪽) 15,000원

스승과 제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승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들에게 삶의 기둥이 되어줄 인생의 스승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일화를 통해 불가의 스승 섬김을 살펴본다.

한국불교의 기둥으로 우뚝 서 계셨던 광덕 큰스님!
스님의 향기와 자취는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맞는데 정작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고 아니 계신다. 그 안타까움을 가셔줄 책이 세간에 나와 다시금 광덕 큰스님을 우러러 보게 하는데…….

광덕스님의 상좌인 송암스님이 행자생활 때부터 스님을 모시면서 직접 받은 교훈, 보고 느낀 감명깊은 현장, 스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문답 등, 그때그때마다 한 꼭지씩 적어 두었던 생생한 현장일기를 시봉일기 1 · 2라는 책으로 엮어 우리 앞에 내어 놓았다.

불가의 사제간의 엄격하고도 지엄한 가르침을 바탕하여 사제간의 인간미 넘치는 애틋한 면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광덕 큰스님을 친견함과 아울러 잃어버린 스승의 의미를 되찾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평소 건강이 쇠약해진 스님을 위하여 '보폭을 크게 해서 양손을 흔들며 걷는 연습을 하면 기력이 회복되고 병도 치유된다.'는 기사를 보고 스님이 잘 다니시는 도량 안에 벽돌을 옮겨다 징검다리를 만든 상좌 송암스님은 스님을 안다시피 부축하여 밖으로 나와 징검다리를 놓은 뜻을 스님께 전한다.

물감이 맑고 부드러운 눈빛에 자비를 가득 머금고 상좌를 건너다보는 스님의 표정과 눈빛, 그 앞에만 서면 행복감과 더불어 힘이 솟고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상좌 송암스님.

이제 우리는 광덕스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상좌, 송암스님이 쓴 『시봉일기1 · 2』를 통해 보현보살이었던 광덕스님의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DOPIANSA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031)676-8700 · 팩스 (031)676-8704
이 책은 전국 유명서점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한국 도난문화재 38점 인터폴·FBI '화상수배'

국내 도난문화재 가운데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주요 문화재들이 인터폴과 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배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도난불교문화재 수사계획'을 전달했다. 경찰청 내 문화재 전문수사관 지정을 골자로 한 수사계획에서 이 청장은 주요 문화재와 고가 미술품에 대한 수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데이터 베이스 작업은 미술품 경매회사인 마이아트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색인화한다. 여기에는 유물의 사진과 함께 도난일시 및 장소, 제작연도, 원소유자, 재질과 기법, 특징 등의 항목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 자료를 인터폴과 미 연방수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난예술품 사이트와 연계하는 한편 영국 도난미술품 등록센터, 박물관 등 해외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세계에 유출된 국내 문화재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경찰청 마약지능계 김인욱 계장은 "지금 컨텐츠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찰청 7월 사이트 개설 국제 협조체제 구축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업 전에 이미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도난문화재 가운데 해외 수배가 필요한 문화재 11건 38점을 인터폴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배해 놓은 상태다. 김 경정은 "인터폴뿐만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 예술품 도난 사이트에 이들 문화재의 화상 정보를 올리기 위해 협의 중이다. 7월경에 이들 도난문화재의 화상정보가 전세계에 공개되면 국내 사이트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화상정보와 함께 국제적으로 수배할 11건 38점의 도난문화재 가운데는 송광사 16조사 진영 13점을 비롯해 불교문화재가 9건 34점을 차지한다.

△송광사 16조사 진영 13점= 조선 정조 4년(1780) 조성됐으며 보물 1043호로 지정돼 있다. 비단에 배접하여 채색한 것으로 1995년 1월 27일 진영이 봉안된 국사전 뒷면 흙벽을 뚫고 침입해 절취해 갔다. 16조사 진영 중 1세, 2세, 14세는 도난 당하지 않았다.

△옥천사 영산회상도= 경남 유형문화재 299호로 조선 영조 20년(1744) 조성됐다. 비단 위에 영산회상 장면을 원근감 있게 표현했다. 1997년 대웅전 정문의 문살 3곳을 파손한 뒤 경보음이 울리는 선을 자르고 침입했다.

△선암사 후불탱화 4점= 순천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석가모니후불도(1765년, 대웅전)와 삼불회도(1700년경, 응진전) 칠불도(1702년, 불조전) 화엄경변상도(1780년, 팔상전) 등 네 점으로 모두 비지정문화재다. 특히 화엄경변상도는 작품의 구도 및 색채, 선묘 등으로 볼 때 조선후기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갑사 나한상 8점= 1706년 조성된 것으로 16나한상 가운데 가락가 바리도아 존자상 등 8점. 모두 동물을 안고 있는 모습이며 문화재 지정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정혜사 관세음보살좌상= 1699년 조성된 것으로 1992년 도난당했다. 비지정문화재지만 얼굴과 신체의 비례감이 이상적인 수작이다.

△신흥사 관음보살도 2점= 1874년 조성됐으며 비지정문화재다.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던 것으로 두 점 모두 흑탱인데, 한 분은 서 있는 모습이며 다른 한 분은 앉아 있다. 1997년 도난당했다.

△석남사 대웅전 탱화 2점= 울산 석남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던 영산회상도(1736년 조성)와 지장보살도(1800년 조성). 비지정문화재며 1997년에 12월 도난당했다.

△용연사 탱화 2점= 대구 용연사 극락전에 봉안됐던 삼장보살도(1744년)와 영산회상도(18세기 전기)로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도난당했다. 둘 다 비지정문화재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97년 도난당한 석남사 영산회상도.



◇도난당한 송광사 16조사 진영 13점 중 8세 조사(자각도영 · 왼쪽)와 5세 조사(원오천영)진영.

'직지심경' 세계기록유산 '후보'

27일 청주서 유네스코 등재 심사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대상 후보에 올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27~29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 일기〉 등 22개국 39점의 문화재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여부를 심의한다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직지심체요절〉은 98년에도 청주시가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소유자(프랑스)와 신청자(한국)가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가 보류돼 왔다. 당시 프랑스와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프랑스측과 협의했지만 프랑스가 동의하지 않자 신청을 강행해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올랐다.

청주시의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업무를 맡았던 청주고인쇄박물관 측은 "금속인쇄술은 지난 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것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기록유산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각국의 기록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사는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29일 나온다. 세계기록유산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등재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확정 · 발표하게 된다. 1455년 경 인쇄돼 〈직지심체요절〉보다 78년 늦게 나온 금속활자본인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도 이번에 심사대상 후보에 올랐다.

권형진 기자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대상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직지심경의 목판본(보물 1132호).

'일제하 불교' 논문 잇단 발표

한동민 씨 '화엄사 본산 승격'
김순석 씨 '대한승려련 선언서'
최병헌 씨 '일제침략과 불교'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근대 불교사를 다룬 논문들이 학술대회에서 잇달아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서굉일)가 개최한 '한국 근대 민족운동과 종교' 학술발표회는 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 불교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동민 중앙대 강사는 '일제 강점기 화엄사의 본산승격운동' 주제발표에서 "화엄사 본산 승격운동은 일제의 사찰령 체제에서 30본산이라는 고정적 틀을 깨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본산 중심적인 틀을 고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씨는 임제종 운동의 동지였던 김학산을 화엄사 승려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폭행, 치사케 한 사건은 일제가 의도한 대로 조선불교계가 분열된 채 본산 이기주의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불교계의 3 · 1운동과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를 통해 불교계의 3 · 1운동에 관해 발표한 김순석 고려대 강사는 "불교계의 3 · 1운동 참여는 천도교나 기독교 세력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했고 교단지도부의 인식 또한 부정적이었으나 1919년 11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서는 불교계가 전개한 3 · 1운동의 의의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6일 '일제의 한국침략과 종교'를 다룬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 학술회의에서는 불교를 앞세운 일제의 침략과 한국 불교계의 대응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병헌 서울대 교수는 '일제의 침략과 불교' 주제 발표를 통해 "당시 한국 승려들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정체나 일본불교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당시 한국 승려 대부분이 사찰령과 본말사제 시행을 불교발전과 중흥의 계기로 인식했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회암사 선각왕사비 복원 성공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의 복원과정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는 97년 산불로 보호각이 불타면서 충격을 받아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파괴됐다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최근 복원에 성공했다. 이번 보고서는 석조문화재가 화재로 파손됐다가 복원된 예가 없어 앞으로의 석조문화재 복원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선각왕사비의 파손상태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습과정, 보존처리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함께 '선각왕사비의 암석학적 및 물리화학적 특성과 변화연구' '양식적 고찰' '나옹의 생애와 사상'을 실었다.

권형진 기자

日 인도불교학회 창립 50년 학술대회 국내학자 10명 참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도쿄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250여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다. 10개 분과로 나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각국의 불교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중관, 유식, 여래장, 정토 등 교학분야와 응용불교 분야까지 아우른다.

우리 나라 불교학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로 활동중인 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대회와 함께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도쿄대 종합도서관에서 열리는 도쿄대 소장 불교관계 귀중서전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인도 티베트 일본 중국의 경전 사본과 간본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29일 도쿄대학사료편찬소 2층 대회의실에서는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관계중요사료전시회가 2시간 30분 동안 한정적으로 열린다.

1951년 도쿄대 인도철학과에서 시작된 인도학불교학회는 전 세계 불교학자 4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마음 고운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3천 3백 3십 3배
(제 5회 철야 특별 기도 정진)
상근기도 못되면서 신심도 없으면서 자력수행 하는 것은
험난한 망망대해를 헤엄치며 건너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으니
3333배 금강의 배를 타고
9999회 감사의 노를 저어
제 7 말라야식인 에고의 업장을 깨버리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한 대자유 부처님 참마음으로 가봅시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며 절을 5AA만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동안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을 2시간만 배우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108배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3333배 정진에 도전하십시오. 7~80세 노인도 어린이도 끝까지 정진한 불자가 많으며 설악산 봉정암을 하루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생깁니다.
* 가슴이 열리고 단전히 뚫리고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일 시 2001. 6. 30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7시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nsan/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생

과정(대상)	프로그램명	개강일(인원)	교육일시	수 강 료	교 육 내 용
사업주위탁훈련과정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재직자)	케어복지사 2급 교육과정	7. 9(월) (각 50명)	월, 수, 금 오전10:00~12:30 오후 7:00~9:30	총 4개월 (월 수강료 10만원, 교재비포함) ※ 회원가입비 20,000원별도	사회복지개론, 정신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 케어기술, 노인복지론, 케어복지개론, 작업치료, 정신건강, 기본간호, 상담심리, 임종케어, 응급처치론, 치매노인케어실習 등
일반교육 (수강료 본인부담)	병원친절 코디네이터	7. 10(화) (40명)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총 2개월 (월 수강료 7만원)	인사예절, 의료인의 이미지 메이킹, 대화예절, 올바른언어사용, 전화예절 등
	발건강 관리사 (foot health care)	7. 9(월) (각 50명)	매주 월, 목 오전10:00~12:30 오후 7:00~9:30	총 3개월 (월 수강료 10만원)	발 건강교실의 개론과 역사(history), 리플렉스(reflex)와 발반사구, 순방요법의 원리(-기초실습함-), 순환의 원리, 여론 발톱관리 체더류어 등
	카운슬러 기본	7. 11(수) (40명)	매주 수, 금 오후 7:00~9:30	3개월 : 45만원 (2회분납 가능)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성격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사회심리, 상담기법, 정신위생, 심리검사, 상담실습, 감수성훈련이론 등
	카운슬러 전문	8월 개강 예정	미 정	3개월 : 45만원 (2회분납 가능)	

■ 수강신청안내
1. 특전
- 케어복지사 2급과정 : · 사단법인 인증 케어복지사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 한국케어복지협회인증 케어복지사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시험 합격자는 실습 40시간 완료후 자격증 발급
· 본원 출신 케어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직취업 적극추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재직자훈련과정을 위탁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는 수강료의 80%정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친절코디네이터: · 수강생중 강의 희망자는 평가에 의하여 강의할 수 있음
· 수강일정은 토요일 오후로 변경 가능 함
- 발건강관리사(foot health care): 발건강관리사 자격증 수여 (한독민간자격협회)
〈중국연수계획〉 * 중국위생부 예방의학회 고시합격자 동시 졸(결)업증 취득수강생중
- 카운슬러 (기본 · 전문): · 법인 공인 카운슬러 자격증 수여
2. 교 육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20-3 한독중앙빌딩 5층
(지하철 / 종각역 1번 출구, 한일관 옆)
3. 문 의 사 항 ☎ : (02) 733 - 7731, 7732 / 팩스 : (02) 733- 7736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

지리산 자락 신비의 참 다슬기 생방송
당신의 간 걱정되시죠?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헹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전국무료전화 : 080-521-6666

"종이에 떡 그릴터이니 먹어 보시겠소"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㊲

(36) 신광(新光)대사

겨울이 오고 여름이 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일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날도 해는 어김없이 서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달마는 석굴에서 면벽좌선을 끝내고 평소대로 굴 밖으로 나왔다. 잠시 권법연습을 했다. 달마가 연습한 권법은 이른바 소림무술의 원류(原流)를 이루는 것이다.

달마는 소림사에 있는 동안 독특한 심의권(心意拳)을 가르쳤다. 이것은 발타 대사가 펼친 천축의 무공에 의성(醫聖) 화타(華陀)가 창안한 오금희(五禽戱)의 도인법(導引法)을 가미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심의권의 특징은 주먹 쓰기보다 마음 쓰기가 우선한다는 데 있다.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게 심의권의 요체이다.

심의권의 기본은 달마가 저술한 관심론(觀心論)과 역근경(易筋經), 세수경(洗髓經)에 자세히 쓰여 있다. 물론 세수경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의 전모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나라 때 출간된 '세수경부역근경(洗髓經付易筋經)' 이란 책을 보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법제자 다시 만날 장소

달마는 권법연마에 이어 경공(輕功)을 연습했다. 절벽을 평지처럼 달리는가 싶더니 나무 사이를 새처럼 날았다. 달마가 일찍이 양자강 물 위를 걸어서 도강한 것도 물론 경공을 펼쳤기 때문이다. 거의 한 시간 가량 연습에 몰두하고 나자 달마의 온몸은 마치 비에 젖은 것처럼 땀으로 흥건했다. 달마는 동굴 위로 뛰어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했다.

하늘 끝에 매달린 그윽하고 우아한 저녁노을이 달마를 감싸안았다. 석양이 산 아래로 침몰한 뒤에도 여전히 달마의 몸에선 노을빛이 은은하게 발산되었다.

옛글에, 명산(名山)이란 그 높이 때문에 불려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신선이나 참도인이 머무는 곳이 명산이라는 이야기다. 다찬가지로 물도 그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이 있으면 곧 신령한 곳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화룡동굴 역시 달마가 면벽좌선함으로써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달마가 옛 인연을 좇아 찾은 것이 바로 이곳 치우동굴이지만 사람들은 고사(故事)는 까마득하게 잊은 채 사람들은 달마의 존재 자체만을 입에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달마동굴' 이라고 고쳐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달마는 산천이 어둠에 파묻히는 경관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엔 어둠과 경치의 조화조차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비쳐졌다. 그는 이곳이 선종을 번창시킬 땅이 되기에 손상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신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웬일인지 달마의 입에선 한탄의 신음소리가 간단없이 흘러 나왔다. 왜 그랬을까? 거기엔 분명 까닭이 있었다. 달마는 스스로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수행은 원만에 도달했지만 머지않아 원적(圓寂)하는 그 날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조사의 조위(祖位)를 계승하게 하여 선종의 정법을 널리 펴게 할 것인가? 달마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승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제였다.

>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 경전 속에 있소"**
> **"글씨에 무슨 영험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제대로 법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법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법만으로 전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전법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심지어는 선(禪)이라는 글자만 하더라도 단(單)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示)이라는 함의(含意)를 지닌다고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다. 물론 선이란 선나(禪那)의 준말로 천축말인 범어의 '디야(dhyāna)'의 음역이지만 한자의 뜻풀이가 정곡을 찌르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만 법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방법론으로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많은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로는 흔히 석가모니 부처가 선택한 가섭 존자가 손꼽힌다. 후자의 경우는 반야다라 존자가 달마에게 전법한 것을 전형으로 삼는다. 물론 달마의 전법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달마의 전법은 제자를 찾아 수만리 길을 떠난 사례의 극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문즉답 잠시 멈췄다

달마는 한 사람의 법제자에게 하나(一)의 진법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생명조차 내던지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달마가 참스승인 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리고 박대했다. 달마는 그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웠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어찔 수는 없었다. 달마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곳 화룡동굴이 바로 그 제자와 다시 만날 장소라고 굳게 믿었다.

달마는 더 이상 산야에 깔리는 어둠의 광경을 관상하고 싶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뱉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좌선하면 돌바닥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의 망막엔 그가 점찍었던 제자와 처음으로 만났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달마가 신광(神光) 대사를 처음 만난 것은 낙양의 향산사(香山寺)에서였다. 신광 대사는 그곳에서 무려 49년 동안이나 만권 경전을 설법함으로써 천하에 이름을 드날리던 고승이었다.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에 대한 추앙도 대단했다.

달마는 물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의 설법을 들으려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작자 미상(종이에 수묵, 조선 말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 해인사 퇴설당 소장).

과연 신광의 설법은 소문대로 훌륭했다. 그의 설법은 사람들을 휘어잡고도 남았다. 마치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꽃가루가 내리고 땅에서 무궁한 조화가 일어나기라도 하듯, 옥구슬을 굴리듯 하는 그의 말에 모두가 감복했다.

달마는 마음 속으로 기뻐했다. 그가 점찍은 사람이 그토록 출중하다는 사실에 절로 입가에서 웃음이 배어 나왔다. 설법이 끝난 뒤에도 달마는 웃음 띤 얼굴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것을 놓칠 신광이 아니었다. 신광 대사는 눈앞에 있는 이채로운 늙은 승려에게 신경이 쓰였다. 짙은 구레나룻에 왕방울 눈을 하고 있는 시커먼 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게다가 설법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앉은 채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광은 언짢은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물었다.

"노승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달마가 웃음을 거두고 대답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왔소이다."

그 소리에 신광이 언성을 높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왔다고요? 나는 여태까지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소이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 태생이요?"

신광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대단했다. 수많은 신도들의 이름을 모조리 기억했다가 불러주는 그런 스님이었다. 그런 신광 앞에서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달마는 아랑곳 않고 알 듯 말 듯한 말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렇소이다. 이곳은 오늘이 처음이외다. 그 동안 바쁜 틈을 낼 수가 없어서 오지 못했소이다.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 영약(靈藥)을 채취하고 어떤 때는 바다에 들어가 진보(珍寶)를 채취했소이다. 게다가 일좌(一座)의 무봉탑(無逢塔)을 수리하여 조성하고 있소이다. 아직 공과(功果)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오늘은 틈을 내어 이곳에 온 것이외다. 대사의 높고 깊은 경문의 강설을 듣고 싶소이다."

신광은 달마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런 의심없이 늙은 중이 경전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만 여겼다. 신광은 직접 강설을 듣고 싶다는 말에 오히려 흡족한 표정을 짓기까지 했다. 서둘러 경전을 꺼내 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달마는 근엄한 태도로 아무 소리 없이 신광의 설명을 들었다.

신광의 설법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달마는 팔짱을 낀 채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려 질문을 던졌다.

"대사가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에 신광은 충격을 받았다. 경전풀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무슨 중이냐 싶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한 것은 바로 법이오!"

달마가 물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광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법은 바로 이 경전 속에 있소."

달마가 다시 물었다.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가 아니오이까? 도대체 법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신광은 그래도 모르겠느냐는 듯이 힘주어 말했다.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에 정법이 있는 것이오."

달마는 말을 받아 속사포처럼 질문을 퍼부었다.

"글자로 쓰여진 법문에 무슨 영험(靈驗)이라도 있소이까?"

신광이 마치 핀잔하듯 대답했다.

"사람이 낳고 죽는 것, 나아가서 생명을 해탈시키는 법력이 글자 속에 담겨있는 것도 모르시오?"

달마는 즉문즉답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곤 신광에게 종이와 붓과 먹을 청했다. 신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좌승에게 대령케 했다.

새파래진 신광의 얼굴

달마는 종이를 펴고 붓에 먹을 듬뿍 묻힌 다음 말했다.

"대사가 말하기를 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여 있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생사윤회에서 구하는 효험이 있다고 하였소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종이 위에 맛있는 떡을 그려 넣을 터이니 그것을 먹어 보도록 하면 어떻겠소이까?"

신광은 달마의 말을 미친 소리로 치부하듯 대답했다.

"종이 위에 그린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실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그렇다고 물러설 달마가 아니었다.

"만약 종이 위에 그린 떡을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종이 위에 쓰여진 불법으로 사람을 생사에서 구하고 윤회를 해탈시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 떡을 먹지 못하면 대사가 설법한 것도 무익한 것일 뿐이오. 그런 경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리 주시오. 불에 태워 버립시다."

신광의 얼굴은 노기로 새파래졌다. 언성을 높여 달마를 꾸짖었다.

"나는 경전을 강설하고 설법하여 수많은 사람을 제도했다. 그것을 무익하다고 말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어찌하여 불법을 그토록 가볍게 천시하는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가?"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희소식!!!

중풍! 치매!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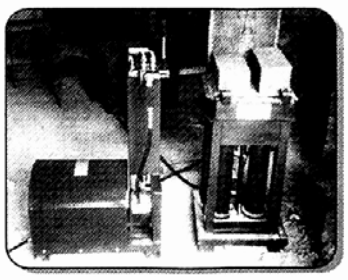

■ 병원 전경
■ 병원 내부 복도
■ 환자 치료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종립학교를 가다

(3) 청담중 · 정보통신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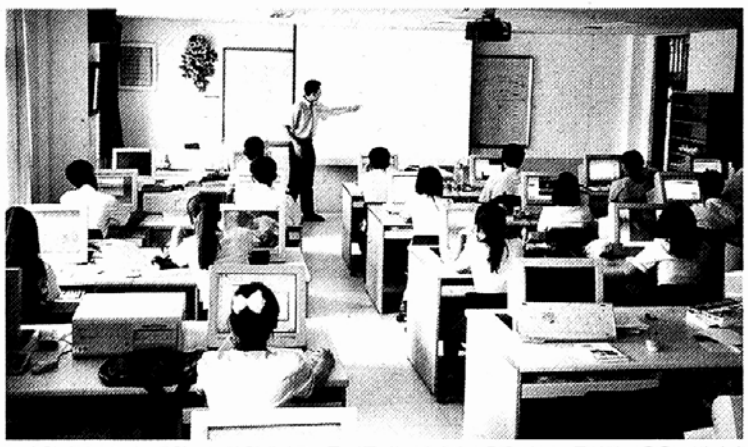
21세기 정보화 교육의 요람을 지향하고 있는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청담중학교와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청담 학원은 교육불사를 통한 인재 양성만이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혜성스님(도선사 회주)이 20여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설립됐다. 특히 4~5개의 본말사가 연합해 설립된 대다수의 종립학교들과는 달리 청담학원은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사찰인 도선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종립학교다.

한국의 빌게이츠 키우는 'IT 명문'

1970년 팽성중학교로 인가 받아 첫 출발을 한 청담학원은 75년 청담상업고등학교의 개교 이래 현재까지 우수한 실업인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99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정보통신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받아 실력있는 IT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지역의 사학 명문으로 발돋움했다. 2만여평의 부지에 둥지를 튼 청담학원은 현 이사장인 광복스님(도선사 주지)과 명예 이사장인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학생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특성화 교육지향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전문인 양성 △국가 사회 발전에 힘쓰는 애국인 양성 △불타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 등의 교육 목표를 정해 인재 양성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도선사 혜성 스님 설립
교육부 특성화교 지정

현재 각 학년이 네트워크 디자인과를 비롯해 전자상거래과,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등 4개과에 걸쳐 9학급으로 구성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에는 9백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또 한 명의 학생당 초고속 PC를 1개씩 사용할 정도로 전국 정보통신고교 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청담은 교실 자체가 웬만한 대학 못지 않은 웹 디자인실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자 상거래과를 신설해 특성화 학교로서의 내실을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의 첨단화와 더불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60명의 우수한 교사진들이 함께 조화를 이뤄 도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의 각종 컴퓨터 경진대회에 상위 입상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 교육청이 주최한 학교교육계획서 심사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것도 청담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한 학생당 1PC를 지급하는 최적의 교육 환경으로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며 우수한 IT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도량이다. 사진은 네트워크 디자인과 학생들의 수업 장면.

개교 당시부터 1년에 한 번 대강당에서 수계법회를 열어 해마다 4백명의 학생들에게 참불자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 청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포교 불사다. 또 청담은 검인정 종교교과서가 나오기 전인 80년대 초까지 설립자인 혜성 스님이 매년 자비, 정진, 광명, 정각, 지혜와 같은 5종의 불교 교재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르치는 등 불교 교육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찬불가 교재도 편찬해 음악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교내 찬불가 대회를 열어 청보리들에게 불음을 통해 법음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의 심성교육이외에도 청담은 취타대, 복싱부, 태권도부, 네트워크디자인과 프로그램 동아리 등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특기 · 적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중 40여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취타대는 매년 조계사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물론 2002

2년연속 최우수 선정
독자교재로 불교 교육

년 서울 월드컵 개막식 행사에 초청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총 9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는 청담중학교는 35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예능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은 청담중학교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이번 사생대회에서도 10여명의 학생들이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냈다. 또 정길자 선생님(과학교사)이 20여년간 여름방학때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주일 · 김두식 기자



◇상원사 주지 정념 스님이 범종각 앞에서 참가자들에게 상원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궁서 108배 … 구도심 열기

본사 6월 3사순례 1백여명 참가

"월정사 적광전에는 교리로 따져보면 의당 계셔야 할 비로자나불 대신 석굴암 대불과 같은 석가여래가 모셔진게 다른 사찰과 다릅니다. 또 이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성지이기도 하지요."

17일 오전 10시 무량수전에서 월정사 포교국장 선우스님은 월정사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했다. 윤사월을 맞아 기도순례차 현대불교가 주최하는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1백여명의 참가자들은 스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경청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문수동자 복장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성보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정사 경내 관람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상원사로 이동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상원사에 도착하자마자 도보로 40분 정도 걸리는 적멸보궁에 올라가 108배 기도 정진을 했다.

적멸보궁을 처음 올라가봤다는 청정심보살(73)은 "가파른 길을 올라갈땐 힘이 들어 망설였지만 올라가 108배까지 하고 나니 환희심을 느낀다"며 "이렇게 힘든길을 생전에 다시 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좋아했다. 돌아오는길에는 구산선문의 중심도량이었던 사자산 적멸보궁도 참배했다. 김주일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 · 낙산사 · 등명 낙가사 · 정동진역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시원한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등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과 의상대사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홍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염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니다.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5만5천원(조식 ·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자율 바탕 창의적 인간 육성"

정보통신고 이근우 교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분야는 오직 정보통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첨단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자는게 청담의 교육 지표입니다."

이근우 청담정보통신고 교장은 이 학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산증인이자 청담인의 대부격이다. 이 교장은 설립당시부터 재단일과 학교의 교무 과장 등을 역임하며 청담이 무럭무럭 커나가는데 산파 역할을 해왔다. 이후 95년부터는 교장으로 부임해 직접 발로 뛰며 IT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가 하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오늘의 청담정보통신고를 일궈낸 일등공신이다.

신문과 잡지, 경전 등에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글귀를 발견하면 즉시 복사해 교사와 선생님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열성적인 이 교장은 "흡연과 음주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자율성을 보장해 학생들이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의 꿈은 앞으로 청담정보통신고에서 제2의 빌게이츠와 같은 우수한 IT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법당에만 가면 '고민 안녕'

교법사실에서 백미나 교법사



"학생들이 언제든지 법당에 찾아와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95년에 부임한 백 법사는 법당을 찾아온 학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며 친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고민을 들어줘 매일 상담을 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50여명의 불교학생회원들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백 법사는 각종 불교행사는 물론 학생 상담과 수업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신지식인 김성진 군

유해사이트 차단 S/W 배포



청담에는 신지식인이 있다. 스스로 컴퓨터에 미쳤다는 김성진군(청담고 2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군은 동아일보와 건국대가 주최한 컴퓨터 경진대회를 비롯해 배재대, 경북대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문가다. 지난 3월부터는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봤을때 부모님들이 "뭐야?"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모야(moya)' 라고 이름 붙인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8만여개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주고 접속한 사이트를 저장해 준다.

"품앗이로 자비펴요"

청담자원봉사센터

청담정보통신고가 3월 평택시의 후원으로 문을 연 '청담자원봉사센터' 는 지역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자원봉사 실천학교다. 청담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 봉사단인 '품앗이' 도 결성해 지역 청소년 50여명이 복지시설 청소, 팽성지역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 10월에는 자원봉사 실천 사례 발표, 자원봉사에 관련된 영상물, 포스터, 홈페이지 등을 공모 시상하는 '청담 자원(자비) 봉사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담자원봉사센터에서는 중고생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있는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031)691-8095



◇청담자원봉사센터의 모심기 봉사.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불교를 만나는 알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제삼자 믿지 말고 자불 믿으세요

오늘 덥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아주 시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듣기 싫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마음이 인생을 중요하게 끌고 간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사람이 살기가 무척 어려웠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모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사는데, 그나마 그냥 먹고살게 내버려 두면 좋으련만 마적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바탕씩 끌어가면은 도무지 살길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관하기를 마적들이 오지 않아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용왕님한테 만날 빌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배가 그냥 둥실둥실 집 앞으로 떠내려 오는 것입니다. 빈배가 말입니다. 빈배가 오는데, 빈배가 저렇게 온다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배를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떡 누워서 계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배에서 내려 하는 소리가 "나는 소금밖에 못 만드는 사람인데 소금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노인네가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됐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소금이 없으면 살기 힘드는 일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소금을 하도록 허가를 내줬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그 언덕 너머에다가 부처님 한 분을 모셔다 놓고는 목탁을 치면서 염불을 하시더랍니다.

한마음이 인생 이끌어

그런데 어느 날 마적들이 그냥 떼로 몰려 왔더랍니다. 떼로 몰려 와서 소금장수 할아버지한테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깐 소금장수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정 저거 하거들랑 소금이나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소금을 그냥 한 아름 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마적 떼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말거나 그냥 염불을 하고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는 마적들이 하는 얘기가 "참,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그러나?" 하면서 총을 빼 들고 야단들을 하는데도 총을 빼 들거나 말거나 그냥 염불만 하고 있다가 염불이 끝나기 전에 그냥, 총이라도 맞아서 넌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적 다섯 명이 총을 쏘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총을 쏘는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렸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학생들이 물으니깐, 그 이름을 잊어 버렸으니깐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스님이 도를 이루시는 소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고서는 그 총 쏜 사람들은 전부 그 스님의 시자가 돼서 큰스님이 되고 그러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단 얘깁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건만 그곳의 마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셔서 그렇게 장난을 하셔도 아주 멋지게 장난을 하시고 잘 해결을 하고 소금을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하고 또 그 마적들은 시자가 돼서 중국으로 오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 애쓰고 살면서 애들도 기르고 어른도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데 한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본래부터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아주 쉬운 거죠. 생각하기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이라고 해서 자기 생일로 알지 말라고요. 내 생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고생하신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가 모두 그렇습니다.

> **미련하지도 말고 악하지도 말고**
> **마음 씀씀이대로 경우맞게 살면**
> **자식들까지 대대로 잘 살수 있어**

스님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공부를 하러 가시는 데도 너무 뜨겁고 굶으면서 가다보니깐 쓰러져서 죽는 분도 계시고 쓰러져서 정말 허우적거리다가 남이 소금을 타서 좀 주면은 그걸 먹고 살아나고, 쌈지에다 소금을 좀 싸서 허리춤에 매고 길을 떠나곤 했답니다. 그러니 그것도 한 주먹의 소금이지만 태산같이 알고 거기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장육부를 다 적시기 위해서 내부의 모든 생명들하고 더불어 같이 하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결정을 짓고 떠나고 이렇게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가 이 날까지 살면서 한마음을 잘 쓰면 여유있게 살 수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가, 나는 팔자가 어째서 이럴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로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깐 지금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소리를 가끔 하지만은 짐승이 차에 치어서 동강이 나서 버려진 거를 통에다 담아서 모래바닥에 묻어주었습니다. 묻어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묻어준 그 짐승이 훨훨 날아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집 구렁이로 여러 해를 살다가 아마 차에 치여서 그렇게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깐 그 구렁이가 생각을 하기를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모습을 벗고 보살로 화현을 해 가지고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목이지, 광목이 하늘로, 그냥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조금도 어김이 없이 미련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그저 마음 씀씀이대로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끔 살면 아주 유유히 자식들도 대대로 내려가면서 잘 살 수 있느니라.' 그러고 했답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거짓인 줄 알지 마시고 아주 침저히 느껴보세요. 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신모들은 간곡히 몇 번 정성을 올리는데 그 분들이 올리는 걸 가만히 보고, 이건 꼭 해야지 하는 생각이 귀정이 지어져야 그 분들이 펴지나 봅니다. 그러니깐 어느 정도 마음이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돌아가면 급한 대로 또 사정이 급한 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달렸습니다. 모든 일이 말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자면 많고도 많지만은 질문 할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먼저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큰 도량을 만들어 주신 스님, 그리고 선원의 모든 도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봄사를 하고 나니 저희 울산지원이 성지순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두 사찰에서 다녀갔습니다. 이에 더욱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집 보살과 아이들이 선원과 인연이 된 지가 4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집 보살이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저는 선원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만 더 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보살과 저는 간혹 아이들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아이들이 무사히 진학을 하게 되고,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빠를 이해하는 큰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고 마음공부가 괜찮구나! 정말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나온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귀찮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로 잡고 열심히 정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떠올려 봤습니다. 늘 제 가슴에 스승님의 화살을 하나 팍 꽂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잡념이 나오지 않고 일심으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사르잡을 수 있도록 가르침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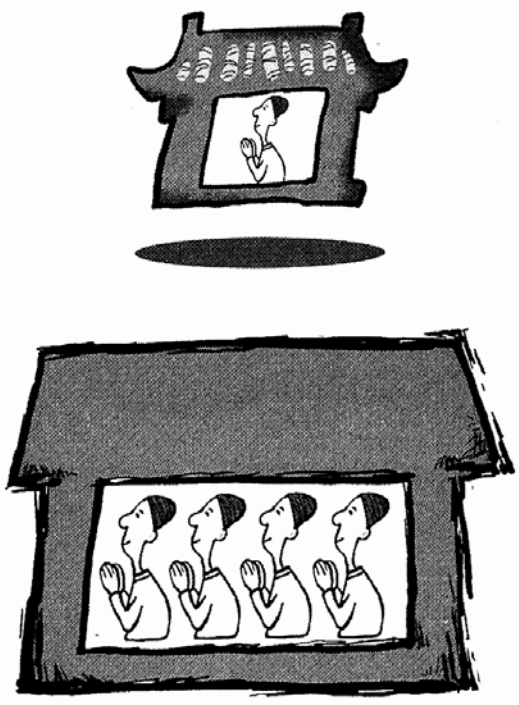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천도재에 관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천도재에 대한 내용으로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기재사를 지낼 때에 조상님의 기재사를 정성껏 모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도재를 지낸다는 것이 꼭 도량에서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재사를 정성껏 지내는 것과 도량에서 지내는 것의 그 차이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천도재때 정성 지극히

▲스님: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봅니까? 아니죠? 법정에서 결정을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법정이 들어서서 돌보고 한다는 겁니다. 결정을 짓는다는 얘깁니다.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공부를 해왔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또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하는 거를 보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보아서 잘 살았으면 저절로 잘 되게 하고 즉 말하자면 법원에서 임명장을 주어서 내 보내는 거구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보살들이나 부처님들이 다들 돌보아서 부모가 착하고 자식이 착하고 정성이 지극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는 거와 절에 와서 천도재를 지내는 건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질문자1: 스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의 그 마음을 내는 것과 도량에서 스님들이 마음을 내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스님: 아니죠. 자손들이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집에서 지낸다 해도 갸륵하겠지만 천도재를 절에서 지낼 때는 더 한층 생각을 내시겠죠. 그러면서도 돈이 들어도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없이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원인은 그냥 그렇게 해도 거저가 없단 얘기예요. 에누리가 없단 얘기입니다. 들이면 들이는 대로 그 들이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죽어서 사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살아서 사는 세상의 법칙이 있듯이 법칙대로 어떻게 살았나? 너는 이 생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나를 다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서 다 잘 되게 하는 분은 잘되게 재생을 하시게 하고, 또 너무 안 좋게 돌아가셨거나 너무 처참하게 문제가 됐을 때는 돌봐 주시고 그런 거를 다 없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깐 잘 된 거면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한 거는 잘 마련을 해서 잘 되겠끔 해드리죠.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빼내 주는 형국이다 이 얘기죠. 안 들어간 분은 안 들어간 분대로 잘 하게 하시고 들어간 분들은 들어간 분대로 그렇게 빼내 주는 이치가 되는 거죠.

▲질문자1: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아직까지 초보자라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믿음이 절실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직장을 마치고 선원에 가서 법회를 본다거나 하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올라오는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싫다는 마음이 생길 때는 가지 않는 것도 좋아요. 하하하…. (대중 웃음) 싫을 때는 가지 마시고 아주 좋을 때만 가세요. 싫을 때는 아무리 가봐도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깐 좋을 때, 항상 좋을 때만 하세요. 그리고 또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또 모두 나가서 일하는데 살아 나가는 데의 걸음걸이, 모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관하는 거는 내 보디가드가 항상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음도 싫음도 놓는 도리

예를 들어서 정신계의 자기, 물질계의 자기 모습. 모습은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거를 담당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정신계의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믿고 너만이 모든 일에 대해서 평등하게 보살필 수 있고, 너만이 우리 식구를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는 할 수 있고, 너만이 애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염원을 해서 딱 맡겨 놓아야죠. 집을 맡기고 어딜 가더라도 집을 잘 지켜 달라고 하고 가고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거든요. 자기 환생, 자기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 모습이 모습 없는 자기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가세요. 모습 있는 물질계의 자기가 모습 없는 자기한테 진짜로 맡기고 믿는 다는 거요. 그러면 어디를 가기 싫을 것도 좋을 것도 없이 갔다가 오는 게 좋다 생각이 들 때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뭐.

▲질문자1: 오늘 법문이 제 가슴에 탁 꽂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스님의 오늘 법문 저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요즘에는 여러분한테 말을 잘 못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자2: 지난 4월 22일 우리 지원의 점안 및 준공 법회에 오셔서 마음을 많이 내주신 스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원을 비롯한 전국지원의 도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장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달 전쯤에 저의 꿈에 스님께서 지원의 두 스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지극 정성을 다 하여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친견하여 가르침을 받게 될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제 자신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편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서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

☞ 20면으로 계속

기쁘든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한생각 잘 쓰면 여유있게 살수 있어

☞ 19면에서 계속

에 서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여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보는 눈 높이처럼 상대 경계가 와 있음에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마음을 내기보다는 무관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계에 부닥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알아서 해!, 너만이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고 있지만 때로는 나를 앞세운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무심으로보다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조차도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란 바람 같은 것

스님, 마음공부 하기 이전에는 주인공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생각 뿐 경계에 부딪쳐도 부딪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만은 편했던 것 같았는데, 이때 편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마음공부를 배우고 있는 지금 근본 뿌리를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안될 때는 안 되는 것도 법이라 배우면서도 탁 놓지를 못하고 끄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불쑥불쑥 강한 분별심이 작용하여 사량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마음공부 이전보다 분별심이 더욱 생기는 것은 왜 그런지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님: 무관심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없이 산다고 해서 다 착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 할 지라도 생각을 하면서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립니다. 생각을 하되 함이 없이 생각해라.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24시간을 일을 하고 살아도 함이 없이 한 것입니다. 삶이 없이 산 것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매양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것도 고정됨이 없고 공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결 와서 휙 날라 가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공해서 삶이 없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시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 저런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의 발전력을 계기로 삼기 위해서 생긴 거지, 한 가정에서도 발전을 해야만이 살아도 아주 유유히 가게 되고 좋지 않습니까? 발전이 안 되면은 항상 편하지 않게 지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사회자: 오늘 질문 다 끝났습니다

▲스님: 그렇게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나가는 게 전부 질문일텐데요.

▲사회자: 질문이 있으면 다음 법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하하하…. 다음 법회 때요, 한 발짝 떼어나 보세요. 한 발짝 떼어놓고 한 발짝 떼어놔도 떼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책을 갔다가 쪽- 다녀서 나오면서 내 소리 좀 보세요. 여지껏 돌아왔어도 돌아온 사이가 없구나! 다리 심부름만 시킨 게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마힐 거사나 부설거사 같은 분들은 노비 좀 달라고 가면 쫓아 보냈대요. 안 줬대요. 네가 뺑뺑 앉아서 돌아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어디를 다니려고 노비를 구하느냐고 하면서 쫓아 보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충분해야 살기가 유유하단 얘기죠.

그러니깐 그것이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한 발짝 내 놓았으면 한 발짝 들여놓아야 그 투지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야 함이 없이 걸음걸이 없이 걸었단 얘기죠. 이거 알고 보면 참 묘합니다. 왜 옛날에 매일 하던 말도 잊어버립니까? 하하하. 왜 하던 말도 자꾸 잊어버려서 이렇죠.

가는 사이 없이 가는 거를 말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하하하. 그런데 스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깐, 갔다오셨는데 갔다오신 줄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깐 "이놈아! 너같이 게을러 빠져서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느냐?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네 눈에는 보이질 않았던 모양이지." 하더랍니다. 아! 참 그걸 축지법이라 그러지. 하하하.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니까 눈이 육안으로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더 넓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깐 그냥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깐 가고 오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깐 "난 금방 갔다왔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니 거 말이 되느냐? 너 눈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깐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손을 갔다 들이대니까 "손 들이대지 말고 너의 내면을 길러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스스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서 자기가 자기를 빠지지 않게 이끌어 가거든요. 또 지혜도 그렇구요.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깐 이 도리를 꼭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각기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각기들 모두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제3자가 살아 줄 리도 없습니다. 제3자가 깨우쳐 줄 리도 없습니다. 제3자가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3자가 자기 눈을 심안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자기를 법안으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불안으로 이끌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믿지 마시고 자기 자불만 믿으세요. 즉 말하자면 불성 말입니다.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붙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와 자기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존대를 붙이지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자기와 지금 자기가 만나는 거를 견성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고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늘을 보고 크게 웃다가 땅을 치고 울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려고 하니깐 악수를 하면 나는 손이 있지만 그대에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손하고 없는 손하고 한데 합치니깐 하나, 즉 자기 손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손이니까 자기 다리를 치면서 "너 참 착하다." "넌 참 착해." 하는 얘기가 경전에도 있듯이 '착하구나 착해' 하면서 손바닥을 쳤다는 얘깁니다.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하고
마음대로 되니 걱정없어

그래서 산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때에 따라선 어느 분이 귀신이고 어느 분이 산 분인지 갈팡질팡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전엔 안 그렇더니 요즘 죽었나 살았나 하하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걸 알고 산걸 알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은 사람도 친구이고 산사람도 친구이고 그러니깐 조금도, 또 제일 좋은 게 한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내가 그걸 지내보니까 알겠습디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아예 그냥 나를 못 생기게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후에 생각을 하니까, 요즘 생각을 하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그 틈에 끼려고 해도 좀 죄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깐요,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고 마음대로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 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죠. 옷을 찾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어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옷이라야 되죠. 또 그러고 그거는 재생 길을, 재생 길을 다시 나와서 또 하는 거를 말하는데 재생을 하기보다는 재생을 안 하고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벌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그냥 화해서 쓰는 거예요. 화해서 말입니다. 어디를 가다가도 화해서 건지겠으면 화해서 건지고 다시금 변경을 하고 화해서 건지는 겁니다. 아주 이름 가진 사람도 화해서, 또 화하게 해주고 비켜나고 그거는 표를 안 달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세상엔 이해가 많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않는 법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하도 집에서 살기가 어렵고 귀찮으니까 산에 올라갔더랍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나 할까 하고 절을 찾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산 길이 험하니깐 영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깐 어느 노승이 한 분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이 깊은 산중에 웬일입니까?' 하니깐 '자네는 웬일인가? 깊은 산중에.' 그러시면서 '여기 내 오두막 절이 있으니 가세나. 가서 뭐래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먹고 가게 하더랍니다. 그래 가니까 정말 아주 깨끗한 집이 있더랍니다. 거기서 밥을 줘서 먹고서는 잠을 자고 깨니깐 비석 하나만 서 있고 아무 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게 옛날 얘기 같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게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속도가 빠르게 가는 분들은, 속도가 빠르게 가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죠. 그렇지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뜻으로 감지가 되고요.

그러면 사시다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정에서 사시면서 왜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되나? 또 이렇게 인의롭지 못하게 싸움이 일어나나? 그런 것도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왜 화목하지 못하고 여여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 법회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제 말 안 하셔도 여러분이 말기는 도리만 아시면 자연적 공부가 됩니다.

※위 법문은 2001년 6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학인모집(통신생포함)
- 과목 : 풍수, 역학, 침술 - 자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6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수업시간은 개인과 단체의 사정에 고려함
기숙하면서 공부 가능함
■법당단지내 : 휴양시설인 황토방찜질 사우나, 피부미용실, 커피숍, 노래방, 식당 있음
주소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룡리 173 동나무 가든내 원룡사, 승가대
☎ 061)334-9930
H · P : 016)639-9167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의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한방 다이어트로 살과의 전쟁 쉽게 끝낸다
모든 문제성 비만 고민 주저말고 어서 전화주십시요.
① 과립형으로 된 초간편 한방 다이어트로 해결해드립니다.
② 여기저기 아프고 체질적으로 살이찌십니까?
③ 오가피와 한방다이어트로 해결해 드립니다.
080-700-5700
02)444-4194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여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지냅니다.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겁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큰스님 모시고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입재일 : 양력 7월 7일 토(음력 5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원조 농산(어성초·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생즙** 출시」(8월달까지)
어성초 · 삼백초 건강차와 동시상담
♣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 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등
서울지사 02) 957-8342
508-0867
011)479-0633

의정부 **운불련**
개인콜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한글 의식
한글의식이 불교의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엄숙, 경건심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의식 등 각종 의식을 한글화 하여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인 의식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없이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 진정한 대장부의 길 (※미혼, 고졸이상 만 40세까지)
행자모집(남)
- 시설완비한 행자원의 독립운영 및 자율존중
- 전통적 수행을 통한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바루공양)
- 스님이 되면 모든 공부와 포교의 충분한 뒷바라지
- 본 사찰의 전 강의를 들으며 주지이신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의 직접 지도
(※ 여행자는 본 사찰의 분원인 벌도의 수행관에서 공부함 - 또는 위탁교육)
행자원 011)506-2702 T.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kr
도심속의 대가람, 5만명의 학생 및 신도 포교와 수행의 새지평을 열고 있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0대 전후 확실한 분으로
02)962-739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771-8209

[수원] **법 장 사**
- 부설 > 동양학 연구원
사암오행 침법
오운육기체질학
생활 동양의학
(뜸, 부황, 추마, 선체조)
전통 명리학
- 연구생 모집 : 0명
※ 무료수강하시면서 공양주 하실분 구함
031)238-0444

공양주 구합니다
▷ 충남 공주시
041)841-7904
017)261-7905
017)357-7904

신명 수료한 기도, 공부, 수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강사
055)932-5706

도와드리고자합니다
- 불사에 큰뜻을 품은 훌륭한 분을 뫼시고 수도하면서 봉사하고자 함
- 불교대학을 나와 법사로 활동중인 60대남
- 음양철학은 세계적으로 일인자이며, 명리학, 성경학, 침구요법, 서예등 포교에는 실력자임
- 인력이 필요함 암자나 포교당에서 봉사하고자 함
- 신도가 부족한 암자나 포교당도 관리해 드림
- 특히 비구니나 보살님이 운영하는데를 더 환영함
011)769-3954

산세가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보살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11)562-5556
052)254-2427

부전스님과 사찰 연결하여 드립니다.
011)337-50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전남강진천년고찰
공양주보살과 기와불사처 보살 모십니다
011)9611-8242

기도하시면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561-6644

공양주 구합니다
▷ 경북경주에 있는 산사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영탑 산사
031)867-4700
031)867-4132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이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비구니 스님및 여종무원 구함
▷ 컴퓨터 사용자 환영
학원 다닐 분도 가능
02)395-1222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45-2375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신평리 4거리)
- 건물 3층 법당(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크기 3자), 문수 완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사찰 안내
- 위치 : 미국 뉴욕시 한인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5억 7천만원)
※ 정규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 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오성민 212-244-1443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교문동 아차산
- 대지 : 151평, 건평 : 약 50평
- 법당 : 25평, 요사채, 방 3개, 주방 1개, 욕실별도,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 8천만원(은행융자 있음)
031)562-6905
016)464-6905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개, 옥실 2개, 법당 단청, 미륵님 모심, 산세수려, 기도도량으로 최적, 노스님 병환으로 급매, 창건 6년 3억 5천 (절충가능)
031)952-7905

사찰(전세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사천 부근
- 특징 : 멀리서 남해 삼천로 앞바다가 환히 보이는 직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소나무 숲이 좋고, 물이 아주 좋은 청정도량으로 신도가 많고, 기도도량으로써 아주 좋음. 스님이 해외이주 관계로 전세로 내놓음.
- 부지 : 약 3천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주지실 12평
- 전세가 : 1억 3천만원
주차장완비, 납골당, 노인복지사설을 하기좋음
017)844-944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강북 전철역 근접
- 법 당 : 50평 (3층건물중 2층, 방3개)
- 보증금 : 6천 / 월 400,000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도심 포교로 최고 위치
- 위 치 : 천안시내 소재
- 법 당 : 40평(2층)
- 요 사 : 40평(1층)
- 보증금 : 전세 5천 5백/월세없음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천안시내 요지의 도심포교 사찰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춘천시내 소재
- 부 지 : 50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40평(2동)
※ 산세가 아주 좋으며, 전동 사찰 도량임
- 양도가 : 3억 8천만원
- 위 치 : 충남 금산 소재
- 대 지 : 100평
- 법 당 : 인법당
- 요 사 : 빨간 벽돌 건축 30평 (사찰용 도로 건축)
※ 비구니스님등 수행 처소로 아주 좋음
- 양도가 : 7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 치 : 용인 시내 소재
- 대 지 : 460평
- 법 당 : 35평(목조, 5포, 7포)
- 요 사 : 40평(2동)
※ 뒤는 산이며, 전통사찰 임
- 양도가 : 4억 (분할가능)
02) 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포교당)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200평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 : 60평 - 가액 : 2억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도량으로 포교와 기도에 정진에 적합합니다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 부지 : 7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현대식 건물)
- 가액 : 4억 5천만원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전국에 소재한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 요사 : 약 30평(3동) 즉시 불사 가능
- 부지 : 10,000평
- 가액 : 1억
- 위치 : 경북
- 사찰부지 정지 작업 필한 사회 복지 법인으로 월 1,000만원 수입
- 부지 : 800평
- 가액 : 5억
- 위치 : 성남 분당
- 부지 : 920평
- 차량 진입가
- 도심 근접하면서 조용한 입급 사찰 도량 임
- 가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3포,5포,금단청필)
- 요사 : 80평(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689-0455

사찰 안내
- 위치 : 군포시 당동 코너 요지
- 대지 : 120평 - 건평 : 120평
- 특징 : 3면 도로 접함, 정원수, 정원석 유, 4층 건물 1층 다용도공간 (35평) 2~3층 방 3, 주방 거실 욕실구조 4층 법당, 주변인구 밀집 지역
- 가액 : 5억
016)356-1133
031)446-1133

절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 평수 : 약 7000평
- 가액 : 16억원
- 특징 : 뒤로는 울창한 송림과 앞으로는 청평호수를 내려다보는 동남향의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문의:011)713-0233 김구봉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영 (부곡 온천 2분거리)
- 대지 : 670평
- 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 요사체 : 30평, 신축 요사체 : 20평
- 가액 : 1억 8000만원
차량진입 가능. 산세 좋은 영험기도 도량
055)521-2028
017)586-3280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근교 외진 곳
- 가액 : 6,500만원
- 전세 2300만원
- 대지 : 175평(실사용 300평)
- 건물 : 1층 60평 방 5개 공양간 1개, 다용도실 10평 2층 25평, 법당
0502)789-6577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 임야 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 찰 안 내
- 위치 : 장초원 근교 - 부지 : 400평
- 법당 : 35평(오포집)
- 요사 : 2동 45평 - 가액 : 2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인법당(20평)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1)495-775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청량군 정산면
- 사찰에서 거주하실 스님이나 매입 하실 분 전화 부탁 드립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상세한 문의
011)855-2284 사무장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내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포교당 안내
- 위치:광명시 7호선 광명 지하철역 30m
- 평수 : 40평, 방 4개, 주방, 시설 A급
- 구조 : 삼존불, 지장전, 후불탱화, 지장탱화, 일로왕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2)2618-0908

암자토굴기도처최적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장남향 도로와 계곡 접하고 있는 준농림지 493평 벚꽃나무 가식제되었으며 전기시설 용이함
- 위치 :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의 중간
- 평당예상가액 : 7만원
011)843-477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 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 경내석조불 및 조경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식칠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등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답사후절충
018) 533-77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150평
- 법당 10평 요사 2동 주차장
- 가액 : 6천 5백만원
055)854-5205
017)856-36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서문 도심포교원(12년 전통)
- 4층 건물 3층 70평 "중"
- 법당 35평 큰방 4개 기타 현대식 시설 법당은 최고시설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가격절충)
011) 452-8374
031) 252-2796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파주 감악산 범륜사에 통일동산이 조성됐다.

20일, 감악산 등산로 초입 운계폭포 위에 위치한 범륜사 통일동산에는 세수 82세의 노스님인 금봉스님(태고종 승정)이 계단을 만드는 마무리작업을 손수 하고 있었다.

300여평 규모의 통일동산은 작지만 평화 기원석에서 묻어나오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저절로 느껴졌다.

"민족 통일 기원 조석예불"

파주 감악산에 통일동산 가꾸는 금봉스님

손수 돌 날라 3백평 조성

기원석 · 9층석탑등 세워





등산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계곡에서 자연석을 그대로 옮겨와 세웠다는 5m높이의 '세계평화 기원석'과 6m높이의 '9층 석탑'이 들어섰다. 기원석의 '세계평화' 휘호는 금봉 노스님이 직접 쓰고 새긴 것이다.

통일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파주는 특히 북으로 향하는 관문인 동시에 통일신도시가 예정돼 있어 지역적인 의미도 크다.

"조석예불로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지요. 이 공원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은 만큼 2년 전부터 내손으로 돌을 날라 축대를 쌓고 공원을 조성했어요"

금봉 노스님은 "하루빨리 통일이 돼 민족의 아픔이 사라졌으면 하는 기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30년 전부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옛 운계사터에 불사를 시작해 직접 현사찰인 범륜사를 건립한 금봉 노스님은 평생동안 손수 터를 고르고 돌을 나르며 직접 심은 20만주의 잣나무와 낙엽송을 이용, 불사를 해왔다. 통일공원 조성은 범륜사의 회향불사인 셈.

감악산을 등산온 김차수(63, 서울 홍은동)씨는 "공원 의자에 잠깐 쉬면서 통일이 빨이 되도록 기도 했다"며 "등산로에 통일공원이 조성돼 있어 통일염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031) 959-4566.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파주 감악산 범륜사 조성된 통일동산. 왼쪽 사진은 금봉스님.

중단소식

태고종

벽산스님 강원후원금 기탁



승정 벽산 스님(정읍 다천사 주지 사진)이 태고종립 선암사 강원 후원회에 1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스님은 성금을 기탁하는 자리에서 "도제양성이야말로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단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불사"라며 "선암사 강원이 새로운 세기, 불교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승교화종단의 성직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동종

용천사로 총무원 이전



총무원(원장 심월)은 18일 총무원사를 강서구 등촌 2동 570-6 용천사로 이전, 현판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이전 현판식에는 종정 지명스님, 총무원장 심월스님, 포교원장 일광스님, 사무총장 덕룡스님 등 사부대중 150명이 동참했다.

일붕선교종

서경보 스님 열반 5주기

초대 종정을 지낸 일붕존자 서경보 스님의 열반 5주기 추모법회가 27일 오전 11시 제주시 노형동 아흔아홉골 일붕동산에서 봉행된다.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1스님 1단체 참여운동"

고양시사암련 홍선스님

고양 불교회관 건립 추진

120개 관내 사암 방문조사



"지역의 크고 작은 사찰이 공존해야 합니다. 서로 어우러지면서 활동해야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지난 19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 및 생전예수재를 개최한 고양시 사암연합회 회장 홍선스님(흥국사 주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세가 미약한 고양시지역 신도시포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고양시 사암련 회장을 맡고있는 홍선스님은 "사암련 조직정비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4개팀으로 나눠 120개 관내 사암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지역사암의 현황을 조사했다"며 "이를 계기로 사암별 역할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포교방안을 창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1980년 창립된 고양사암연합회는 신도시포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올해 하부조직으로 구 단위 사암련을 결성했다. 고양시 2개구인 덕양구와 일산구 사암련을 발족하고 회장은 고양사암련 회장이 겸임하고 부회장은 해당 신도시지역 사암스님이 맡는 형태로 구성했다.

도·농이 혼합된 덕양구와 도시화 개념이 강한 일산구를 분리하여 별도 운영되는 사암련을 구축함으로써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회장 홍선스님의 방침이다.

또 회의 진행도 예불, 토론, 공양, 간담회 순으로 정해 바쁜 사암스님들의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결과를 얻고 있다.

스님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사암련의 역할이 중요하고 커졌다"며 "불교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대중불교, 사회참여불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고양사암련은 올해 1스님 1사회단체 동참운동을 벌이고 있다. 스님들이 각 단체서 활동하며 사암련 창구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뒤 지역사회에 공식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다.

홍선스님은 "문화센터, 유치원, 불교대학이 운영될 고양시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사암련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고 있다"며 "불교회관운영은 임기제로 전 사암스님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맡는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백중을 포함한 불교 5대명절 대중법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도에 금강경도량 건립

기원정사터 4천평 매입

금강정사 2004년 완공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인도 쉬라바스티(사위성) 기원정사 터가 있는 유서깊은 성지에 금강경 수행도량인 금강정사(Diamond Temple)가 건립된다.

인도 금강정사(주지 대인)와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수금장사(화주 한경선)는 최근 기원정사가 눈앞에 보이는 곳에 4,000여평의 부지를 매입, 요사채를 완공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정사는 올해안에 3,000명 수용규모의 법당인 금강원을 완공하고 내년에 수행공간인 반야원을, 2003년에 순례객을 위한 도량인 바라밀원을, 2004년까지 금강정사를 개원할 계획이다. 금강정사는 금강원 완공을 기점으로 수행프로그램 운영, 금강경 연구 및 홍포, 순례객들의 공간 제공, 인도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강정사 주지 대인스님은 "이곳 기원정사에 금강경 수행도량을 건립해 인도불교 중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55)386-5227.

김재경기자 jgkim@buddhapia.com

용문사 대웅전 낙성

노인 초청 위안잔치



완주 용문사(주지 성오)는 16일 인근지역 노인 100여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노인잔치에는 노영희국악단이 출연해 노인들의 흥을 돋궜다.

주지 성오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잔치를 열겠다"며 "불교포교를 위해 불자 12명으로 구성된 용문사 노영희 국악단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 무보시로 공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011-225-3206.

이에 앞서 용문사는 남파(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송월(전북종무원 포교국장) 진상(보정사 주지)스님과 40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을 거행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 · 안면암 · 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사진),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23일(월)~25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23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25일 오후 5시 조계사
◇문 의 : 전화 0502-317-2555, 011-317-2555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약품(주),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헤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마감 : 2001년 7월 2일까지(현재 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 2001년 7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불교의식에 대한 형태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실습과 이론을 병행 지도함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자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7월 23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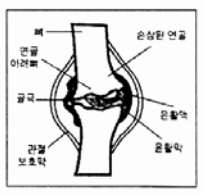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들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춘천 불교방송 허가 추천

방송위, 정통부에…내년 10월 개국 "강원포교 청신호"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1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었던 춘천 불교방송 설립이 내년 10월경 이뤄질 예정이어서 강원권 포교의 신기원을 이룰 전망이다.

춘천 불교방송 개국으로 지난 90년 5월1일 개국한 불교방송은 부산과 대구, 광주, 청주 등과 함께 모두 5개 지방국을 갖춘 전국방송으로 거듭나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춘천불교방송 개설을 허가하고 주파수 결정 등 설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정보통신부에 공식 의뢰했다. 이번에 허가 결정을 내린 방송위원회는 "불교방송이 지난 4월10일 접수한 춘천불교방송 설립 허가 추천 의뢰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종교간의 형평성을 감안, 심사에 참여한 방송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허가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교방송은 이달안으로 춘천불교방송의 허가 서류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신청서류에 추가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빠르면 올 9월쯤 정식 개국허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내년에 설립되는 춘천 불교방송국은 FM 방식으로 송출되며 송신소는 춘천시 동면 느라재에 세워진다.

이번 허가 결정에 따라 평소 춘천 불교방송국 설립 준비에 강한 의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 도후 스님(불교방송이사장, 심원사 주지)과 춘천 석왕사를 비롯한 춘천지역 사찰들이 연계해 '춘천불교방송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을 내보내는 실질적인 개국까지는 방송장비 수주, 연주소 공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춘천불교방송이 세워지더라도 가청권이 화천과 홍천 등 영서 지역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폭넓은 강원지역의 포교를 위해서는 향후 영동지역의 중계소 건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5년 11월 기준으로 강원권의 불교인구 비율이 50.7%로 이웃 종교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간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강원권 포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분단의 현실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 북부지역에서 국방포교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군포교의 약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NGO 공모사업

조계종, 4천만원 지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지난 12일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불교NGO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불교NGO 활동의 전문성과 영역의 다양화를 통한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공모사업의 접수를 받는 조계종은 1개 단체 1개 공모사업의 원칙으로 4,000여만원의 예산을 공모사업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배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02)735-5864 김재경 기자

"가야산 도로 노선변경"

합천주민 건교부에 탄원

합천 해인사 대중스님과 가야-성기 구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가 지원 지방도로 제59호 노선의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 상임대표)과 유정길 국장(불교환경교육원)은 18일 건설교통부 오장섭장관을 만나 "해인사 대중스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가야산을 환경훼손하는 도로개설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장섭장관은 "충분히 납득한다"며 "해인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남도와 협의, 노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과 회원 1백여명은 18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내에서 인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 해 줄것을 촉구했다.

"북난민 지원 간첩이라니…"

중국측 활동가 4명 재산압류-구금-추방

좋은벗, 재수사 촉구

교계의 북한난민 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의 활동가 4명이 중국 현지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돼, 길림성 국가안전청에 50일간 불법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또 북한돕기기금 1천만원과 자동차 컴퓨터등 단체와 활동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8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좋은벗들은 18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정부는 이 사건을 신속히 재수사하여 좋은벗들 활동가들에게 씌운 간첩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하게 압류한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7년부터 자원활동가를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북한난민을 돕고, 난민규모와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준 좋은벗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단체중 북한난민돕기분야의 선구자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좋은벗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거리행진을 한뒤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국가주석 앞으로 보내는 법륜스님 명의의 항의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법륜스님은 항의서한을 통해 "중국길림성 안전청이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가를 연행하여 장기구금하고 알몸수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좋은벗들의 활동가들이 중국내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우기자 wwkim@buddhapia.com

사회복지사 중 불자 13%

7865명 조사…기독교 44% 천주교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가운데 불자는 13.2%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용일)가 최근 발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사응답자 7,865명 중 불자는 13.2%인 1,0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응답자 중 76.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기독교가 44.3%, 무교 23.4%, 천주교 16.9%, 기타가 2.2%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에 따른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기독교가 52.9%, 무교가 18.9%, 천주교 17.8%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 · 강원지역에서는 기독교 51.5%, 무교 19.4%, 천주교 18.3%, 불교 10.1%순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에서는 기독교 43.2%, 무교 24.7%, 천주교 16.3% 순이며 경상도 지역은 무교 30.6%, 불교 21.5%, 천주교 16.2% 순이다. 전라 · 제주지역의 경우 기독교 46.6%, 무교 22.4%, 천주교 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분석하면 경상도 지역은 무교나 불교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종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젊은층일 수록 불교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경 기자 hgkim@buddhapia.com

소쩍새마을 후원금 '절반'

신도회 방문 줄고 청소년봉사 늘어

최근 6개월간 소쩍새마을을 다녀간 방문자 가운데 청소년 등 일반 자원봉사자의 수는 증가한 반면, 사찰 신도의 방문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가원에 따르면 이같은 자원봉사 계층의 변화로 인해 소쩍새마을의 후원금 수입은 예년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몇 년전 소쩍새마을 법당의 후원금 수입은 매달 100만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분기당 100만원선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중 · 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전체의 65~70% 정도로 늘어났으나 주로 내신관리 차원의 일회성 자원봉사여서 '철새' 봉사자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불교교과서 개편 마무리 단계

전국교법사단(단장 박영동)이 내년부터 사용될 중 · 고 종교(불교)교과서 개편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국교법사단장 박영동 법사는 "현재 불교교육연합회 교과서 편찬 소위원회에서 마지막 작업을 진행중이다"며 "오는 8월말 교육부에 개편안을 제출하면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종교교과서 개편은 교육부의 종립학교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것. 이번 개편안은 중학과정의 경우 그동안 학년별로 별도(3권)인 종교(불교) 교과서를 한권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인간에 대한 여러가지 이해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편이 신설됐다. 김중근 기자



◇도난당한 경주 백률사 후불탱화.

폭우 틈탄 탱화도둑 조심

경주 백률사 대웅전 2점 도난

비 오는 새벽을 틈 타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장마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던 19일 새벽 2시경 불국사 말사인 경주시 동천동 백률사 대웅전에 봉안된 후불탱화 2점이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탱화는 관음보살도와 지장보살도로 둘 다 1900년에 조성됐다. 비지정문화재지만 조계종 문화부가 실시한 불국사 본말사 성보문화재 조사시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강신태 반장은 "빗소리에 인기척이 감춰지는 점을 이용해 대웅전 좌측출입구의 열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점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99년 펴낸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을 범행일자로 택하는 경우가 많아 장마철을 앞두고 사찰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산악인련도 탄원서

군법당 불사 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돼 기소된 김태복 육군 소장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및 총동문회,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이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도 지난 15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재판과 함께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불교산악인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번 일로 김 장군은 물론 불교계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함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54-3733

자장 · 한암등 깨달음의 달 오대 비추고…

백두대간 속으로 〈37〉

오대산 〈2〉



◇백두대간이 오대산을 부려놓은 두로봉에서 응복산으로 향하는 백두대간의 등성마루.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곳. 그곳이 절이다. 부처의 집이자 중생의 집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시끌벅적한 저자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은 적멸(寂滅)의 공간이다. 도량(道場), 즉 닦음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절은, 깨달음의 집이다. 절이 그곳에 있는 까닭이다. 출가를 일러 입산(入山)이라고 하고, 스님들이 스스로를 산승(山僧)이라 칭하고, 절의 입구를 산문(山門)이라 하는 것만 봐도, 산과 절의 짝함은 산허리에 걸린 바위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인간과 자연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절. 그곳이 있음으로써 산은 안심(安心)의 장소가 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설악산 하면 백담사, 토함산 하면 석굴암, 지리산 하면 화엄사를 떠올리는 식으로 산과 절을 함께 생각하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 국보 221호인 목조 문수동자좌상. 세조가 친견한 문수동자를 조각한 것이라 전한다.



◇서대 수정암. 아미타 여래의 주처로 알려진 도량이다.



◇북대 미륵암 전경. 나옹스님이 수도한 도량이기도 하다.

전나무 숲길 · 월정사 · 상원사 · 적멸보궁, 자장 · 한암 · 탄허…. 일렁임 없는 호수에 비친 달처럼, 내 마음의 호수에 비친 오대산의 진경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들이다.

월정사에 가서는 초입에서부터 자동차를 버려야 한다. 전나무 숲길을 걸어보지 않고 월정사를 말할 수는 없다. 거침없이 솟아오른 전나무들이 또다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은, 세심(洗心)의 길이다. 그냥 지나기만 해도 '절로' 마음의 때가 씻기는 듯하니, 그야말로 '절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열리는 절, 월정사. 오대산의 으뜸 사찰이자 조계종 4교구 본사다. 자장 스님이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돌아온 해인 선덕왕 12년(643)에 개산(開山)했다. 자장 스님에 관한 옛 기록은 여럿이나 여기서는 간단히 삼국유사에 전하는 출가 때의 일화에 귀기울여 보자.

"때마침 조정에서 재상 자리가 비어 있어 여러 번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자장 스님은 나가지 않았다. 이에 왕이 명령하였다.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자장 스님이 듣고 말했다.

'내 차라리 하룻 동안 계율을 지키다 죽더라도, 백 년 동안 계율을 어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복숭이 오락가락하는 절박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서릿발 같은 기개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월정사의 주요 문화재로는 팔각구층석탑(국보48호), 석조보살좌상(보물139호),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보물140호) 등이 있다.

월정사에서 서북쪽으로 오대천의 상류 계곡을 거슬러오르면 상원사가 나온다. 적멸보궁을 거쳐 비로봉을 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절이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선덕왕 14년(645)에 자장 스님이 세웠다는 설과 성덕왕 4년(705)에 보천과 효명태자가 세웠다는 두 설이 있다. 1947년에 세운 청량선원에서는 이 시간에도 태산 같은 의심덩어리와 마주한 납자들이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팔각구층탑 · 문수동자상 등 성보 우뚝
청량선원엔 눈푸른 납자 화두와 씨름

주요문화재로는 세조가 직접 보았다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 전하는 목조 문수동자 좌상(국보221호)과 동종(국보36호) 등이 있다.

이 절 또한 근세 한국 불교의 고승인 한암 스님(1876~1951)과 얽힌 아름다운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6 · 25당시, 국군들이 법당을 불태우려 하자 가사 장삼을 입은 채 소신(燒身)의 자세로 맞서 절을 지켜냈다는 사실이다. 1926년 50이 되던 해에 봉은사에서 오대산으로 든 한암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27년간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서일 터.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곳이다. 비로봉의 동쪽으로 흘러내린 줄기에 자리잡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대산에 상주하는 5만의 진성(眞聖)을 만나는 일이다. 그럼 5만의 진성이란 무엇인가. 삼국유사에 전하는 바를 요약하면, 보천과 효명이라는 두 왕자가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에 올라 예를 드리면 때에, 동대(東臺)에는 1만의 관음, 남대(南臺)에는 1만의 지장, 서대(西臺)에는 1만 대세지, 북대(北臺)에는 석가여래를 앞세운 5백의 아라한이, 중대(中臺)에는 1만의 문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중대를 중심으로 등 · 서 · 남 · 북에 자리잡고 있는 다섯 암자를 들러 보자.

중대 사자암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 보살이 동물의 왕이자 지혜도 뛰어난 사자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적멸보궁과 상원사 사이에 있다. 적멸보궁의 노전(爐殿)으로 향각(香閣)이라고도 한다.

동대 관음암은 동대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도량이다.

서대 수정암은 서방 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여래의 주처로, 상원사의 남서쪽 호령봉과 비로봉 사이로 흘러내린 기슭 허리에 자리잡고 있다.

남대 지장암은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건넌 곳에 자리잡고 있다. 지장보살이 상주한다는 도량으로 현재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도처다.



북대 미륵암은 두로봉에서 갈래쳐 나온 오대산의 줄기에 솟아오른 상왕봉 중턱에 가부좌를 틀고 있다. 석가여래의 주처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까이에 나옹 스님이 참선 수행을 한 곳이라는 나옹대가 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btn 불교텔레비전 32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8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 · 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 · 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